

## 문화비전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문화원 임직원 일동

# Contents

## 웅진문화

2018. 창간호

- 001 문화비전선언문
- 004 웅진 향토유적·명승·천연기념물
- 006 웅진군민의 노래
- 007 발간사 문화원장
- 008 축사 장정민 군수, 조철수 의장
- 011 문화지 창간 소고 안길원(명예군민)
- 012 초대글 조건호(전 웅진군수)
- 014 문화원 개원
  - 추진경과
  - 개원사
  - 개원특강(이길원시인)

### I. 문예마당

#### 시

- 024 팔미도 벼랑 - 태동철
- 025 해무 - 강응호
- 026 동막에서 서쪽을 보다 - 김수원
- 027 가고 싶은 섬 - 이암선
- 028 갑죽도에서 - 김명호
- 029 나 어릴 적에 - 조종식
- 030 숨겨진 해변 - 조세관
- 031 끈 - 장정돈

#### 수필

- 032 노년이 아름다운 당신 - 김정배
- 033 연평도 조기 - 박현조
- 034 아들에게 보내는 부탁 편지 - 조순자
- 035 행복을 가져다 준 엄마의 치매 - 이미경
- 037 내가 농사꾼이 되기까지 - 이경화

#### 서각

- 039 김두린(청산에 살리라), 박용만(덕), 손선주(용서), 박춘수(무), 최인자(오육지족), 이성범(바다같은 사랑)

#### 웅진사람들의 이야기

- 041 음식은 “文化”이고 “文明”이자 “사랑”이다 - 정영민
- 043 독이 되기까지 - 인경석
- 046 영흥도의 풍광과 그 매력 - 박인화
- 049 보고 싶고 그리운 엄마 - 서양원
- 054 영흥 상륙 16주년 - 김현기
- 056 안시성 - 김재홍
- 057 종합운동장이 없어지다(체험수기) - 김경협

#### 웅진 발전을 위한 제안

- 063 웅진문화지 발간에 즈음하여 - 강도영
- 065 북도면의 문화 예술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들 - 차광운
- 075 국가지질공원을 넘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질유산의 보고 백령권 섬(백령, 대청, 소청도) - 김기룡(삼산고등학교장)
- 086 백령도 점박이 물범 - 박용만
- 089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박용만

#### 웅진의 아름다운 풍경

### II. 농촌·어촌 성공담

- 098 덕적도 단호박연구회 - 이현주
- 100 다시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미래 산업의 다이아몬드 - 장태현
- 106 20년 제자리 농업소득,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하나? - 서완수

### III. 풍랑속이었던 서해5도

- 114 제1차 서해교전(1차연평해전)
- 117 제2차 서해교전(2차연평해전)
- 119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 121 천안함 침몰사건
- 126 연평도 포격사건

### IV. 문화유적탐방

- 134 백령도 문화유적 탐방을 마치고 - 곽인화
- 139 백령도 문화탐방 기행문 - 이순자



### 사진전시회 입상 작품

### V. 응진섬마을 학교자랑

- 152 아름다운 작은 학교 신도분교를 소개합니다  
- 곽수정(교사)
- 154 자주 달빛 환상의 섬 자월도의 사랑하며  
꿈꾸는 작은 배움터 자월분교 - 자월분교장
- 157 승봉분교 - 박준원(교사)
- 158 장봉도와 고양이 - 최명진(교사)
- 160 섬마을 선생님 이야기  
(대청눈꽃 아이를 찾아서) - 천경범(교사)
- 162 하나의 씨앗이 꽃을 피우기까지(미래를  
이끌어 내는 연평의 힘) - 이효원(교사)
- 167 갑자기 섬마을 선생님이 된 교사의 이야기 -  
최연재(교사)
- 170 마치 포물선 같은 삶 - 임병미(교사)
- 172 꼬마 예술가의 그림  
이작분교 - 4학년 김현지, 4학년 김소현,  
6학년 김현서
- 175 8개월차 섬마을선생님이 바라 본 북포초등  
학교 - 서승현(교사)
- 177 우리학교의 자랑거리  
- 박혜빈(북포초 6학년)
- 178 우리학교의 자랑거리  
- 김민규(북포초 6학년)

### VI. 임원 및 회원명단

- 180 임원명단
- 181 회원명단

### VII. 문화원 주요사업

- 184 문화원자체역점사업
- 185 문화예술진흥사업
- 191 문화예술활성화사업

### VIII. 심청효행 글짓기·그림그리기 입상작품



#### 글짓기

- 194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 김서윤(덕적초 5학년)
- 196 효도 - 이주원(영흥초 6학년)
- 198 반중 조홍 감이~ - 이미리(연평중 3학년)
- 200 '엄마, 오늘도 사랑해' 를 읽고  
- 김휘준(영흥중 2학년)
- 202 행복한 인생을 위한 처방전을 읽고  
- 조정환(영흥고 2학년)
- 204 '허삼관 매월기' 를 읽고  
- 김사랑(영흥고 3학년)



#### 그림그리기

- 206 함재희(백령초 5학년), 손수민(백령초  
4학년), 김예진(영흥중 3학년), 정승희  
(영흥중 3학년), 윤중보(연평고 2학년),  
김기환(연평고 2학년)

---

웅진 향토유적 · 명승 · 천연기념물



연평면 충민사-향토유적제1호

백령도 두무진-명승제8호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66호

백령도 패총-향토유적 제2호

신도 노랑부리백로, 갯이갈매기 번식지-천연기념물 제360호

웅진 향토유적 · 명승 · 천연기념물



백령도 사곶해변-천연기념물 제 391호  
백령도 감람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 -천연기념물 제393호  
소청도 분바위-천연기념물 제508호

백령도 콩돌해안-천연기념물 제392호  
남포리 습곡구조-천연기념물 제507호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천연기념물 제 521호



## 옹진군민의 노래

윤 석 중 작사  
손 대 업 작곡

행진 빠르기로



1. 서 해 에 널 려 있 는 수 많 은 섬 들  
2. 이 웃 섬 이 웃 사 촌 정 다 운 마 을



파 도 와 싸 우 면 서 나 라 지 키 네  
산 과 물 다 스 러 서 살 찌 는 고 장



푸 른 섬 을 거 - 느 린 옹 진 군 민 아  
황 금 어 장 차 - 지 한 옹 진 군 민 아



우 리 는 빛 이 되 자 등 대 가 되 자  
힘 모 아 마음 모 아 잘 살 아 보 자

## 옹진문화는 군민의 꽃밭



옹진문화원장 태동철

우리 옹진문화원이 개원한지 첫해, 아직은 가녀린 몸집이지만 [옹진문화]의 발간은 옹진군민의 문화 창달과 문화 향유의 도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여 옹진군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고자 함에, 그 출발은 값진 것입니다. [옹진문화]발간은 옹진군의 지리적 취약점을 뛰어 넘어 섬과 섬, 너와 나, 예술과 생활 이 모두를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예술적 미를 창출하여 우리네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가치 창출의 출발점이며 귀착점인 것입니다.

내이름 석자로 된 문장 하나는 장미 줄기가 장미꽃 피우듯이, 나를 나답게 자기실현의 형상으로 나타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창출하는 삶의 꽃입니다.

여기 [옹진문화]는 군민의 꽃밭... 누구나 자기의 꽃씨를 뿌리고 가꾸고 꽃피워 내 삶의 전성시대를 열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광장입니다.

첫돌도 안된 어린 발걸음, 창간호이지만 군민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꽃씨 뿌려주시어 다양한 꽃들이 화사합니다. 해가 갈수록 더 든실하고 뿌리 깊은 꽃나무에 꽃송이 더욱 화사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동참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 창달로 그 향기 군민 모두 향유하는 문화의 큰 회화나무로 성장 할 것을 기대합니다.

옹진문화원장 태 동 철



축사

## 웅진문화 창간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장정민 군수

『웅진문화』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2만 1천여 웅진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2월 웅진문화원이 개원하고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웅진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아름다운 글로 엮어 웅진문화지를 세상에 내놓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웅진문화지가 발간되기까지 우리군 문화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주신 웅진군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웅진군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눈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은 그대로 시(詩)와 그림이 되고,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글로 옮기면 수필이 되고 극(劇)이 됩니다. 그 동안 수 많은 작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웅진군을 문화·예술의 소재로 삼아 작품을 남겼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웅진군은 문화·예술의 소중한 자원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웅진군은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 개원한 웅진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웅진군의 훌륭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체계화해 웅진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자원을 후대에까지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웅진군 모든 공무원들도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기운이 웅진군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서 웅진군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진군민 여러분!

2018년도는 우리 용진군에게 참으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용진군은 수도권 제일의 해양관광 1번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평화 1번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정세와 여건이 용진군에게 큰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금년도 용진문화원의 개원으로 용진군 문화융성의 기틀도 견고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용진문화원의 다양한 활동에 힘입어 앞으로 우리 용진군민이 다양한 양질의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태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용진문화원이 지역문화 중심체 공간으로서 군민들의 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용진문화지 발간을 축하드리고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진군수 장 정 민



축사

## 웅진문화 창간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조철수 의장

우리 웅진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우리 웅진군 문화의 고유함을 보존하고 재발견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발전 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번에 발간되는 웅진문화지는 우리 지역문화 발전의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웅진문화원이 웅진문화지를 통하여 우리 웅진 문화의 원류를 찾고 우리 지역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척박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일구었던 놀라운 결과들에 이야기를 입혀 우리 웅진군 지역만의 고유함이 부각되는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웅진군 문화 창달의 주인공들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군민가까이에 있는 웅진문화지가 되어 우리 웅진군민의 희망찬 기운을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웅진문화지의 창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진문화원이 문화 웅진 도약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웅진문화지가 펼쳐지는 곳마다 발전과 건승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며, 웅진군민과 출향인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웅진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웅진군 의회 의장 조 철 수

## 문화지 창간 소고



명예군민 안길원

옹진문화원 발기위원으로 참여했던 명예군민의 한사람으로 옹진문화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옹진군은 섬마다 왕래가 녹녹치 않은 교통수단으로 문화생활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바다와 벗 삼아 살아온 군민들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2년 전에 설립된 옹진문화원은 7개면 100개의 섬 문화를 21세기 군민들의 문화 정서를 새롭게 조명하는 문화 사업에 큰 기대를 합니다.

옹진군은 100개 섬(유인도25, 무인도75)과 광활한 서해바다를 (15,260km<sup>2</sup>) 가진 인천광역시 지방정부로서 (경기도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특이한 생태계를 중심으로 각 섬마다 풍부한 어족자원에서 식·생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별한 환경을 지닌 자랑스러운 서해 바다와 보물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대화가 잘 성사 되어 평화시대가 만들어진다면 옹진군은 국민들이 행복하고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해 바다는 사계절 다양한 어패류와 해초들을 군민들의 큰 소득원으로 삶의 기본 자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찾는 해양관광과 수상레저 자원으로 인류가 생존할 때까지 무궁무진한 보물 자원으로 조물주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준 특별한 선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옹진문화원은 도서 지역 풍습과 삶의 속에 녹아있는 일상의 문화를 발굴하여 군민들의 삶에 에너지로 승화시켜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다양한 장르의 매체로 아름다운 삶의 가치 있는 무형·유형문화의 자산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옹진군의 섬마다 독특한 형태의 괴암절벽, 선대바위들은 수천년의 세월 속에 도도하게 풍화 작용과 비바람으로 만들어낸 어떤 형태로도 표현하기 쉽지 않은 조각품들이며 서해 최북단 백령도 사곶 해변의 천연 비행장, 두문진의 신비스러운 선대바위의 절경, 대청도 괴암들의 석층은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을 만큼 자연환경에서 얻어진 보석보다도 진귀한 문화재급들의 유산물을 옹진군의 새로운 문화 사업에 표상으로 만들어 옹진군 문화원이 군민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명예군민 안길원



초대글



전 응진군수 조건호

##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일본의 오사카부(大阪府) 다카스키시(高槻市) 시장이었던 에무라 도시오(江村利雄)씨는 시장을 그만 두던 날, 명언을 남겼다.

“시장은 바꿀 수 있어도 남편은 바꿀 수 없지요” 라는 말은 훗날 TV의 광고 카피로 전국적인 유행어가 됐다.

당시 77세인 에무라 시장은 1년 후에 있을 시장선거에 다시 출마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에무라 씨보다 1살 많은 아내 도미코(登美子)여사는 남편이 바쁜 시장 직을 수행하면서, 우울증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기력도 날로 쇠약해져 8년 동안 투병생활 끝에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 곁에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 중요한 조언을 듣게 되었다. “의식 없는 식물인간 아내들 중에 부모나 자식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다가도 남편이 말을 걸면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아내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다. “내 아내도 나의 말에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일을 위해 아내를 돌볼 시간을 빼기고 있다. 나의 일을 희생해서라도 아내를 위해 살자.”

동료와 주위 사람들은 시장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아내를 돌보는 것보다 사회를 위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며 말렸지만, 에무라 씨의 결심은 확고했다. 에무라 씨가 시장을 그만 두는 날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시장은 바꿀 수 있어도 남편은 바꿀 수 없지요. 시민 여러분 부디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이 말이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져 못 여성들이 몽클한 감명을 받았으며, 시장으로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됐다.

시장을 그만 둔 에무라 씨는 하루 24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얼굴을 씻겨 주는 것으로 시작해 손수 아침을 준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아내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그림책도 보여주며 대화를 나누고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줄 간식을 만들어 아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간 에무라 씨는 아내를 보고는 너무 놀라서 쟁반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웃지도 못하던 그녀가 에무라 씨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러고는 “여보 고마워”라고 말문을 연 것이다. 그 순간 에무라 씨는 감격에 복받쳐 굵은 눈방울이 맺혔고, 이 모습을 본 도미코 여사 역시 눈물을 쏟았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죽는 날까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마지막 순간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므로 나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한 최고급 시설의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는 일은 분명 물질적 행복 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보듬어주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가 오늘따라 너무 예쁘고 귀엽다. 얼굴을 가까이해 입술을 포개본다. ‘아아, 주름이 많이 늘었네.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앞으로는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소. 부디 건강해 주구려.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의 천사여! 나의 영원한 분신이요, 반려자요. 평생 동안 너무 고생만 시켰소.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게요.

민선 1,2,3대 전 용진군수 조 건 호

## 웅진문화원 개원

### 추진경과

- 2006년 3월 26일 『웅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 2015년 9월 웅진문화원 설립 추진계획 수립
- 2015년 11월 웅진문화원 발기인 추천 의뢰
- 2016년 7월 웅진문화원 설립발기인총회 개최
- 2016년 8월 웅진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개최
- 2016년 9월 웅진문화원 창립회원 모집
- 2016년 10월 웅진문화원 초대원장 모집 공고
- 2016년 12월 웅진문화원 임원 모집 완료
- 2017년 6월 9일 웅진문화원 창립총회 개최, 태동철 원장 추대
- 2017년 8월 24일 제 1차 이사회 개최
- 2017년 9월 27일 설립인가
- 2017년 10월 10일 사단법인 웅진문화원 등기
- 2017년 10월 17일 고유번호증 발급
- 2017년 12월 8일 제 2차 이사회 개최
- 2018년 2월 23일 정기총회 및 개원식 개최
- 2018년 9월 10일 제 1차 이사회 개최



## 개원사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선양하시는  
회원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웅진문화원의 주인 되심을  
경하 드립니다.

웅진, 강화, 중구,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는 안상수 국회의원님,

인천문화원연합회 최춘자 회장님,  
그리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임병대 사무총장님,

웅진군의회 백동현의장님, 의원님과  
각 구 문화원장님 등  
내빈 모두에게 감사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웅진문화원 탄생의 산파 역할하신  
발기인, 추진위원님,  
고맙고 감사하며 존경합니다.  
오늘의 결실과 보람은  
웅진군민의 영광이십니다.

웅진군정을 통하여  
군민의 생활향상에 진력을 다하시는  
조윤길 군수님께 경의를 표하며

문화원 창설에 힘을 주신  
그 업적은 문화원의 발전과 함께  
오래오래 큰 공덕으로 빛날 것입니다.  
존경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화사한 오늘 햇빛은  
어제의 잿빛 구름이 만들어낸  
오늘의 생명시간입니다.  
이 생명시간을 전신에 누리고  
호흡함은 축복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조물주는 꽃을 내세워  
삶의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네 전성기는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웅진문화원의 개원은  
우리네 삶의 전성기를 개화하는  
첫발이기에 엄숙합니다.

지금 이 시대생활은  
전 지구적이면서도  
핵가족시대, 감성시대, 고독한 개인주의시대,  
다양성과 독자성이  
서로 조화롭게 존재하려고 하면서도  
대립하는 시대,

전문적이면서도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는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원의 존재가치가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가치 창출로  
웅진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사명감을  
무겁게 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웅진문화원 개원

웅진문화원의 존재가치에서  
[스피노자]의 말을 되새김질하며  
생각해봅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빵과 서커스]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고 설파했습니다.

웅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숨은 설화, 구비문화를 발굴  
문화콘텐츠로 승화시켜  
빵을 해결하고,

생활문화의 향상과 일상화로  
이웃과 어우러짐 속에  
너와 내가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전성기의 삶을 누리도록  
문화가 서커스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오늘날 인문학의 효용성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역사의 눈으로  
세계를 이해해야  
미래를 잡을 수 있고,

상상력의 제고로  
현실 사회의 벽을 허물어 내야  
앞으로 갈수 있으며,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가  
다양한 문제들의 해답을  
도출 할 수 있고,

인간 심층에 잠겨있는  
무의식 세계를 파고 들어가,  
우울함과 조급함에서 해방되어  
균형 잡힌 생활이 가능한 것은  
인문학의 크나큰 힘입니다.

하여, 인문학의 저변 확대에  
최우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고,  
제도와 재정으로 편달주시며,  
박수와 격려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문화원의 사업이  
빛을 발하여 어둠에 갇힌 웅진반도,

해주 개풍평야에  
광명의 씨앗으로 움터서  
통일대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웅진문화원 개원에  
축복주시신 웅진군민 여러분,  
내빈, 군수님,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함과 고마움 담아  
존경하는 마음 올립니다.

새해에도 옥체는  
태산같이 강건하시고,  
오복은 바다 밀물같이 출렁이시며,  
행운은 별빛같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웅진문화원 원장 태 동 철 합장



## 웅진문화원 개원식 특별강의

# 인간 본성과 예술

이 길 월 (시인)

Midsummer Night's Dream

우선 웅진문화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더구나 초대 원장으로 좋은 시를 쓰며 인품 또한 훌륭한 분으로 정평이 있는 태동철 시인이 취임하게 된 점은 한 사람의 시인으로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웅진 문화원은 문화 예술의 중요한 산실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은 재화의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이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자랑하는 셰익스피어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쓰고 난 후, 사랑을 주제로 한 이 희곡에서 두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말이 사랑 이야기로는 너무 비극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 보다는 덜 비극적인 아주 희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곧 바로 1590~1596년 까지 6년 동안 <한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이라는 희곡을 씁니다.

줄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두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지만,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두 주인공이 행복하게 결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전 편에 걸쳐 우스꽝스러운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희극적 요소가 다분한 작품입니다.

북반구에서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날을 Midsummer night이라 합니다. 우리말로 <하지>라 하지요. 유럽에서는 특히 이 날을 <St. John's Day>라고 하며 크리스마스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축제를 즐깁니다. 특히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이 날 여러 가지 유머러스하고 환상적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는 미신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A Midsummer night dream>에서 요정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학적인 사건과 재치로 로미오와 줄리엣과는 다르게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도 작품 전반에 걸쳐 시처럼 아름다운 문장이 가득합니다. 이 작품에 아주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Things base and vile, holding no quantity.*

*Love can transpose to form and dignity.*

*Love looks not to with the eyes, but with the mind*

*-by William Shakespeare*

*<A Summer Midnight's Dream> 1act 1cp.*

아무리 천박하고 비천할지라도

사랑은 고결하고 품위 있게 만드나니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윌리엄 셰익스피어 <한여름 밤의 꿈> 서언 1막장

## 웅진문화원 개원

세익스피어가 서거하고, 193년 후에 태어난 멘델스존(Mendelssohn)은 〈한 여름 밤의 꿈〉 서언의 이 문구에 감동하여 곡을 붙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곤 작품 구성에 적합하도록 환상적인 발레를 위한 곡을 만듭니다. 1826년 서곡(Overture)을 작곡하고, 17년 후 1843년 나머지 12곡을 모두 완성합니다. 1596에 발표된 세익스피어의 작품이 사후 245년 만에 멘델스존에 의해 발레 음악으로 재생된 것입니다. 이 〈A Midsummer night dream〉은 멘델스존의 대표적인 창작 발레곡입니다.

이 중 Overture, Scherzo, Intermezzo, wedding song 은 특히 잘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The wedding song〉은 멘델스존 생존 시에는 그리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멘델스존 서거 78년 후인, 1925년 영국 왕실 결혼식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후,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결혼식 때면 울리는 중요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96년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1843년 멘델스존이 곡을 붙인 〈The wedding song〉은 171년 이 지난 오늘까지 인류 결혼 문화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화예술이 인류 문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세익스피어의 작품이 멘델스존에 의해 음악으로 환생하듯이 모든 예술은 문자를 통한 문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 소설, 희곡, 수필이 있어 음악이 있고 영화가 있고, 음악이 있어 무용도 있으며, 지금 세계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위 K-Pop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 창작은 인간만이 합니다. 동물들은 예술 창작을 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는 수 만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동물 중 인간만이 예술을 창작 합니다. 어찌하여 인간만이 예술 창작이라는 특혜를 부여 받고 있을까. 과연 인

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본성을 타고났기에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을까.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오페라. 오늘은 그 중 문학과 음악을 중심으로 이런 점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호기심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막연하고도 심원한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해석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동서고금을 통틀어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고대 라틴 신화 하나를 예로 들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라틴 신화입니다.

심려(心慮; 호기심의 어원 Curio)가 어떤 강을 건너가다가 진흙을 보았습니다. 생각에 잠겨서 그는 진흙 한 조각을 떼어서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심려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 만족해하며, 만들어 놓은 형상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주피터(Jupiter)가 나타납니다. '심려'는 주피터에게 자기가 빚어놓은 그 형상에 혼(魂)을 넣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피터는 그 소원을 흔쾌히 받아주면서 숨을 불어 넣어 영혼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에 만족한 '심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에 이름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피터는 맹렬히 대들면서 자기 이름을 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려'와 '주피터'가 그 이름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지신(地神)이 머리를 스~윙 들고 일어나더니 그 형상은 자신의 몸의 한 조각을 제공한 것이니 자기 이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투며 결말을 내지 못하자 이들은 농신(農神)인 새턴(Saturn)을 찾아 갑니다. 그리곤 그에게 판가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새턴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대 주피터는 혼을 제공했으니 그 형상이 죽었을 때 그 혼을 가져갈 것이고, 그대 대지는 육신을 제공했으니 그것이 죽을 때는 그 육신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려’는 이 형상을 처음 빚어놓았으니, 살아 있는 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이름에 관해서 논쟁을 한 것이니 그것은 땅(humus)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보아 ‘사람(homo)’이라고 부르라”

인용된 이 신화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명제를 암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무심하게 지나치지 못하고 이를 규명하고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는 못 견뎌하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은 항상 우리 눈에 보입니다. 진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니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사물입니다. 개나 호랑이 같은 동물이라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사물입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다가 우연히 부드럽고 따뜻한 진흙을 본 ‘심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무엇인가 만들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고, 그 호기심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형상’ 즉 <사람>을 창조해 낸 것입니다.

이 신화는 인간이란 바로 그 <심려(心慮)=호기심(Curiosity)>가 빚은 산물로 자신이나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사에 대한 호기심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호기심 그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꼭 인간만이 지닌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 예컨대 개나 호랑이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파주 출판도시입니다. 단지조성

초기에 입주했는데 허허 별판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 친구가 공장에서 키워 보라하며 진돗개 암놈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나는 그 놈에게 목걸이를 채워 산책을 자주 나갔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놈은 가는 곳마다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쿵쿵거리며 자기 영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넓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미 인간들이 금 그어 놓고 등기를 낸 땅인데 저도 등기를 널 심산인 모양입니다. 땅을 넓히는 것입니다. 놈이 생후 3개월째 이야기입니다.

생후 6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놈은 특하면 집을 나가더니만 한나절 어디 가서 놀다가 저녁이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배가 불러 오는 것입니다. 오매~~ 요놈이 바람이 나서 임신을 해 온 것입니다. 안되겠다 싶어 목줄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줄을 끊고 밖으로 나가려 무진 애를 쓰는 것입니다. 가끔 목줄을 풀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목줄을 더 단단히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서 수놈이 한 마리 나타나 놈의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입니다. 놈의 목에는 끊겨진 사슬이 매달려 있는 걸 보면 분명 주인이 있는 놈인데 제 연인을 만나려 기를 쓰고 목줄을 끊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무렵 나는 이 진돗개의 행태를 인간사에 빗댄 몇 편의 시를 씁니다. 세 번째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 개.3/犬公의 登記

이 길 원

놈이 이 땅에 등기를 널 줄이야  
목줄에 끌린 저녁 산책길

그래도 놈이 가는 곳은 일정했다  
감나무 밑동에 오줌 한 줄기  
몇 발작 더 가  
싸리나무 곁에 또 한 줄기  
국화 꽃앞에 코 대고 쿵쿵  
빙 둘러 경계 그으며 등기 내더니  
살을 붙이듯 조금씩 넓힌다  
나도 어렵듯이 놈의 땅을 짐작한다  
그 땅 안에서 놈은 왕이다  
길 잃은 개라도 들어오면  
이빨 세워 으르렁  
놈의 허락 없이는 넘볼 수 없는 영역  
인간들도 그 땅에 금 그으며 쿵쿵거린다

노을을 타고 앉은 부처님  
빙긔 웃는다

동물들도 이렇듯 보이는 대상에 관하여 호기심을 보입니다. 암컷을 보고 냄새를 맡으며 쿵쿵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이 지닌 호기심과 인간이 지닌 호기심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동물의 호기심은 본능에서 연유합니다. 사람도 동물인지라 이 본능적 호기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 개처럼 재산 또는 권력에 욕심을 내기도 하고 이성(異性)에게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리 본능적인 호기심을 넘어 어떤 지적(知的)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왜 해는 동쪽에서 뜨는지 궁금해서 해 뜨는 곳을 향해 앉아 사색하는 늑대를 본 일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자고, 증족을 번식하고, 생존하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처럼 원초적 본능을 벗어난 어떤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고뇌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의 소설 <개미>에서 개미도 인간처럼 고뇌하는 곤충으로 인간처럼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종교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상상력의 소산입니다.

어느 학자는 “개미도 인간처럼 지능을 가진 생물이다. 인간만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우리의 생각은 착각이다. 수만 년 전 인류가 생성되기 전부터 인류보다 더 많은 종의 개미가 지구에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하지만 인간인 우리로서 다른 차원에 사는 곤충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도 동물의 한 속입니다. 인간 역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본능 충족을 위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 충족과는 관계없이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본질적 호기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자연 현상의 변화는 물론, 인간 본연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많은 고뇌를 합니다. 해는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지, 수평선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지,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죽음 이후 인간의 영혼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등의 여러 의문에 대하여 고심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규명하기 위해 사색과 연구에 몰두합니다.

이런 것들은 본능 충족에서 오는 쾌락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고통을 수반합니다. 인간은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원인을 알아내려 합니다. 그것은 분명 동물들의 본능 충족 행위와는 다른, 지적 욕구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호기심을 동물이 지닌 '본능적 호기심'과 구별하여 '지적 호기심'이라고 부릅니다.

## 웅진문화원 개원

그렇습니다. 지적 호기심.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지니 고유한 특성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지적 호기심을 가진 동물'로 정의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예쁜 여자와 즐기는 일로 낙을 삼으며, 금력에 집착하고, 강한 힘을 위해 투쟁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자라도 이 세계란 무엇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죽음 이후의 인간은 어찌 되는지, 등등 인간의 삶과 직결된 지적 문제에 고민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2천년 또는 4천년이 지난 지금도 절을 하며 경배 합니다. 그들은 돈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개처럼 제 땅을 넓히려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장 고귀한 인간은 바로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온 것도 강렬한 지적 호기심 때문입니다.

지적 호기심의 정도에 따라 여러 계층의 인간, 즉, 동물적 수준의 인간으로부터 인간다운 인간, 나아가 그 자체를 초월한 신격화된 인간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 석가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는 격이 다른 인간입니다.

인간도 사람에 따라 그 품격을 달리 합니다. 신의 경지로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예를 든 개처럼 동물적 본능만으로 사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 자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나

는 과연 인간다운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에 가까운 사람인가, 하는 그 격은 인간 스스로 만듭니다. 내가 어느 품의 위치에 있는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호기심의 대상에 따라 자신이 추구하는 일도 다릅니다. 이제 인간이 지닌 지적 호기심의 대상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 그 자체입니다. 지적 호기심의 주체인 자아를 포함하여 이 세계의 주인인 인간이 무엇이나 하는 의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 즉 사회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까닭에 인간이 함께 사는 공동체 역시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환경의 소산이며 환경에서 생존의 자원을 구하고 있는 까닭에 그가 밭을 딛고 사는 자연환경 역시 인간의 중요한 의문의 대상이 됩니다.

대체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적 행위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따라 나뉘집니다.

첫째, 인간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인문과학,

둘째, 인간 공동체, 즉 사회를 대상으로 삼는 사회과학,

셋째, 인간이 사는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삼는 자연과학.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하느냐 하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인문과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공동체나 자연환경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 웅진문화원 개원

중심은 역시 인간이며 인간이 없는 세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문학을 성립하는 주된 대상인 인간을 알기위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 하느냐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시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시간적인 질서와 공간적인 구조 속에서 그 좌표가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우리는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질서에서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로 언제 태어났으며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라 무슨 교육을 받았고 그 성장과정은 어떠한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즉 그의 출생에서부터 과거, 현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인간됨을 대체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간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상태나 행동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조사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개인이 아닌 보편적 인간에게 적용시킬 때, 시간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적 태도를 '사학(史學)'이라고 하고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철학(哲學)'이라고 합니다. 사학, 즉 역사는 인간을 시간의 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며, 철학은 공간의 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역사학이나 철학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

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두 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나 철학은 시간의 축이든 공간의 축이든 오직 어느 한 측면만 해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역사나 철학은 그것이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인간의 반쪽 이상은 접근할 수는 없는 근본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을 넘어 인간 본성에 관한 질문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연유로 인간은 문학이라는 예술 행위를 낳게 됩니다. 문학은 역사나 철학이 지닌 논리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 차원 높은 지적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의 접근 방법의 하나로 문학 창작 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로 표현되는 문학은 인간의 지적 행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저는 문학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에 대한 탐구 행위라고 봅니다. 창작행위로서의 문학은 간단히 "인간이란 무엇이나" 하는 명제로 귀납됩니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혹은 그 가치를 함양하지 않으면 참다운 문학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그 자체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학이 다른 예술 창작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문학이 음악을 만들고 춤을 만들고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 일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문화원입니다. 앞으로 웅진군의 여러분들이 이곳을 터전으로 삼아 문화 예술 창달에 일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I 문예마당



---

시

---

수필

---

서각

---

웅진사람들의 이야기

---

웅진 발전을 위한 제안

---



## 팔미도 벼랑

● ● 태 동 철

흠 한 점 없이 살이 모두 뜯겨나간  
시련 속에  
흰 뼈를 일으켜 세운 골격으로 난바다를 품고 있다

심해에서 달려온 파도를 곧은 등으로 받아  
포말을 피워 올린다  
억센 늑골을 켜켜이 쌓아 올린 가슴으로  
파도를 조각내서 떠나보낸다

양상한 뼈에도 석화는 된다  
돌계의 안식처가 되고  
송어의 산란처가 되며  
발목이 빨갱게 물질한 갈매기 쉼터가 된다

팔미도 벼랑  
거친 파도에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태초 이래 수직의 자세를 지키며  
힘찬 발끝으로 가 없는 바다를 펼치고 있다  
수평선 너머 몰려오는 파도  
물굽이, 굽이 팔미도 벼랑 앞에서 오체투지를 한다

### 시작노트

팔미도는 사방에 벼랑을 품고 있다. 그 벼랑은 흠 한 점 없다.  
난 바다의 파도를 맞아.. 의연하게 대처하며.. 그 벼랑 안에 돌계의 휴식처, 송어의 산란처, 갈매기의 쉼터..  
태시인의 존재 팔미도 벼랑 같이 군민들의 쉼터가 되는 문화원의 존재로 치환하면.. 오체투지의 경배를!!



## 해 무

● ● 강 응 호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님의 발자취 뒤로하고  
 여로의 언저리에서  
 실바람에 흠어지는  
 님의 가녀린 울부짖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려진 비에 속에  
 자아의 아픔을 삭히며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버린  
 시련과 번뇌가  
 해무 흠어져 녹아내리듯  
 언젠가는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동막에서 서쪽을 보다

● ● 김 수 원

갯벌이 펼쳐놓은 감광지에  
석양이 마음 속 추억을 인화한다

눈물방울,  
더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금들이  
가슴속에 무수한 갯골을 판다

은박지를 구겨놓은 구름 속으로  
눈꺼풀이 잠긴다  
뺨속까지 절이는 소금기로  
내 몸이 일몰보다 먼저 어두워진다

해조음에 발자국을 찍으며  
생의 질펀한 갯비린내에 휩싸인  
수평선이 밀물로 걸어 나온다

내가 나에게로 돌아가는 시간  
서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자동차전조등을 켜다.

## 가고 싶은 섬

### ●● 이 암 전

장봉도는요  
아름다운 섬입니다  
자연이 주는 모든 생물들의 향연이 있고  
어둠이 깔린 수평선 언저리엔  
새우잡이 배들의 환한 불빛  
또한 10월의 가을밤을 수 놓습니다.

낭만이 충만한 가을 섬 장봉도는요  
도심에서 소풍 온 아웃도어들의 행렬이  
울긋불긋 색 옷 입히고  
섬산 오솔길을 걷다 보면  
한참 영글은 가을산 도토리  
떼구르르 구르며 하는 말  
풍년일세 올 가을도  
장봉도 섬산을 자랑합니다.

장봉도는요  
만물의 영장들도  
최고의 섬에 감사를 하고  
장봉도 터줏대감  
갈매기 무리는  
공중비행 자칭하며  
10월의 섬 하늘에서  
S.O.S.O 섬섬섬

가을섬 장봉도를 말합니다.  
떼를 지어 나는 날개 짓도  
정말 장관이구요.

장봉도는요  
최고의 섬터 최고의 볼거리

우린 양팔 벌려 감동의 숨을 쉬며  
엄지 척 올려볼 때  
엄마 품 같은 장봉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장봉도는요  
섬사람들이 만든  
예쁜 꽃길만 걸어 봐도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봉도는요  
참 좋아요 정말 순수해요

해변을 걸으며 멋진 추억도 쌓고  
좋은 계절인 이 가을에  
장봉 투어 어떨까요?

## 갑죽도에서

● ● 김 명 호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닌  
영흥도가 온전히 섬이었을 때  
갑죽도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습니다

큰 사리,  
썰물이 나면  
모래 위 달아나는 여린 물결을 따라와서  
시나브로 들어나는 갑죽도의 검은 속살에  
저마다의 호기심과 기대로 탐닉했습니다

간조,  
섬립을 허락한 어이없이 짧은 시간  
갯돌 위 소라  
갯돌 밧 박하지  
파란 구멍 속 낙지  
모래뿔 속 키조개  
운수 좋으면 물가 쪽에 꽃게도 보이고  
  
갯바구니에 담긴 소박한 욕심에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래뿔 건너 이웃들의 각박함일까  
저 앞 우뚝 선 굴뚝들의 낯설음일까  
갑죽도엔 조개들의 발길이 잦아들고.....

오늘,  
큰 사리 간조  
거친 검은 속살 흰히 들어 낸 채, 손짓해도  
사람들의 발길 드물어진 갑죽도에서,

영흥대교가 놓이기 전, 그러니까  
한 삼사십년 전쯤이나 될까요?

키조개 큰 입 게으른 연주로  
소라가 노래하고

꽃게가 춤추던

풋전설을 전합니다

## 나 어릴적에

● ● 조 종 식

봄

짚레꽃 진달래 따서 입에 물고  
 버들가지 강아지풀 피리 만들고  
 파~아란 보리밭에 숨바꼭질하며  
 노랑나비 종달새와 숨을 쉬었지

여름

소고빼 망태에 목동이 되고  
 푸른 바다 마시며 해변을 뛰고  
 쭉대나무 모닥불 호야등 켜며  
 옷동네 아랫동네 달밤을 달렸지

가을

일렁이는 수수밭 콩 구워 먹고  
 황혼 깃든 잔디밭에 공차기 하며  
 땅거미 지는 물가 햇볕에 몸 쪼이며  
 코스모스 소스란 가을바람 낙엽이 졌지

겨울

첫 눈 내려 썰매 만들어 미끄럼 타며  
 옛날 얘기 할머니 곁에 고구마 굽고  
 징글벨 X-MAS 언덕위에 예배당  
 긴긴 방학 개학날엔 설레어 뛰었고  
 의젓한 대학생을 꿈꾸었다오

I

만경만경

## 숨겨진 해변

● ● 조 세 관

상현달 구름 속 해매고  
영흥도 갯벌 지평선 위로  
이육사 닭 우는 소리 스쳐간다.

태초에 있었고 아득한 뒤  
남을 섬 사람 숨 번져오니  
허리 잘린 땅 신음 깊어지듯

누더기 내 삶 구겨진 잔적들  
숨겨진 해변가에 얼룩질룩  
내림길 머물 집 눈가에 잡히네

\* 영흥도 hidden beach(숙박)에서 썰물 때 홀로 갯벌 위로 걸으면서 이육사선생님(퇴계 16대손)이 나라를 걱정하는 가슴 치는 한~소리를 느껴, 섬의 애절함은 불구로 만들지 마시라 그 신음 깊이 느껴보며, 어느 덧 인생 내림길 머지않아 자연으로 돌아갈 내 집 보이는 것 같아라.

# 꾼

## ● ● 장 정 돈

장터에서 장돌뱅이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

장사꾼!

소리를 잘 지르고, 소리쟁이를 잘하는 사람

소리꾼!

인터넷 댓글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누리꾼!

눈빛과 촉으로 달달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

사랑꾼!

겨울을 나기 위해 땀 나무를 하는 사람

나무꾼!

낚시질을 하는 사람, 고기를 잡는 사람

낚시꾼!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

사기꾼!

약은 피로 일을 꾸미는 사람

음해와 모함으로 이간질하는 사람

모사꾼!

지역, 계층 간 차별 없는 하나 된 용진을 위해

군민중심, 소통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어우르는

참일꾼!

꾼이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좋지 않은 꾀는 용진이 하나가 아닌 둘로 만드는 적폐다.

용진의 밝은 빛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꾀, 노력하는 꾀, 힘차게 뛰는 꾀

좋은 꾀를 위해 찬사와 격려를 보내리라.

## 노년이 아름다운 당신

● ● 김 정 배

깊어서 고요한 것이 있다면 바다만이 아닐 것이며  
 넓어서 편안한 것이 있다면 하늘만이 아닐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운 당신의 눈빛이 그러하고 가슴이 그러하고  
 노년의 온화한 당신의 정이 그러하고 생각이 그러합니다.  
 세월의 오랜 정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한 마음의 참됨을 알기에 문득 그리워지는  
 사랑하나 어둠 속 별이 되어 빛날 때 깊어도 때로는 외롭던가요  
 외롭다가 슬프기도 한 눈빛으로 흘러도 보이지 않는 가슴 속 눈물  
 노년에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입니다. 떠나간 아픔 하나 긴 하루로 남았던 기억  
 어느 날 옅은 꽃잎으로 다시 피어날 때 넓어도 때로 그리웠던가요?  
 타다 남은 불씨에 실바람이 불어오면  
 달래고 재우는 버들 잎 손길 노년의 아름다운 당신 같아라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나니 한줄기 노을빛이 더욱 아름다운 노년의 내 나이를  
 사랑하렵니다  
 우리 핫티하며 웃으면서 즐겁게 보내자고요. 좋은 생각으로 마감



## 연평도 조기

● ● 박 현 조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때 포성이 울리던 날, 우리는 모두 통곡했다.  
 지금도 연평도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연평도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애국자다.  
 군인, 주민, 그 곳에 사는 생명들, 생명을 담보로 연평을 지키고 있다.  
 연평도의 조기처럼 그들도 떠나지 않는다.  
 연평도의 바람은 포성을 품고 하늘을 검게 물들인다.  
 붕어빵처럼 연평도에는 조기가 없다. 덩그러니 조기 박물관만 지키고 있다.  
 연평도에 살려면 평화를 위한 전쟁에 가담해야 한다.  
 북에서 쏘아 올리는 포탄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조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  
 이미 놀라 바다를 떠났다.  
 한줄기 소나기처럼 가슴을 적시는 포격, 전쟁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찾은 비극, 비극은 언제까지 가야 하나 평화는 총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참된 평화는 환한 미소에서 빛처럼 찾아드는 것이다.

## 아들에게 보내는 부탁 편지

● ● 조 순 자

아들아 2009년 마지막 가는 달인데 부탁 편지 몇 자 적는다.

아들아 가족이 좋아하는 일이 얼마나 하였는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였는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았는가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누구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가

일부로라도 웃음 짓는 표정을 지었는가

남이 즐거워하는 사명을 가졌는가

원칙대로 정직하게 살았는가

초심을 잃지 마라

아들아 때로는 남에게 손해 볼 줄도 아는 사람되면서 살아라

12월 마지막달에 한해를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아들아 물과 같은 인생 살아 주기 바란다. 물은 모습도 없고 물은 더러움을 씻어 준다. 아들아 아들아 남에 허물을 덮어주고 남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너도 명심 내 인생도 물이 행복을 준 것 같다.

아들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면 안된다. 산에 오를 때 못 본꼴이 내려올 때 보면 안된다. 너가 잘못 살면 3대가 불행하다. 너뒤로 따라올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이끌어 주는 사람되기 바란다. 아들아 엄마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관찮은 사람되기 바란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일처럼 하여라. 아들아 밤9시에 적어 보았다. 아들 파이팅. 나는 너를 믿는다.

대신 죽어줘도 억울하지 않는 존재가 자식이다.

아들아, 이 어미가 일러준 위와 같은 일들을 잘 해 내려면 알아야 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로우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예로부터 독서는 기가지본(起家之本)이라 하였다. 책 한권 읽으면 1층에서 세상 보는 안목이지만 10권 읽으면 10층에서 세상 보는 눈이 넓고 깊게 보여 지혜가 생기니... 독서로 배우고 배운바 생각 하고, 생각한 바를 실행하고 하는 습관을 몸에 배여 학사습행(學思習行)을 생활화 하면 내 아들은 큰 재목으로 커서 사회에 이바지 하는 동량재가 되리....

## 행복을 가져다준 엄마의 치매

● ● 이 미 경

섬이 너무 아름다워 선녀가 내려와 춤을 추고 놀던 곳이라 선재도라 합니다.

이곳에서 초등시절을 보낸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학교 뒷동산에 올라 도시락도 까먹고 공기놀이 구슬치기 자치기 소꿉놀이하며 산속에서 피리불고 교실에선 풍금 치며 선생님의 흰머리 뽑으며 사랑을 듬뿍 받고 생활했죠. 작은 섬이기에 중학교도 없어서 도시로 나와 유학을 했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멋진 아들도 낳고 정신없이 살다보니 부모님께 죄송하더라구요. 지금부터 8년전 열이 있는 상태에서 신종플루예방접종을 맞고 정신을 잃고 열이 계속 올라 깨어나지 못하고 20일 만에 눈을 뜨셨으나 패혈증과 치매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신 거죠. 엄마가 어린 시절 엄마를 잃고 힘들었다는 것을 치매를 앓고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치매는 방금 전에 일은 기억을 못해도 옛날 어릴 때의 기억은 생생하게 난답니다. 엄마가 안 계신 어린 꼬마였던 엄마의 언니가 엄마의 역할을 했죠.

치매 걸린 엄마는 저를 보고 공희언니~ 공희언니~ 부른답니다. 모든 기억을 잃고 딸에게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제가 고마운가 봅니다. 공희언니처럼...

농사일이 많았던 엄마는 허구한 날 밥을 해서 논으로 밭으로 헤매시며, 등에 어린 나를 업고 머리에 새참을 이고 날랐던 엄마는 지금도 밥해야 한다고 주방으로 가신답니다. 그리곤 밥 짓는 방법을 잃어, 식탁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밥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많이 배고프셨는지 밥이 최고라네요^^ 그래도 잘 드시니깐 건강하십니다.

작년까지 만해도 저는 도시에서 언니들과 번갈아가며 일주일에 1번씩 선재도에 와서 돌봤습니다. 가장 힘드셨던 분은 옆에서 돌보시는 아버지였죠. 서울에서 시집온 엄마는 농부의 아내로 고생이 많았다고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도 못 알아보시지만 따뜻하다는 분이라는 것을 엄마는 알고계십니다. 남편이 당장 시골로 가서 돌봐드리라고 말은 했으나 아들 두 놈이 학생인지라 갈수도 없었죠. 군대를 보내고야 맘이 놓여서 선재도에 오게 됐습니다. 살다보니 자주보지

못했던 식구들과 가족들이 이곳에 다 모이게 되더라구요. 그러면서 가족이 뭉치게 되고 엄마의 재롱이 웃음을 안겨주게 되었답니다. 바쁘게 살던 도시생활을 잊고 다시 자연과 더불어 살다보니 마음이 넓어지더라구요. 도시생활에 익숙해졌던 난 무작정 부모님만 생각하고 고향에 왔는데 부모님이 계심으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주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어르신들은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자식에게 폐가 될까봐 내색도 안하고 그렇게 사십니다.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다 내 부모님이라 생각이 들죠. 그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50년 이상을 이웃삼아 살아주셔서 고맙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시 고향에 찾은 저와 남편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마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일 고마운 건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기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함께 살면서 엄마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은혜 하나 하나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장 버팀목이 되었던 남편님 사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섬기며 바르게 살다보면 자식이 보고 배울 테고 가족이 마을이 섬전체가 아름다운 섬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10살의 기억으로 계신 우리 엄마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만은 늘 따뜻하십니다. 엄마 옆에서 영원히 그 마음 이어받아 베풀며 살겠습니다. 비록 엄마는 치매로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함께 있는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 내가 농사꾼이 되기까지

● ● 이 경 화

어린 시절 아버지와 마주 앉아 고구마 줄기를 까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질문을 던지신다. “너는 고구마가 어떻게 달리는지 아니?” 하며 물으시길래 “예, 알아요.” 하고 자신 있게 과일나무에 열매 달리듯 달린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정말이냐? 니가 직접 봤니?” 라고 되물으신다. 나는 또 자신 있게 “예, 제가 직접 봤어요.”라고 답하니 아버지께서는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냐며 다시 잘 생각 해 보라고 하시고 나는 곳곳이 고구마는 나무에 달린다고 우겼더니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을 안하시더니 화재를 다른 곳으로 돌린 적이 있었다.

나는 부산에서 자라 농사에 농자도 모르고 고구마가 어떻게 크는지도 몰랐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우겨댔는지, 어느 새 내가 결혼을 하고 대청도가 고향인 남편을 만나 이곳 대청도에 정착한지 벌써 20여년이 되었다. 처음 이곳 대청도에 들어올 때는 남편이 농삿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들어왔다.

그러나 농사꾼의 아내로 살면서 농사에 무관심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았다. 어느 가을 남편이 벼를 베고 벼를 털어서 이건 종자니 따로 잘 보관하라고 나에게 벼 종자 2가지를 가져다주었는데 농사에 대해 잘 몰랐던 나는 그냥 벼푸대에다 종자라는 두 글자만 적어 창고에 보관을 해두었다.

다음해 봄 남편이 벼 종자를 찾길래 가져다 주었더니 남편이 기가 막힌 지 헛웃음을 지으며 찰벼와 일반 벼를 구별해서 적어 놓아야지 그냥 종자라고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벼 종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야단을 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남편이 밭고 야속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남편보다 농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남편에게 모종 심는 시기와 관리, 수확시기까지 매년 장부에 기록하고 체크하며 예전의 관행 농법을 벗어나 적게 심고도 많은 수확을 내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법을 남편에게 알려주며 농사를 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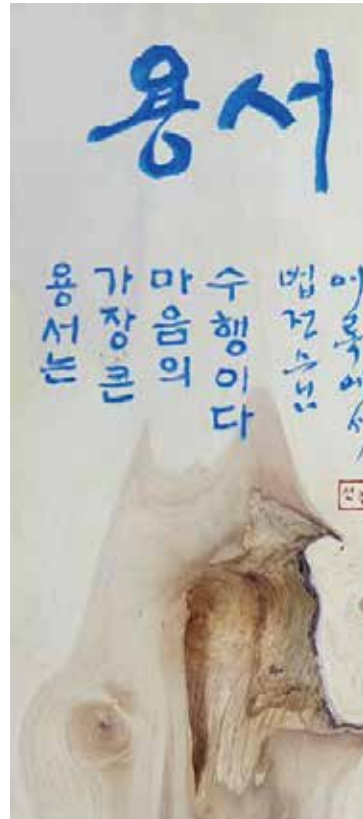
남편에게 벼 종자 보관을 잘못했다고 핀잔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웅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위한 교육이 있다면 열일을 제쳐두고 돌이 갓 지난 쌍둥이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전국 각 지역 선진농가 견학을 하며 농사를 배우기 시작하고 덕분에 웅진군 각 면에 언니, 오라버니는 물론 전국에도 대농을 하는 언니, 형부들이 생겼다.

어린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겨두고 교육을 다닐 때는 동네에서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교육을 다녔기에 많은 인연을 맺었고 또 이 인연이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데 큰 재산이며 적으나마 이곳 대청도에서 농사일이라면 어느 정도 큰소리치며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거 같다.



청산에 살리라

● ● 김두린



용서

● ● 손선주



덕

● ● 박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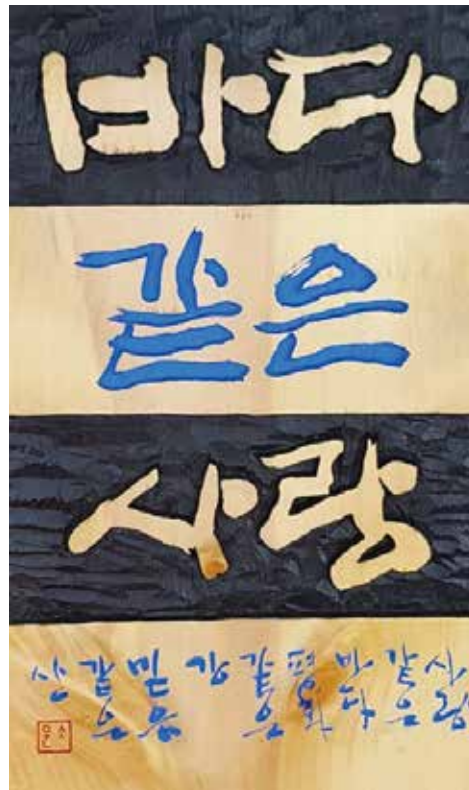
무

박춘수 ●●



오육지족

최인자 ●●



바다같은 사랑

이성범 ●●



## 음식은 “文化”이고 ‘文明’이자 ‘사랑’이다

● ● 정 영 민

영어에 훌륭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가족과 우리 사회의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Family의 원뜻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고 합니다.

LOVE의 “L”은 “LISTEN” 즉 듣는다는 것이다.

“O”는 “OPEN” 즉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을 뜻한다.

내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을 따뜻이 감싸준다는 뜻이다.

아울러 내 약점도 솔직히 열어 보임으로써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V”는 “VALUE” 곧 가치를 뜻한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E”는 “EXPRESS” 곧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은 느낌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말로만 끝나서도 안된다.

行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해야 한다.

“LOVE”의 뜻은 마음을 열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飲(음)食(식)”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세태에 와서 가까운 가족, 친척, 친지들을 만나도 꼭 번듯한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생활화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이 글을 쓰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해주는 음식은 마음과 손에 사랑을 실어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은 양념과 재료들은 위생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값싼 외국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김치에다 맛난 거 한 두 가지로도 오순도순 마주앉아서 얼마든지 맛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모습이 곧 가족이고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가족, 친척, 친지간에 사랑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사회에 기본적으로 생활화 된다면 부드러운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따뜻한 마음이 서로 간에 전달되어 이 사회가 폭력이 없는 사랑이 넘쳐흐르는 사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발전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하고도 생각해 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여자들 고생 시키는데’, ‘마누라 힘들게...’ 이런 말들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된 것 같아 더 더욱 안타깝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그 말들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마다 모임을 하거나, 만나면 “건강”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소찬이나마 사랑으로 만든 飮(음)食(식)을 먹는 것과 사먹는 飮(음)食(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의과대학 교수의 “惱(뇌)혁명”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 저는 사랑으로 만든 음식으로 주로 식사한 사람에게는 굳이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에서 허준 선생께서는 “飮(음)食(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藥(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느 책에서 “藥(약)補(보) 보다는 食(식)補(보)가 우선이다”라는 글도 마음에 닿는 글이었습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는 “신토불이” 재료로 만든 사랑으로 만든 飮(음)食(식)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고, 걷고 좋은 공기 마신다면 “엔돌핀”이 만들어져 건강한 肉(육)體(체)“와 ”惱(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생활 40여년에 찌들어 있던 肉(육)體(체)와 조직생활에 길들여져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처자식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생활환경을 주고자 수십년을 객지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품위유지 하며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 수술도 3번이나 받았습니다. 또한 생활 전선에서 은퇴해야 할 나이가 되어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경기 지방을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어찌 어찌하여 “영흥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흥도”에 오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의 삶과 너무나 다른 생활환경을 갖게 된 것이지요.

자기 집이 직장이요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며 주어진 것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거지요. 봄이면, 오이 모종 갖다 심어라, 가지모종 심어라, 호박 심을 때다, 도마도 심어라, 가지가지 심어라 저저 심어라 ,낙지 잡았다, 광어 잡았다, 빨리 와서 같이 먹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인정과 인심 속에서 이 좋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영흥도”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웅진문화원 회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웅진문화원을 알게 해준 “조세관”兄(형)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태동철원장님!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회원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 독이 되기까지

● ● 인 경 석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고향 덕적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의 아버지(印基善)는 인천에서 다니시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가족들을 인천에 남겨둔 채 혼자서 고향으로 낙향을 하셨다. 고향에 있는 농토, 임야 등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나의 고향마을 ‘벚개’는 말굽쇠처럼 U자 형태로 굽은 큰 포구로 되어 있고 포구 안쪽으로 논, 밭 등 농토가 좀 있는 그리 풍족치 못한 조용한 마을이었다. 작은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집도 몇 집 있었지만 농사가 주가 되어 있었다. 이 농사도 바닷가에 독을 막아 논을 만들어 짓고 있었으므로 사리 때 태풍이라도 불어 닥치면 독이 터져 농사를 망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아버지는 낙향 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곰곰이 궁리를 하시다가, 포구 중간쯤에 큰 독을 막으면 안쪽의 기존 농토도 보호하고 새로운 간척지가 생겨 동네 영세민들에게 살 길도 생길 것에 착안하게 되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군데 수소문 끝에 마침내 가톨릭 구제회의 지원을 받는 길을 뚫으셨다. 그 당시 마을에 약 100호(戶) 정도가 살고 있었으므로 미국 구호양곡(밀가루 또는 옥수수가루)을 매월 100포씩 지원 받게 되었다. 동네 주민들로 매립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에게 매월 1포씩 노임으로 배분기로 하고 주민 노력 동원으로 독 막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1960. 4. 21.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마침 그 해에 일어난 4. 19 학생데모 소식을 들으며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한다. 그러니 그 후에 정부가 새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훨씬 전에 주민 자력으로 스스로 새마을 사업을 시작한 셈이다.

막게 될 독의 길이는 직선으로 약 650미터나 되었으며 만조 시에는 물이 깊어 난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이 자금도 없고 기술도 없어 중장비를 동원할 수 없었으므로 그저 원시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양쪽에 있는 돌산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 나온 돌덩어리들을 리어카에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포구의 양쪽 끝에서부터 독을 막아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정말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가톨릭 구제회의 지원을 받게 되자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자들이 늘게 되어 섬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서포리(西浦里)에 성당이 생기고 미국인 신부가 부임하게 되었다. 뒤이어 가톨릭 대학 부속병원 분원이 들어오고 자가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여 각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고 간이상수도도 설치되게 되었다. 그러니 이득 막는 사업을 시작한 덕으로 1960년대에 이런 벽지 섬마을에 병원, 전기, 수도가 들어오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정말로 꿈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배분된 구호양곡은 가난했던 그 시절 마을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공사의 진도는 매우 느렸다. 애당초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양곡지원은 당초 3년을 약속하였으나 그 후 수차례 연장되어 1972년까지 13년간이나 계속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어 미국의 외원양곡 지원도 점차 줄게 되자 가톨릭 구제회의 양곡지원도 끝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절반 정도밖에 진척되지 못하였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공사를 중단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동안 막은 독은 그저 흉물로 남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또 다시 궁리 끝에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동안의 경위를 소상하게 적고 두툼한 도면을 첨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올린 것이다. 이 편지를 대통령이 직접 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기도에 지시가 되어 1973년부터 정부의 구호양곡이 매월 100포씩 지원되게 되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생면 부지의 촌로(村老)를 돕다니. 아버지는, “밑바닥 서민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이는 진짜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박정희뿐이다.”라고 늘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공사는 계속되었다. 문제는 마지막 약 30미터 남은 물막이 공사였다. 조수(潮水)가 들어오고 나갈 때의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를 틀어막아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사는 3년간이나 방치되고 미완공 사업장으로 남게 되었다. 주민들의 염원이 무산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1980년에 웅진군청에서 예산을 편성, 정부사업으로 책정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물막이 공사를 해 준 것이다.

그러니 공사를 시작한 지 꼭 20년 만에 꿈에 그리던 독막이 사업이 완성된 것이

다. 그러나 매립된 땅의 소유권은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주민 스스로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정부가 막아 주었기 때문이다. 4년간의 소금기(鹽氣)를 빼는 기간이 지난 후 그동안의 주민들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하여 염가로 주민들에게 불하가 이루어 졌다.

매립된 땅은 총 70정보였다. 1정보는 3,000평이니 21만 평의 금싸라기 같은 땅이 조성된 것이다. 평 당 600~700원으로 한 집에 0.5~1정보 씩 배분되었다. 그 당시 마을 주민 총 86세대 중 50세대가 분양에 참여 했으며 많이 산 집은 3정보까지 산 경우도 있으니 동네 사람들은 이제 모두 부자가 된 것이다. 아버지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 1정보를 분양 받으셨다.

원래 간척지 땅은 농사가 잘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매년 풍년이 들어 이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은 마을 주민은 물론 섬 주민 전체가 먹고도 남아 매년 외지로 반출되고 있다. 아버지 뒤편으로 배분된 땅에서 생산된 쌀이 매년 우리 형제들에게 조금씩 이나마 올라올 때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나는 가끔 고향에 갈 때 마다 널따란 간척지 들판을 바라보며 뿌듯한 감회에 젖고는 한다. 이 독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가 되었다. 아버지는 그 공을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돌리고 계셨다.

## 영흥도의 풍광과 그 매력

### ● ● 곽인화

영흥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도서지방으로서 본래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터라 섬마을의 특유한 순진미와 단순미가 어우러진 청정마을이었다. 거기에서 2001년에 이곳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고 영흥대교와 선재대교가 개통되면서 사실상 섬이 아닌 섬으로 탈바꿈되어 개발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주민의 반 정도가 발전소, 펜션, 식당 등 이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 현재 육천 여명이 살고 있는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청에서 1시간 정도면 이곳에 올 수 있고 서울·경기지역에서 영흥도에 오려면 시화방조제를 지나온다. 방조제에 들어서면 바다 오른쪽에 송도신도시와 인천대교가 보이고, 왼쪽에는 시화호의 아름다운 모습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늘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어 착륙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방조제를 지나 20분쯤 달리면 시원하게 뻗은 ‘선재대교’위를 지난다. 왼쪽에 보이는 목섬과 측도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썰물 때에는 섬까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해풍과 함께 걷는 그 낭만은 걸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때를 맞추어 찾아온 관광객들은 부드러운 모랫길을 따라 걷다보면 목섬을 만나는데 그 입구에 ‘어촌체험마을’이 있다. 그곳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갯벌에 들어가 바지락, 칠게 등의 수산물을 잡을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 선재에서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는 어선을 만나 싱싱한 해물을 구입해 요리해 먹을 수 있다. 또한 방금 생산된 바지락을 잔뜩 쌓아놓고 까고 있는 아주머니를 볼 수 있고, 가을이면 직접 잡은 망둥이와 생선을 즐밧취 공중에 매달아 말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다. 시야에 펼쳐진 해변의 풍경, 탁 트인 망망한 바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이제 현대건축술을 자랑하듯 위용을 떨치고 있는 ‘영흥대교’를 건너가 보기로 한다. 영흥도에는 십리포해수욕장, 장경리해수욕장이 가장 큰 해변이다. 두 군데 모두 밀물 때는 해수욕을 즐기고 썰물 때는 갯벌체험을 할 수 있으니 이만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십리포해수욕장은 영흥대교에서 십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옹진군이 사랑하는 9경 중 제3경에 속할 정도로 영흥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이다. 자갈이 섞인 해변, 고운 모래해변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쟁의 상흔도 간직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영흥도는 대몽항쟁을 벌였던 삼별초의 활동 무대였으며, 다른 서해도서와 마찬가지로 고려 귀족과 원 왕족들의 귀양지로 활용되었다. 또 6·25 전쟁 시에는 해군침보부대가 주둔하여 인천상륙작전 전초기지로 사용됐다. 이때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해군영흥도전적비’가 세워져 있기도 하다.

영흥 갯벌에는 바지락, 참굴, 박하지(민꽃게)가 주로 생산된다. 바지락은 산란기인 7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를 제외하고는 어촌계원들이 채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당도가 높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향기가 뛰어나다.

이번에는 마을로 들어가 보자. 내가 살고 있는 내리에는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있다. 나의 남편은 그 집이 영흥에서 가장 부자가 살던 집이라고 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에 끌려 여러 번 그 집에 갔었다.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2012년 5월에 부인과 아들이 내려와 살고 있어 들어가 볼 수 있었다. 말끔히 수리되었고 보존이 잘 된 편이었다. 후에 ‘옹진군지’를 보고 이집이 1930년대에 “영흥도 내동에는 큰 부자이며 일본 동경 와세다대학에 유학한 임원배라는 인물이 내동개와집 주인이었다.”라고 쓰인 바로 그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곳의 오래된 집은 바람이 센 바닷가 지역의 특성상 ‘ㄱ’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100년이 되었다는 집에 가보았다. 지붕은 함석으로 개량을 했지만 내부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다. 승례문복원작업에 참여하여 ‘철물’을 담당하신 분이 대장간을 하신다. 시간이 맞으면 호미나 못 등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영흥도는 평택임씨 집안의 집성촌이다. 내4리의 버드니 마을에는 ‘임세재사당(林世載祠堂)’이 있다. 이곳에는 영흥도 거주 평택임씨(平澤林氏) 일가의 17세기 말~19세기말 200여 년간의 준 호구(准戶口) 50점과 호구단자(戶口單子) 1점 등 총 51점의 호적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끝으로, 1980~1983년 동안 3년간 영흥면장을 지낸 분이 살고 있었다. 그 집 뜰에는 멋있는 돌이 세워져 있는데 인천수산연구소 주변의 바다를 메울 때 수장 될 만한 돌이라고 하였다. 시골답게 염소도 기르고 있었다.

내가 영흥도에 살게 된 계기는 이곳이 고향인 남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이곳에 처음 내려왔을 때는 어릴 적부터 도시생활만 해온 탓인지 처음에는 무척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언제 영흥도와 정이 들었는지 작고 조용하게

만 보이던 이곳이 참으로 포근하게 느껴졌다. 보면 볼수록 섬의 형상과 바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이곳에 정착한지 어언 20여년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고 길이길이 안주하고 싶은 심정이다. 나뿐만 아니다. 영흥도를 자주 찾는 이들도 이곳 자연의 풍광에 흠뻑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 인듯하다. 한 번 찾아 온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것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여겨진다.



## 보고 싶고 그리운 엄마

● ● 서양원

사춘누님을 붙잡고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러나 이 세상에 안계시니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더 슬프고 눈물이 나 한참을 울다 깨어보니 꿈이다.

일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어느새 만 3년 6개월이 되어 가지만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 속에 아직 있는 거 같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잊혀져 가지만 그 당시에는 형제 모두가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였다. 가만히 누워서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삶들을 생각 해 본다.

어머니는 1930년 음력 7월 보름날 덕적면 진리(도우)에서 외할아버지 전주이씨 이재록 할아버님과 안동김씨 김기심에 두 분 사이에서 6남매 중 첫째 큰 딸로 태어나셨다. 외조부께서는 옛날 덕적 면사무소에서 덕적면 전체 호적을 정리하셨다고 들었다. 어머니는 두 분의 사랑 속에서 그 당시 소학교를 졸업하시고 집에 계시던 차 백아도에서 덕적으로 시집을 오신 우리 서씨 집안 할머니들의 중매로 아버지와 혼인하시게 됐다.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사주단자를 받고 보니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시집을 가게 됐다는데 어머니도 아버지가 마음에 드셨으니 결혼을 하셨지 않나 싶다. 어머니가 시집을 오신 곳은 덕적도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백아도라는 곳이다. 서쪽 끝 망망 황해바다와 이어지는 곳 백아도이다.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다음 해에 6.25 전쟁이 났다. 그 때 아버지는 집안의 동력 어선이 있는 바람에 군번 없이 싸우는 분들과 같이 배를 가지고 백령도까지 가셨었다고 어머님께 들었다. 그 후로 제 2국민 병으로 나갔다 오신 후 휴전이 거의 되어 가던 무렵에 정식으로 육군에 징집되어서 나가셨다. 내가 51년생이니 내가 2,3살 무렵에 군에 가셨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휴가 오실 때면 가지고 나오셨던 건빵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군에 계실 때 둘째(진원)가 태어났고 그 동생과 4살 터울인 셋째(억원)가 아버지가 군에서 제대하시던 해에 태어났다.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는 5년 8개월을 군에 계셨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어머니 결혼생활 십수남짓에 아버지가 군에 오래 계셨던게 한이 맺히신 것이다. 그렇게 군에서 제대해 오신 후 딱 3년간이 어머니한테는 신혼과 같은 아버지와 함께 한 좋은 시

절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머님 생에서 아버지와 함께 한!

넷째 막내(용원)가 태어나고 첫돌도 안되어서 아버지가 갑작스런 돌아가심은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에게는 말도 못 할 만큼의 시련과 슬픔을 갖게 했다. 나이 서른 둘에 혼자되신 어머님의 삶. 아들 넷을 입히고 가르쳐야 했던 어머님 험난했던 지난 날의 고생을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이순간도 콧등이 시큰하며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 한 세상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혼자서 사셨을까?

초등학교 5학년 초겨울의 문턱인 11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 아버지가 인천에 가셨단다. 그날의 날씨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희뿌연 구름낀 날에 바람도 불고 을씨년스럽게 춥던 날이었다. 그날 아침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간밤 꿈에 윤수가 보였어” 그분은 아버지와 군대도 가셨고 가까운 친구분이었는데 1년 전 태풍으로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하필이면 그 분 꿈을 꾸시고 그날 바다에서 돌아가시다니 “저 세상의 친구 분이 데려가신 것은 아닌가”라며 말씀하시곤 했다.

그날 점심나절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교대로 집에 오서 아버지에게 인천을 가라 하셨다. 사촌형 중학교 입학원서와 집안의 송사가 있는데 참석도 하라고 인천을 가라고 하신 것이었다. 아버지로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행사지만 형님과 형수의 성화에 가시게 되었다.

그 당시 백아도에서는 정기여객선은 커녕 어찌다 인천에 가는 돛단배라도 있으면 타고 가는 시절이었다. 그 돛단배에는 선주 형제와 휴가 왔다가는 군인이 타고 있었는데 김장철을 맞아 새우젓을 팔러 가는 배였다. 그렇게 아버지는 어선을 타고 가시다 돌아가신 것이다. 철들고 나서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추운 밤바다에서 바닷물에 가라앉는 배를 타고 얼마나 추웠을까? 5분을 견디셨을까? 10분을 견디셨을까? 그 추운 찬 바다에서 돌아가실 때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젊으신 서른 일곱살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푹망푹망한 4형제를 두고서.....

어머니는 얼마나 슬픔이 컸을까? 지금도 어머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찡하다. 어머님은 대청마루에 아버님 영정사진을 모시고 1년 상을 치르셨다. 1년상. 요즈음은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것은 돌아가신 분에게도 살아있을 때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식이라고 밥을 하여서 영정 앞에 가져다 놓고 제를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상망이라고 하여 초하루, 보름 그렇게 한 달에 두 번을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어머니는 상복을 입으시고 난 맞상주로 베옷을 입고 상장막대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곡을 하였다. 곡을 하다보면 어머니도 설움에 우셨고 나 역시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그리워 울었다. 내 나이 11살과 12살 즈음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돌김 장사로, 굴장사로 여러 가지를 장사를 하셨다. 한 번은 굴 팔러 인천에 나가셨다가 도원동 길바닥에 굴통을 얹으셔서 쏟아진 굴을 다시 주워 담아 씻어서 다시 팔았다.

그 후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도움으로 덕적도로 나오셨고 여객선부두 바로 앞에 터를 잡게 된다. 외할아버지 사촌이시며 어머니 5촌 아저씨가 혼자 된 조카딸을 위해서 땅을 거저 주신거다. 나중에 내가 직장을 잡고서 약간의 땅값을 해 드렸지만 그 분에게는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산다. 어머니 5촌 아저씨는 현 고려고속 덕적 매표소 소장님의 부친이시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어렵게 살던 시절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입양 보낼까 생각하셨지만 최종 사인 단계만 남았을 때 도저히 보낼 수 없어 우리와 살게 되었다. 우리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엄마가 결정했다가 안 보내신 선택이 우리 4형제의 끈이 이어진 것이다. 그 때 동생이 외국으로 입양되어 갔다면 또 다른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 후 난 결혼을 했고 바로 밑 동생은 안양고등학교 교사로 있었고 두 동생은 전문대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 무렵 둘째가 갑자기 이민을 간다고 한다. 어머니는 자식이 먼 미국으로 살러 간다니 무척 난감해 하셨지만 동생이 미국으로 간 후 바로 어머니도 미국으로 따라 가셨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셨다.

그 후 두 동생도 어머니 초청으로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영주권으로 계시기에는 미국 생활에 제약이 있으니 늦으신 나이에 미국 시민권을 따야겠다며 영한 사전도 가져가시며 어머니는 시민권 시험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셨다. 그리고 73세 나이에 첫 시민권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 그 후 한국에 오셔서 “애야~내가 시민권을 땀으니 이제 너도 초청하면 3년 안에 와서 살 수 있으니 같이 가서 살자”고 하셨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미국 가서 산다는 게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포기하였다. 지금도 생각나지만 “애야~내가 시민권 시험을 보고 났을 때 이민국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 you are pass!! 그래서 내가 바로 oh~thank you!! 했지” 하시며 첫 시험에 합격 하신 것을 대단히 좋아하셨다. 어머니의 미국생활은 주로 성당에 가시는 일, 목주기도 하는 일, 성경필사 하는 일 그리고 아들셋집에 번갈아 가

시며 지내셨다.

1년에 한번쯤이면 한국에 오셔서 한달 정도씩은 계시다 가셨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 며느리, 손자 다 잘해주니 참으로 행복하다고 좋아하셨다. 미국에서는 가끔 아들들과 미국 내 여행과 캐나다, 멕시코, 알래스카 등으로 여행도 다니셨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오래오래 백세까지 살아계셔야 한다고 했는데 86세 되던 2015년 4월 15일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

전 날까지 수영을 다녀오셨는데 새벽부터 숨이 차기 시작하여 셋째 며느리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입원을 하셨다. 동생들은 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셨지만 괜찮으실 거라고 3~4일 후면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차츰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았다.

셋째 동생이 엄마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연락을 주어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큰 아들이 미국으로 온 걸 무척 좋아하셨다. 그렇게 6일간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바로 혼수상태가 오고 난 후 이틀 후인 4월 30일 세상을 떠난 것이다. 5월 초에 동부 볼티모어에서 손주가 결혼을 한다고 시애틀에 가실 비행기표도 사 놓으셨는데, 5월 중순에는 한국에서 어머니 동생들이 오면 같이 알래스카도 한 번 더 가신다고 비행기표도 사 놓으셨는데 그 비행기표 놓아두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미국병상에서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이야기..... 옛날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잊혀지지 않던 이야기.....

처자식을 두고 군에 가서 훈련도중 폭발물 사고로 아버지와 함께 군에 가신 친구분하고 두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두 분 다 결혼하여 처자식이 있으니 어머니와 친구분 부인이 남편들 면회를 가야할 텐데 이 시어머니 두 분이 “우리가 가마 너희는 집 살림 잘하고 있으라”고 두 분 시어머니께서 가신 것이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것들이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모양이다.

어머니의 담당 주치의는 다행히 한국계 의사였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 오전에 어머니에게 “아주머니 이제는 현대의학으로 아주머니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 말씀을 들으신 어머니를 아무 소리 없이 한 참을 누워계셨다. 병실에는 큰아들, 둘째내외, 셋째내외, 막내, 뉴욕에서 온 손자, 시카고에서 온 손자, LA에서 온 손녀딸 모두가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을 눈을 감고 계시던 어머니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날 마지막으로 신부님을 불러 성사를 보셨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애들아

내가 노래 한번 부를게” 하고 노래를 하셨다. 덕적도에서 어린 시절 어머님께서 부르신 노래다~ 왜 그날 어머님은 그 노래를 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어린 시절부터 지내온 덕적도가 생각나셨을 테고 이 먼 타지 미국땅에서 돌아가신 다는 생각에 그 고향을 그리며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할 뿐이다.

옛날 ‘덕적가’라 한다. 클레메인타인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이다.

덕적이라~ 하늘에는 별도 별도 많건만~

반짝반짝 전깃불은 하나 볼 수 없어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덕적 소녀~

잘 배우고 잘 배워서 우리 섬을 깨우세~

노래를 부르신 후 어머님은 손을 번쩍 드시며 파이팅! 하셨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계셨으며 혼자서 생각을 하시 듯 긴 잠을 청하셨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자식들을 위하여서 파이팅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계십시오.

우리 형제, 며느리, 손자, 손녀들 모두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 영흥 상륙 16주년

● ● 김 현 기

2002년 11월1일 영흥면에 첫 사업자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왔다.

영흥과는 경남 삼천포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남동발전본부와 거래를 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

2002년 7월, 삼천포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던 직원분들께서 영흥발전소로 발령이 났다고 하시면서 ‘김사장님도 같이 갑시다’ 라며 농담을 던지셨다. 지나간 그 말에 관심이 생겼고 영흥도가 어떤 곳인지도 궁금해졌다.

같은 해 9월경, 서울 동서집에 놀러온 김에 영흥도에 처음 와보게 되었다.

서울에서 시화방조제를 건너 영흥도 도착하여 발전소 앞에 오니 굉장하였다.

건설이 한창 피크라 여기저기 공사가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집사람과 나는 뭔가 모를 벅찬 감동을 느꼈다.

발전소 정문에서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흑시나 하고 빈 점포를 알아보았다.

현재 면사무소가 있는 입구에 있는 해피마트 옆 빈 점포를 구경하고 전세금과 월세를 확인하고 삼천포로 내려갔다.

삼천포 도착 후 집사람과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과연 삼천포를 떠나 영흥으로 가야하나.

그 시기 나는 삼천포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시기라 아무 연고도 없는 먼 영흥도로 가야하나 하는 고민에 빠졌다.

한 달 정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먼저 가서 사업의 타당성과 전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1년만 살아보는 것이었다. 그 기간에 경험해보고 결정을 하기로 하고, 먼저 봐두었던 빈 점포 주인과 통화 후 11월1일부로 임대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운영을 준비했다.

이렇게 2002년 11월에 영흥에 정착 하면서 사업도 순조롭고, 생활의 뿌리도 정

착하여 주민들과 잘 어우러지니 영흥 사람으로 살아감이 큰 축복이다.

특히 영흥 산야가 고르게 굴곡져 있어 골골마다 고유 이름으로 -소장골, 강나골, 도장골 등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의 다정한 모습은 이웃 4촌의 한 가족으로 생활한다. 영흥의 산세는 야트막하고 능선이 길어서 등산로 둘레길은 참으로 좋다.

붉은노리에 닿은 망태산 능선을 타고 북쪽으로 이어져 국사봉에 이르는 능선은 사방이 확트인 시야에 인천만, 당진, 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등 아기자기한 꽃섬들의 자태를 관망하며 등산 하는 그 길은 솔향기에 쌓여 힐링 그 자체다. 하여 2010년부터 영흥 국사봉산악회를 조직, 주민들과 등산하며 여가문화를 향유하며 농촌이 도시화 하는 과정의 생활문화의 변화를 여가문화에서 조화롭게 수용하며 발전 해나가는 과정이 참 아름답다. 영흥도가 발전소의 가동으로 농촌에서 경공업의 도시화로 변해 가는 과정에 소상공인들의 수가 늘고 그들의 사업확장과 권익보호, 정보교환, 상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서로의 노력과 힘을 합하기 위하여 영흥소상공인 협회를 결성하여 지역사회에 양질의 경제 활동을 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지역 경제 주체 간 상생의 길을 찾아감은 큰 보람이다.

특히 영흥, 신령이 주재 하는 빛의 주인으로서 우리나라 빛의 생산에 본업이 일부이지만 그 빛 생산에 이바지 하고 있음은 영흥 생활의 큰 행복이다.

사무실에는 전화기와 책상만 비치하고 간판 하나를 걸고 영업을 시작했다.

삼천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터라 영흥에만 있을 수 없어, 매주 화요일 새벽5시 삼천포에서 출발하여 영흥에 낮12시경 도착하면 식사 후 영흥발전소에 방문하여 영업하고 다음날 다시 삼천포로 내려가는 일정을 1년간 해왔다.

1년간의 여정 후, 결정했다. 영흥에서 살자, 영흥의 주민이 되자는 마음으로 주택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고 이사준비를 했다.

2004년 12월 삼천포에 살고 있던 집사람과 아이들을 영흥으로 데리고 와서 본격적인 영흥주민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 11월 1일이 바로 영흥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 안시성

● ● 김 재 흥

추석 명절을 맞아 개봉한 영화 안시성의 반응이 뜨겁다.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흥행위주의 영화이기에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고구려의 기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온 영화이다.

당태종 이세민이 누구인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로 꼽히던 인물이 아니던가. 태종은 정관의 치로 불리는 가장 안정되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라 할 정도로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다. 그러한 그가 막강한 대군을 이끌고 안시성을 공격했지만 안시성 성주인 양만춘장군에게 무참하게 패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 뿐이던가. 양만춘장군이 쏜 화살로 눈에 부상을 입어 세상을 뜨면서 고구려와는 절대로 전쟁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야사도 있다.

태종은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의 대군을 물리친 후 안시성을 공격 했기에 병사들의 사기 또한 충천했다. 그러한 그가 석 달 간에 걸친 공격에도 안시성을 함락 시키지 못하고 퇴각 했던 것은 안시성이 가진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인화의 힘을 아는 지도자가 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좋아하는 점이 같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람들과 미워하는 바가 같으면 한마음으로 따를 것이다’라는 병법서를 잘 이해하면서 동고동락 할 줄 아는 지도자의 능력이 강대국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눅 들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 되어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두 사람이 한마음이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른다’라는 성어가 있듯이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되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수백 수천명이 한마음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돈 놀음과 정치놀음에 만연해 내 배부터 채우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어지럽고 각박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에 어르신은 보이지 않고 노인들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안시성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 종합운동장이 없어지다 (체험수기)

● ● 김 경 협

“아침에 운동장에 나가니 어제 있던 종합운동장이 없어졌다.”

1989년 10월 24~25일 제 16회 웅진군민의 날 종합행사를 여객선(새경기호)으로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백령도에서

- ★ 숙박시설이 없어서 개인주택에서
- ★ 식사는 참가자 전 군민 무료제공
- ★ 운동장이 모자라 초등학교 운동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사용
- ★ 수송수단이 없어서 개인소유 차량을 모두 동원하고도 모자라 군부대 차량을 협조
- ★ 면에서 온 선수단을 위해 리를 묶어서 각 면과 자매 결연을 맺어 돕도록 하고
- ★ 종합 행사를 위하여 11차례의 각종 회의를 개최하면서 면민이 하나 되어 멋지게 1박 2일의 종합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 ★ 종합행사는 해당화아가씨 선발대회, 노래자랑, 체육대회로 이루어졌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체육대회였습니다.”라고 군민의 날 행사 대회장이신 김관수 군수님의 위로 말씀에 백령면 주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었다.

이를 결산하기 위하여 백령면 체육회를 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모두 참여하여 연석회의를 열었다.

당시(고)최필승(면장) 체육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당시 백령면 총무계장으로 체육회 간사였다.

회의는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였다.

마지막 토의시간에 백령면민의 날을 지정하여 자체적인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의가 되었는데 전원이 찬성하여 면민의 날을 지정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에는

- 면민의 날을 지정할 근거를 찾거나, 가장 적당한 날을 지정할 것
- 화합의 장으로 할 것
- 전 면민이 참여할 것
- 하루에 모두 끝낼 것 등의 조건들이 제시되었다

또 면에서 주관하여 내년(1990년)에 개최하도록 하라고 위임을 하였다.

이는 총무계장인 나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이 됐고, 내가 이를 받은 것으로 되고 말았다. 양 어깨가 무거움을 느꼈다.

다음 해인 1990년 5월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도 전 면민대표가 의결한 사항이고, 나 또한 나름 자체적인 행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다음과 같이 추진계획을 세워 일을 시작했다.

### 백령면민의 날을 지정하다.

우선 백령면으로 승격된 분야를 군지나 향리지, 백령지 등을 찾아도 기록된 문헌이 없고 특별한 기념일도 없었다. 그래서 면민의 날이면 면민이 생업에서 가장 한가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시기를 찾기로 하여,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니 9월 상순이 농업인도 한가하고 어업인에게도 어한기에 속하다고 듣고, 상순 중 어느 날을 정할까 고민 끝에 쾌청한 날이 좋겠다 생각하고 당시 산업계 강우량 대장(비오는 날을 기록하는 대장)을 생각해냈다. 대장에는 10년간의 강우 기록이 되어 있었다. 9월 상순을 모두 검색했는데 9월 5일이 비가 한번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면민의 날을 9월 5일로 체육회 연석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얻어 결정했다.

### 불화가 없이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

예전에는 체육대회를 부락대항, 법정리대항으로 몇 번을 전개했는데 마찰이 생겨 원만하게 종료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 혼합팀을 만들자. 지역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큰 마을부터 작은

마을 순서로 3개리씩을 정하여 이장들의 제비뽑기를 했다. 혼합팀이 이루어져 진촌마을과 두무진 마을, 가을리 마을이 한팀이 되는 등 팀조직을 완료하였다.

- 팀명칭은 우리군의 꽃, 새, 나무를 따서 해당화팀, 갈매기팀, 해송팀을 만들었다. 또한 선수시상도 1·2등 참가상 모두에게 시상품을 줌으로써 지나친 승부욕이나 패배에 대한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참여의욕이 없을까 종합우승팀은 선정키로 했다.

### 전 면민이 잔치집 가자.

전 면민이 참여하는 잔치를 벌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중 가장 곤란한 게 초·중·고등학생들의 참여다.

당시 교장선생님들이 체육회 임원이었다. 그래서 임원회의를 통해 학생 참여를 부탁했으나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그 행사에 무엇으로 참여하느냐”라고 되묻는다.

팀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학년별이 아닌 해당팀에 소속되어 참여하고 초·중·고등학생 참여종목도 만들어 참여하도록 한다고 설득, 승낙을 받았다.

당일 잔치집 식사문제는 해당 마을 팀별 부녀회, 이장, 어촌계에서 식사와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작년 군민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한 경험이 있어 잘 할 것이라 생각하고 부녀회에 일임했다.

이렇게 되니 참여자가 1,000여명이 넘게 모이는 대단위 행사가 되었다. 본부석은 비빔밥으로 군부대장병까지 면 부녀회간부, 공무원 부인이 맡았다.

### 모두 참여하는 종합운동장을 만들자.

당시 운동장이라야 중·고등학교 운동장이 있으나 1,000여명이 모여 잔치를 열 수 있는 장소가 못되어 고민 끝에 사곶비치(천연비행장)로 하기로 생각했다. 천연비행장은 길이가 3,000m 넓이가 (500m~100m)였다. 그곳 외에는 장소가 없었다.

-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것은 인원도 많지만 초등학교축구장, 초·중학교:계주(남중3, 여중2, 초여2), 고등학교(남):씨름장, 배구장, 고등학교(여):공물고뛰기, 일반부: 축구, 계주, 씨름(남,여), 부녀경기, 줄다리기(남,여), 노인부:낚시경기(65세이상), 전체: 마라톤, 임원 및 이장등: 발야구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

야하기 때문이다.

사곳천연비행장에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오롯이 면사무소 직원들의 몫이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직원들이 나를 ‘시옴마이’라고 별칭을 부르면서 참여했다고 전했다.)

- 축구장은 성인용, 어린이용 규격이 다르다. 그래서 2개소를 만들고 골문도 4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공업사에 의뢰하여 골문규격대로 조립식으로 요청했다. 매년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공업사 사장은 “별걸 다 만든다”고 웃었다.

- 씨름장은 마대자루를 만들어 성인용과 고등학생용 2개를 만들기로 하였고
- 배구장도 2개소를 조립식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 계주는 원형보다는 팀당 성인6명(남,여), 학생 7명(남,여)으로, 성인은 600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여 본부석 앞에 골인하고 초·중학생은 350m 떨어진 곳에서 一자로 달려와 본부석앞 골인하는 지점을 정하기로 했다.
- 줄다리기는 백령초등학교에서 줄을 빌려오기로 하였다. 간단해 보이나 분쟁이 가장 많은 경기다 그래서 경계 줄을 더 설치했다.
- 마라톤은 행사장에서 마을과 들판길, 산길 등을 통과하는 코스로 앰블란스가 같이 가야 했다.
- 낚시대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상품을 많이 준비하기로 했다.

### 행사 진행은 모든 기관이 협조하다.

한 번에 진행이 어려워 각 기관이 동참토록 협조했다.

물론 기관 직원들과 단기사병, 군무원까지도 각 팀 소속으로 출전했다.

축사-여단장, 급수차량지원-여단장, 단기병·군무원휴무조치-여단장, 구급차-백령적십자병원장, 체중기-진촌3리장, 텐트설치-각리별 팀별, 전화설치-백령전화국장, 전기설치-백령발전소장, 스톱워치·신호총-중종합고등학교장, 밧줄-백령초교장, 행사지휘관-예비군중대장, 심판진-각 학교선생님, 대표선서-연화3리장, 마라톤진행-백령전화국장

그 외에 심판진은 곽현진, 김종택, 박용운, 중·고교 교사들, 김대식, 신창언, 이의명, 사곳·북포·백령초교 교사 등이 참여하였다.



### 종합운동장이 없어졌다.

9월5일이 면민의 날이라 9월 3일까지 운동장을 마무리했다. 오랜 기간 동안 면 직원이 애써 만들어 이제 잘 진행만하면 되겠구나 하고 헤어졌다.

9월 4일 행사 하루 전 천연비행장엘 아침에 갔는데 배구장, 축구장과 씨름장 일부가 없어진 것이다. 황당했다.

축구장, 배구장에 라인을 밧줄로 연결하여 규격대로 설치했는데 지난밤 사리 때여서 밀물이 들어와 모두 없애고 말았다. 씨름장 일부도 없어졌다.

어찌할꼬.....

비상이다. 각 코너마다 밧줄을 다시 설치하는데 말뚝을 1m 20cm되게 만들어 짐차로 가득 싣고 와 다시는 바닷물도 해방 놓치 못하도록 하루종일 작업을 하여 복구하였다.

### 1990년 9월 5일 백령 면민의 날이 탄생되다.

설레는 맘에 밤잠도 못 이루고 새벽에 운동장에 갔다. 종합운동장은 그대로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날씨도 11년째 비가 안 오고 해가 반짝였다.

다행이다.

1,000여명이 모인 천연비행장에서 해당화팀, 해송팀, 갈매기팀 입장에 이어 09:00에 개회, 국민의례, 기념사, 여단장축사, 선수선서 후 운동경기가 시작되었다.

당일 행사진행 중 축구경기인데 물이 밀기 시작하여 바닷가쪽 라인이 없어진다. 심판(박용운)이 기지를 발휘하여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선을 라인으로 선언하고 진행,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종합운동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도 했다.

시상식은 밤늦게까지 이루어졌다. 13개 종목에 시상품만 350여명에게 전달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상진행에 목이 아팠다. 보람되고 잊지 못할 즐거운 하루였다.

공직생활 중 힘든 일 중 하나였으나 제 1회 백령면민의 날을 9월5일로 지정하고 화합의 대잔치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에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 행사는 4회까지 본인이 담당총무계장으로 진행하고 명예 의하여 군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추후에도 행사는 계속되었다.)

감사합니다.

## 웅진문화지 발간에 즈음하여

● ● 강도영

처음 태동철원장님으로부터 문화원의 창립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 의미에 반가운 마음이 가득 하였다.

더불어 과분한 이사직을 권유받고 보니 감사한 마음과 함께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문화”를 탐구하거나 깊이 공부한 경험이 없었기에 내 평생의 터전인 웅진군의 문화발전을 위한 단체창립에 있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혹 회의나 모임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무의미한 구성원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염려가 점점 커진 탓이다.

그렇게 한 달여를 마음에 담아 두고 보니, 문화란 우리 삶의 자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즐겁고 보람되도록, 행복한 삶으로 채워가려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전부 아닐까?’ 하는 상식적인 해답을 가지게 되었고, 이 뜻 깊은 활동에 참여하고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자월도에서 태어난 내게 웅진군은 내 인생의 첫 무대이다.

어린 날의 그 시절과 같이 지금도 웅진의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다.

이 안에서 함께 어루러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네 하나하나의 삶이 황해의 복판에 펼쳐진 바다의 물줄기,

섬들의 산자락마다 깊이 스며있는 것이다.

이 터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온과 추억들로 만들어진 흔적들이야말로, ‘웅진군의 문화’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지난 반세기 동안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해왔다. 온 세상 뽀족한 ‘첨단’을 쫓아 갈 때마다 그 변두리에 있던 웅진에서의 ‘삶’과 웅진의 고유한 ‘말’은 흩어지고 떨어져 영영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 부지불식간에 사라진 웅진의 ‘문화’는 얼마나 크고 가까운 것들인가?

이제 ‘웅진문화원’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우리 웅진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후대에 계승 발전을 꾀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으니 정말 뜻 깊고도 기쁜 일이다.

또한, 나 개인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며 견문과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니 깊이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 될 것이다.

지난 문화원에서 기획한 ‘백령도 문화유적탐방’을 통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여러 회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 속에 절제를 유지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또, 좋은 삶의 흔적을 나의 삶의 터전에 남길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 하였다.

‘웅진문화지’의 창간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나를 찾아 귀한 자리를 제안해주신 태동철원장님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의미 있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웅진의 문화 발전에 작더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다짐하며, 우리 ‘웅진문화원’이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의 지킴이로서 웅진문화개발의 큰 축이 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 북도면의 문화 예술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들

● ● 차 광 윤

북도면은 수도권 2,500만명과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 6,000만명이 불과 1시간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또한 그 역사도 깊어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영종도와 10년 이내에 다리가 놓여지게 되어 편리해지는 교통으로 인한 수도권 최상의 종합 관광 휴양지로서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의 역사 문화와 전통을 잘 보존하는 것이 지역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도면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소개는 선행 연구 자료들을 대부분 참고한 것임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이다. 이 글을 통해 북도면에 대한 역사 문화적인 소개와 함께 그러한 전통 위에서 앞으로 문화 예술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지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

### 1. 북도면 현황과 대략적인 소개

북도면은 2,261명 (2017.12.31.)명의 사람들이 신도, 시도, 모도 그리고 장봉도에 살고 있는 섬 마을이다. 무인도는 10개가 있다.

면사무소는 시도리에 있다. 동쪽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와 마주 보며 북쪽으로 강화군과 경계하고 있다. 신도·시도·모도 세 개의 섬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인천항에서 북서 방향으로 18km, 강화도 남쪽 5km 해상에 위치한 이곳은 패총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다수 출토된 것과 적석총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강화도호부에 소속되기도 했다. 기독교 초기의 선교지이기도 하다.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화군에서 부천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68년 장봉도에 장봉출장소가 설치되었

다. 1973년에 웅진군에 편입되었다. 1995년 3월 1일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종도 삼목 선착장에서 신도항까지는 약 2km 떨어져 있다. 북도면 주민들은 영종도를 통해 다른 지역과 교통하며, 생활권과 학군도 영종도와 하나의 권역으로 묶인다. 모도, 시도, 신도는 연도교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형은 대체로 해발 200m 이하의 낮은 산지를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에는 간석지가 넓게 발달했다. 쌀과 포도, 단호박 등의 채소 농사 및 김 양식이 활발하다.

## 2. 역사 속의 북도면

웅진군 지역에서 인간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며, 16섬 80여 개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유적의 대부분은 조개무지이며, 이밖에 무덤과 주거지도 있다.

무덤은 시도 수기산 북쪽 구릉 위에서 발굴되었는데, 돌로 봉분을 한 적석총이다. 이것은 신석기시대 무덤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예라고 한다.『시도패총』(국립중앙박물관, 1970))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신도에 고인돌과 반월형석도가 있다.

장봉도를 비롯한 북도면 지역은 고려시대에는 강화도 진강현(鎭江縣) 소속이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강화도와 가까운 웅진군 지역은 3세기 이전에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대몽항쟁 시기에는 장봉궁(長峯宮)에 대한 기록이 있다. 장봉궁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두 차례 언급이 있는데, 하나는 1264년(원종 5) 5월 임인(29일)에 왕이 장봉궁으로 이어(移御)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해 6월 병진(13일)에 장봉궁으로 환어(還御)하고 경내 죄수들을 사면했다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세종실록『지리지』에의하면 강화도호부에는 장봉도와 신도가 소속되었다. 조선시대에의 기록은 『장봉진지(長峯鎭誌)』에 나와 있다.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경기읍지』의 한 부분으로, 1717년(숙종 43) 장봉도에 설치된 장봉진의 인구·군인 수·무기 등을 기록한 것이다.

조선 초기에 장봉도, 시도, 신도에 목장이 있었다. 목장은 이미 사라졌지만, 목장터에는 아직도 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쌓은 마성이 남아있어 옛날 이곳이 목장이었음을 증언해주고 있다.

일제가 1910년 한국을 강점하고 1914년에는 식민지 지배 강화를 목적으로 대대적인 지방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다. 이때 군·면을 통폐합하여 강화부 소속의 제도면(諸島面)을 북도면으로 이름을 바꾸고 역시 부천군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했다.

1973년에 부천군의 북도면과 장봉 출장소가 옹진군에 편입되었다.

그후 2002년 7월 19일 시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가 준공되었으며, 2002년 12월 21일에는 신도와 시도를 잇는 연도교가 준공되었다. 이 중 신도와 시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는 해양 생태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해수 소통로를 겸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3. 북도면의 특이 자연 환경 및 경관

#### (1) 신도 노랑부리백로 및 팽이갈매기서식지

신도는 세계적으로 희귀조인 노랑부리백로(천연기념물 361호)와 국내 최대의 팽이갈매기의 대집단이 공동 번식하는 곳이다. 노랑부리백로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적색자료목록의 22호로 등록된 멸종위기

조류로 국제적 보호가 요청되는 희귀조로써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상 생존집단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되는 400여 쌍이 현재 이곳에서 번식한다.

신도의 섬 전역은 1988년 8월 23일 노랑부리백로 및 꿩이갈매기 번식지로 지정되었다. 노랑부리백로는 만주, 중국 동부, 한국 등지에서 주로 번식하는 희귀한 여름철새로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며 살고 있다. 암수 모두 몸전체가 흰색이고 눈 앞의 튀어나온 피부는 녹색이며 부리와 발가락은 노란색이다. 주로 어류, 갑각류 등을 잡아먹는다.

## (2) 특수마를 방목했던 신도 목장

신도 목장에 대한 기록은 세종 16년(1434년) 사복시에서 흑오명(黑五明)이라 불리는 암수 흑마와 주둥이, 눈, 어깨, 말굽 등 네 곳은 새까맣고 나머지 부위는 순백색인 암수 색마를 신도에 방목하였는데, 그수가 적어 번식률이 낮기 때문에 전국 각도 목장에서 위 두 가지 색마를 뽑아 신도로 보낼 것을 청하자 국왕이 허락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1434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은 1400년대부터 신도라는 지명이 기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서해의 다른 섬들과는 다르게 국영 목장이면서도 이색적인 특수마를 방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신도목장에는 국마 36필이 방목되고 있었고, 다시 그 후에 작성된 목장도에 의하면 90필이 방목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때에도 조선 전기인 목장 때와 같이 흑백색 등의 특수마를 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신도목장은 조선 후기에도 계속 운영되었으며 18세기 후반인 1785년(정조 9년)에는 강화도 길상 목장을 폐장하면서, 그곳 목마를 신도목장으로 옮기는 등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목마장 구역은 구봉산줄기 중턱부터 경사가 대체로 완만하고 밑으로는 넓은 평지 습지대가 있어 수량이 풍부하고 초지가 무성하여 목장으로서는 적지였던 것이다. 이 같은 목장은 구봉산 남쪽으로 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쌓았던 마성(석성)이 현재도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신도 목장은 조선조 전기부터 1896년 경까지 존속되다가 폐장되었다.

## (3) 생태계의 정수시설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구역

갯벌은 생태계의 정수시설 같은 존재이다. 공기가 숲에서 정화된다면 물은 갯벌에서 정화된다.

장봉도는 대부분의 해안에 모래갯벌이 넓게 펼쳐져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장봉도 주변의 모래갯벌은 모래 90%이상이 함유된 사질성 모래갯벌로 지질적, 지형적 가치가 뛰어나 68.4km<sup>2</sup>에 달하는 면적의 습지가 2003년 12월 31일 습지보호지역 제5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4) 장봉도에 숨 쉬는 역사의 흔적 말문

장봉1리 주변은 1265년 원종 5년 삼별초의 난으로 장봉도에 신궁을 건립한 뒤 왕이 신궁에 환어하여 현재 절골터로 불리는 지명과 함께 고려조와 조선시대에 걸쳐 강화도와 서울을 방어하는 전방기지로 군사시설의 용도로서의 역할과 군마 양성의 적지로 말을 사육하여 육지의 군영에 군마로 제공하였다. 장봉도 독바위 일대가 말을 키우던 말목장이었다. 이때에 목장 안에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말들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선 숙종 때에 현 말문고개에서 남북 해변까지 돌로 성을 쌓았다. 그리고 문을 만들어 관리하는 사람들만 드나들게 하였다. 그 말문이 지금 말문고개이다. 석축들은 도로 확장 때 석재로 사용되거나 산을 깎아 내리면서 남쪽이 흩터미에 묻히고 말았다. 북쪽에 일부가 남아 있으나 경사가 급하고 나무들이 우거져 접근이 어렵다.

## 4. 북도면의 전통 문화들

### (1) 민간 신앙

장봉 1리와 장봉 3리에서 당제를 지냈으나, 1970년대 초 새마을 운동과 함께 사라졌다. 장봉 1리에서는 당산나무 앞에서 당제를 드렸다. 당산나무는 소나무였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당산 3리에는 당집이 있어 이곳에서 당제를 지냈다. 당집의 크기는 2칸 정도였는데, 지금은 소실되어 사라졌다.

### (2) 설화

#### ① 강도민(江都民)과 장봉도(長峯島)

서기 1230년대에 이르러 수차에 걸쳐 몽고군이 고려에 침입하니 고려는 그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항거하며 1232년(고종 19년) 6월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하고 그들과 30여 년을 싸웠다. 그래서 좁은 섬 강화도는 정부 중심지가 되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강도에는 벼슬아치인 고관대작들이 살며 토지를 차지하니 본토인들은 살 수가 없어 차차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육지에는 몽고족이 들끓고 노략을 일삼으니 불안해서 육지를 기피하고 인근 섬으로 밀려나 살게 되었다. 장봉도는 강화와 연결하고 토지가 넓고 비옥하며 또한 어업의 적지라서 이 섬으로 강화도 주민들은 이주하게 되었다. 이주한 지 수 년 만에 장봉도에는 1,600호에 인구가 일만 명에 달하였다. 그래서 이 장봉도에 원주민 들은 그들의 세력에 눌러 꼼짝도 못하고 살았다. 강화에는 60년간이나 고려의 중심지인 수도가 있었으니 장봉도에는 50여 년 동안 좁은 섬에 일만의 주민이 비좁게 살았던 것이다. 1292년에야 고려는 몽고와 국교가 이루어져 수도를 개경으로 옮겨가니 장봉도의 인구는 이때부터 점차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불과 20여 호만이 남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임진왜란 중에도 일어났다고 한다. 임진란 때 조선의 육지는 대개 침략을 당하였는데 천연의 요새지인 강화도만이 적 수중에 들지 않아 육지 주민들은 서해연도로 난을 피해 몰리게 되니 일반적이긴 하나 장봉도에는 수백 호의 난민이 들어와 살다가 난 후에 돌아갔다고 한다. 지금도 장봉도 땅 처처에는 따비한 농경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는 임진난 때 난민들이 농사짓던 곳이라 전한다.

## ② 평촌(坪村)의 소문내던 비석

평촌에는 예부터 비문 미확인의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비석은 한때는 세워졌다가 한때는 없어졌다가 하였다고 한다. 이 비석 때문에 평촌마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나돌았다. 이 비석이 세워져 있을 때는 평촌 부녀자들이 바람난다고 하였고 이 비석을 뽑아 버리면 부녀자에 대한 말이 일체 없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마을 사람 중에 짓궂은 사람들이 있어 때로는 이 비석을 모르는 사이에 세워놓고 또 이웃마을 사람들도 이와 같은 소문을 듣던 사람들 중 짓궂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을에 비석을 세워 놓는 수가 있었다고 한다. 비석만 세워놓았다 하면 부녀자들의 정조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비석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제도 그 비석이 있으면 세워보고 싶다는 우스개 얘기들을 하고 있다.

## (3) 어로 생활

### ① 어선 목수 이야기

신도에서 배를 만든 장소의 지명은 '계꼬지'로 현재 칼국수식당이 위치해 있다. 예

전에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나 간척사업으로 현재는 논으로 변화였다. 장봉도 이봉현씨가 배를 만들던 곳은 집앞 장술말이라는 곳이다. 장술말은 배를 정박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으며, 주로 새우를 잡는 ‘젓배’들이 머물러 있었다.

#### - 신도의 김만조씨

김만조 씨는 아버지 고 김연근(101세) 씨로부터 배를 만드는 목수일을 배웠다. 그의 부친은 20살 때부터 배목수를 하였으며, 해방 전에는 신도의 유명한 대목수로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 목수를 고용해 신도·장봉도·용유도·영종도 예단포 일대에서 주문한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인 고용인을 11명이나 둘 정도로 많은 배를 만들었으며, 조선인이 일본인을 고용해 배를 만든 것은 당시에는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고용 인부의 임금은 월급으로 주었다고 한다. 김만조 씨는 아버지 밑에서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다가 29살에 인천의 조선소에서 배를 수선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37세에 인천 조선소에서의 일거리가 줄자 신도에서 농사를 하면서 배를 짓는 일을 하였다. 김씨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배를 짓는 일이 많지 않아, 집을 짓는 목수일도 하였다. 섬 지역의 목수들은 한결같이 “집 목수는 배를 못 만들어도 배 목수는 집을 만들 줄 안다.”고 한다. 그 만큼 배를 만드는 일이 집을 만드는 일보다 정교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만조씨는 30년 전에 사흘만 일해도 쌀1가마를 임금으로 받을 정도로 수익이 괜찮았고, 4남매를 인천에서 모두 교육을 시켰다.

#### - 장봉도의 이봉현 씨

이봉현 씨는 해방 후 22살 때 목선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다. 당시 장봉도에는 대목으로 강산식씨와 김홍식씨가 있었는데, 이들로부터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배 제작기술을 배운 지 4년이 되어 대목이 되었고, 25년 전까지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

#### ② 어로

##### - 돌살

장봉도 돌살은 바닷가에 ‘연정(燕井)’이라는 지름 1미터 정도의 작은 못을 끼고 돌을 쌓아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는 송어, 농어 등을 잡았다. 연정은 ‘제비가 목욕하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물맛이 좋으며, 가뭄 때는 빨래터로도 이용되었다. 돌살은 활모양으로 쌓고 가운데는 물이 빨리 빠지도록 발을 설치하였는데, 썰물 때 고기들이

그쪽으로 모여든다. 그곳을 장봉도에서는‘불장’이라고도 부른다.

물고기는 ‘테’라고 부르는 도구로 건져 올린다. 테는 예전에는 통 대나, 구부리기 쉽고 질긴 박달나무 뿌리를 그늘에 말려서 지름이 50cm 정도로 고리를 짓고 남은 뿌리 부분은 칠팀쿨로 엮어서 손잡이로 삼고, 그물은 칠팀질로 엮어서 만들었다. 그 뒤 소나무를 불에 구워 구부린 후 Y자형 나무에 연결하여 철사로 묶었다.

돌살에서 건진 고기를 담은 광주리를‘부게’라고 한다. 장봉도에서 쓰는 부게는 대 나무로 만든 광주리를 지게에 고정시킨 것이다. 장봉도 지게의 크기는 길이 67cm, 가지 10cm로서 단지 광주리를 받쳐 주는

기능만을 할 뿐 이다. 광주리 밑에는 오동나무 또는 소나무에 흠을 판 것( 물 받침대’또는‘웃게 흠’)을 부착시켜 광주리에 고기를 담았을 때 좌우로 물이 빠져 나가도록 만들었다. 부게를 사용 하지 않을 때는 물받침대를 분리시켜 그늘진 곳에 말려 습기를 제거한 후 보관한다. 장봉도에서는 나무받침 이외에 양철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기를 거두러 갈 때‘물번 보러 간다’고 한다.

#### - 토살[土箭]

장봉도에는 돌살 외에 토살[土箭]을 설치하여 1930년까지 고기를 거두었다. 토살은 반달형으로 바닷가의 갯벌을 높이 40cm, 너비는 밑부분 100cm, 윗부분 70cm되게 굽어모은 뒤 그 위에 높이 1m 정도 되는 싸리나무발을 설치한다. 싸리나무발은 1m 간격으로 박혀있는 그물장대에 연결하여 묶는다. 갯벌은 너비는 넓게, 높이는 낮게 쌓음으로써 바닷물에 견딜 수 있고, 갯벌 자체가 응집력이 있어 튼튼하다. 흠살의 수리는 고기를 잡은 후 무너진 갯벌을 다시 모아 두면 된다.

## 5. 북도면 각 섬의 문화 자원들

북도면의 대표적인 문화 자원들로는 완만한 경사를 지닌 4Km의 임도에 700여 그루의 뽕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구봉정과 성지약수터가 있는 신도의 구봉산, 신-시-모도 삼형제 섬을 연결하는 야경이 아름다운 연도교, 대한민국 해안 누리길 53 번째로 지정된 삼형제섬 길, 모도의 배미꾸미 해변 조각공원과 해송 치유 숲길 그리고 장봉도 북서쪽과 강화도 서쪽 사이로 낙조가 은빛 물결을 이루는 가막머리낙조



와 옛날 장봉도 날가지 어장에서 어느 어부가 그물을 걷으니 인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나왔다는 인어 설화가 깃든 청동 인어상 등이 있다.

그밖에 모도에는 소라, 박죽이 해변, 배미꾸미 해변 및 조각공원, 패총, 암행어사 시찰 기념비 등이 있다. 시도에는 화살탑, 염전, 적석총, 봉화대, 중국인 우물, 숙이 이씨 선산, 당산 봉화대, 양조장, 단호박 농장, 한반도 지도, 폐교(구 시도초등학교) 등이 있다. 신도에는 구봉산 약수터 및 봉화대, 광산동굴, 박쥐동굴, 양어장, 마장, 수변공원, 팽이부리 갈매기, 벚마을 (자염 생산지) 등이 있다. 그리고 장봉도에는 국사봉, 웅암선착장, 야달선착장, 웅암 구름다리, 웅암해변, 한들해변, 진촌해변, 다락구지 전망대, 제비우물, 건어장, 대빈창, 윤옥골 등이 있다.

## 6. 북도면의 역사 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보존, 계승하고 발전시킬까?

(1) 북도면의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민속 (세시풍속, 관혼상제 등의 의례, 민간 신앙), 전통연희 (민속놀이), 구비 문학과 방언 (설화, 민요), 전통 경제 활동 (어로 생활과 어로 관습, 농경 생활과 농경 관습)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북도면의 역사와 전통 문화 자원들을 특화시켜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ONLY1 여행 명소로 발전시켜나갔으면 한다.

신도는 말 섬, 시도는 화살 섬, 모도는 소라 섬 그리고 장봉도는 인어섬으로 별칭을 지어보았으면 한다. 이를 통해 각 섬의 특화된 관광 자원화를 통해 신도에는 말목장 복원, 시도는 화살 나무 집단 군락지, 모도는 소라 특산물 개발, 장봉도는 인어 설화 관련 공연 등을 통해 각 섬이 특색있게 개발되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으면 한다.

(3) 시도초등학교 폐교를 지역 문화 예술의 센터로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지역의 문화 유산 보존 및 전시, 주민들의 생활 문화 공연장,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으로 조성하여 지역 문화 발전의 샘터가 되었으면 한다.

(4) 신-시-모도 삼형제 섬의 이야기와 함께 하는 뮤직&트래킹 걷기 축제를 시행해 봤으면 한다.

3개 섬의 볼거리를 길로 연결해서 여행객들에게 소개 해주면 좋을 듯 하다. 이를 위해 여행 안내소를 신설하여, 지역의 문화 예술 기관의 센터 역할을 하도록 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관광끼리 정비, 개발, 홍보, 인재 육성 및 교육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활동을 했으면 한다.

여행 지도 수건 제작, 기존 해설사 활용 및 신규 해설사 양성을 위해 주민 여행 협동 조합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 장소에서 주민 소득사업 진행, 지역 특산물 판매, 1박 2일 정주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했으면 한다.

아울러 이와 함께 지역의 특산물인 “소라”를 테마로 한 축제를 개최해 봤으면 한다.

소라잡기 대회, 소라 음악회, 해송 숲길 걷기 대회와 함께 부대 행사로 체험과 놀이를 위해 소라 목걸이 만들기, 소라 껍데기 이용 식물 화분 만들기, 소라 팩, 낚시(선상, 갯바위, 연도교 주변), 소라 캐릭터 포토존, 소라 즉석 노래방, 소라 기네스 대회, 소라 탐 썩기 등과 함께 먹거리로는 소라 덮밥, 소라 무침, 소라 모양 아이스크림, 소라구이, 소라죽, 소라 국수, 소라 짜장면 등을 제공했으면 한다.

(5) 장봉도의 인어를 테마로한 축제를 진행하면 좋을 듯 한다. 이는 특히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소재가 될 듯 하다. 인천의 전통 연희 연희단 “잔치마당”이라는 극단에서 장봉도의 인어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공연을 한 적도 있다.

(6) 외국의 섬 여행지를 가보면 여행객을 환영하는 버스킹 공연들을 하는 곳들이 있다. 지역의 생활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예술 관련 동아리, 음악 애호가, 미술가와 애호가 등과 협력하면 좋을 듯 하다.

참고  
자료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12.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웅진군청 홈페이지  
襄津軍誌 (상권 역사와 민속), 2012. 3. 웅진군 편찬위원회  
남도영, 『한국마정사』(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230쪽

# 국가지질공원을 넘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 되어야 할 지질유산의 보고 백령권 섬

(백령, 대청, 소청도)

● ● 김기룡

## 1. 들어가기

백령권 섬은 우리나라의 최북서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섬으로 인천에서는 직선거리 약 190여km 떨어져 있으나 북한의 장산곶에서는 불과 20여km 떨어져 있다.

백령권 섬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전에 얇은 바다환경에서 퇴적되어 형성된 퇴적암이 오랜 지질시대 동안 지각변동을 받아 형성된 퇴적기원의 변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0억여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퇴적당시에 형성된 퇴적구조(층리, 연흔, 사층리 등)를 간직하고 있다.

백령권 섬은 우리나라(남한)에서 10억 년 전의 퇴적암(상원누층군)이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며, 특히 소청도 동남쪽 해안가 분바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으로 알려진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산출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이다.

백령권 섬은 섬이 되기 전에는 옹진반도와 붙여 있었던 산이었는데 약 18,000년 전 빙하가 녹아 서해안이 생기면서 옹진반도와 이어진 낮은 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옹진반도와 분리되어 섬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뿌리를 같이한 동일한 암석으로 구성되었음을 북한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백령권 섬은 인천의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도 4시간여 걸리며 북방한계선(NLL)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천역시와 옹진군에서 백령권 섬이 간직한 지질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유산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광에 이용하여 섬 주민들의 경제적 시너지효과

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2018년 하반기에 환경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양구·철원, 광주·화순 무등산, 청송, 연천·포천, 영월·태백·정선, 고창·변산, 영덕·울진 등 10곳 있으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 권, 청송 주왕산 권, 광주·화순 무등산 권 3곳이 있다.

그러면 백령권 섬이 간직한 소중한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순으로 살펴보자.

## 2. 가장 많은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는 섬 - 백령도

백령도는 우리나라의 최북서단에 위치한 섬으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고 약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백령도(白翎島)의 원래 이름은 곡도(鵠島)라고 하였는데 섬의 전체모양이 고니가 흰 날개를 펼치고 나는 모양을 닮아서 붙어졌다고 한다. 백령도는 북방한계선(NNL)에 인접하고 북한의 웅진반도와 가까워 흔히 38선 이북에 있는 섬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38선 이남인 37° 52' N에 위치하고 있다. 백령도의 면적은 50.98km<sup>2</sup>로 2006년 사곶과 화동 사이에 방조제가 준공됨에 따라 백령호와 간척지가 생겨서 우리나라의 8번째 큰 섬이 되었다.

백령도는 국가지정 명승 제8호인 두무진을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제391호 사곶 천연비행장, 제392호 콩돌 해안, 제393호 감람암 포획현무암, 제507호 남포리 습곡, 제 331호 잔점박이 물범, 제521호 연화리 무궁화나무 등 천연기념물을 6개나 보유하고 있는 보물섬이다. ‘국가지정 명승’이란 문화재청이 경치가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유명한 건물, 꽃, 나무, 새, 짐승, 물고기, 벌레 등의 서식지, 유명한 경승지, 산악, 협곡, 해협, 심연, 폭포, 호수, 급류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이란 학술 및 관상적으로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 지정한 동물, 식물, 지질, 광물을 말한다.

백령도에는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유산도 많다. 백령도 진

촌 초입에는 동키부대 주둔지와 동백정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청년들을 모아 조직한 비밀결사 첩보부대원인 동키 부대원이 주둔하던 곳이다.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훈련 받고 나서 북한의 정세를 첩보하고 북한의 요인을 암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동키 부대란 명칭은 미군이 첩보부대원에게 지급한 무전기의 모양이 당나귀(동키)와 닮아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용기포 신항에서 용기원산으로 가는 길가의 작은 언덕 위에는 백령도에서 산출되지 않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약 1.5m 크기의 장군석(선돌)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진촌 마을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으로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령도에는 심청전의 배경이 되는 섬으로 심청전에 나온 지명이 많은데 두무진과 장산곶 사이의 인당수, 심청이 환생했다는 연봉바위, 연꽃마을이라는 연화리, 뽕덕 어미가 살았던 장촌 등이 있고 인당수가 보이는 진촌 북서쪽 구릉에는 심청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심청각과 인당수와 북한의 옹진반도를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조성해 놓았다. 백령도 중화동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중화동 교회와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파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기독교 역사관이 설치되어 있어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방문하기도 한다.

백령도는 육지에서 오가는 뱃길이 멀고 기상현상에 따라 선박 출항이 금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백령도에 방문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비경과 자연, 역사, 문화유산이 있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랄 것이다.

백령도를 이루고 있는 암석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전에 바다에서 퇴적된 이암, 사암 등으로 구성된 상원누층군과 마그마 분출로 형성된 신생대 현무암 등이다. 상원누층군은 기나긴 세월동안 지각변동을 받아 규암과 점판암으로 변성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퇴적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물결무늬자국(연흔), 사층리, 건열 등의 퇴적구조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퇴적구조와 구성 암석 등으로 보아 대륙붕 환경에서 서서히 낮아진 조간대 환경으로 변하면서 백령도의 암석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령도 해안가 전체를 산책할 수 있는 ‘백령 둘레길’을 조성하여 백령도의 비경과 역사,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령도의 진가를 맛보려면 최소한 2박 3일의 여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칭송받고 있는 백령도 두무진

### 3. 지질시대부터 모래가 많은 섬 - 대청도

대청도는 인천에서 북북서쪽으로 직선거리 약190km 떨어진 섬으로 인천 연안 부두에서 쾌속선을 타고 약 3시간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대청이란 명칭은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검 푸른색을 띤 큰 섬이라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대청도에서 100여년 이상 된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옥죽 포구로 가는 길가와 모래울 사구로 이곳의 소나무는 유전자보호수종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대청도에는 우리나라 섬에 있는 사구 중에서 가장 큰 옥죽동 사구, 100년 이상 된 푸른 솔이 아름다운 모래울 사구 등 크고 작은 사구들이 대청도의 북쪽과 서쪽 해안가에 발달되어 있다. 사구에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식생하고 있는 순비기나무, 통보리사초, 갯매, 해당화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구식물을 손쉽게 관찰할 수 있다. 검은랑산 7부 능선까지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옥죽동 사구는 20여 년 전

에 심은 소나무 방풍림에 자라면서 해안으로부터 모래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옥죽동 사구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구내 모래의 이동이 약해져서(비활성 사구화) 사구식물들의 식생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대청도는 약10억 년 전에 모래가 쌓여서 생긴 사암이 지각변동을 받아 만들어진 규암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대청도 이루고 있는 규암을 자세히 살펴보면 퇴적 당시 형성된 물결무늬 자국(연흔), 사층리 등의 퇴적구조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대청도 미아동 해안에 노출된 암석의 층리면에는 빨래판과 흡사한 모양의 물결무늬자국이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아래쪽 조간대 모래갯벌 표면에도는 현생 물결무늬자국이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10억년의 화석화된 물결무늬자국과 현생 물결무늬자국을 한 장소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은 대청도 미아동 해안가 밖에 없을 것이다.

대청도 농여해안에는 아름다운 시스틱 고목(나이테)바위가 있다. 고목바위는 원래 수평방향으로 퇴적되어 형성된 사암과 셰일이 커다란 지각변동을 받아 변성된 규암과 점판암이 거의 수직으로 서 있다. 또한 규암과 점판암의 차별침식으로 점판암 부분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 신비함을 더하고 있다.

대청도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 보존하고 있는 퇴적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청도의 중앙부를 이루고 있는 삼각산, 미아동 해안, 황금동 해안의 암석은 퇴적당시 순서와 같은 순서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서단에 위치한 지두리 해안, 옥죽동 해안, 답동산책로 해안의 암석은 퇴적당시 순서와 정반대로 뒤집혀져 있다. 이곳의 지층이 뒤집혀진 지질사건은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지질학적으로 해결해야 과제이다.

최근에는 대청도에 천천히 산책하면서 해안가를 만끽할 수 있는 황금 트레킹 산책로가 마련되어 대청도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대청도 남서쪽에 위치한 광난두 전망대에서 출발하여 서풍반이 전망대, 마당바위, 기름아가리를 거쳐 다시 광난두 전망대까지 1시간 30여분 정도 소요되는 서풍반이 산책로가 명품 산책로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서풍반이 산책로는 해안에 인접한 구릉을 따라 마련되어 있어 해안절벽과 바다 풍경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와 소사나무에서 내뿜은

피톤치드로 기분이 상쾌해진다.

대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에서 대청도와 백령도 일부 지역에서만 식생한다고 알려진 대청부채를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과거에 많이 자랐던 대청부채가 아름다움에 반한 나머지 무분별한 남획으로 대청부채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 되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필자도 10여 차례 대청도에 방문했으나 좀처럼 대청부채를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웠다. 그러나 다행이도 작년 여름(2016년 8월) 대청도 해안절벽에서 2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군락지를 발견하여 아름다운 대청부채 꽃을 볼 수 있었다.



대청도를 대표하는 농여해안의 고목(나이테)바위

#### 4.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산출되는 섬 - 소청도

소청도는 인천에서 북서쪽으로 직선거리 180여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으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고 약 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소청도는 크기로 보면 백령권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서 가장 작은 섬이지만, 지질학적으로 살펴보면 세 섬 중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기원의 변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청도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적자색 이암, 청색 이암, 황백색의 석회암 등이 지각변동을 받아 변성되어 생성된 점판암과 결정질 석회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청도의 동남단 해안가에는 대규모로 노출된 백색 결정질 석회암이 있는데 이곳을 분바위라고 한다. 분바위라는 명칭은 여인의 얼굴에 분칠해 놓은 것 같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분바위를 월띠라고 하는데 이는 등대가 없던 시절 백색의 석회암이 달빛을 반사되어 야간에 뱃길을 안내 해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분바위의 결정질 석회암은 암질이 좋아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수십 년 전까지 건축 재료로 많이 채석되어 남아 있는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도 아름답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남조류 화석이 산출되어 2009년에 천연기념물 제508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분바위의 결정질 석회암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켜한켜 자라난 굴 껍질의 성장선을 보는 것 같은 모양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의 광합성작용을 받아 생성된 석회성분이 한켜한켜 쌓여서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다. 그래서 소청도 주민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들어 있는 암석을 굴딱지 암석이라고 부르며, 이 암석을 가공하면 매우 아름다워서 석공예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최초 지하도로 알려진 광화문 앞 교보문고 지하도의 벽면에 부착된 암석도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들어있는 소청도 분바위의 결정질 석회암이다.

소청도에서 가장 큰 마을인 예동에는 공소가 있고 마을 뒷산(당산)에는 김대건 신부님상이 서 있는데 여기에 신부님상이 세워진 것은 청나라에서 신부서품을 받고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 작은 배를 타고 조선으로 오다가 소청도 부근에서 폭풍우를 만나 소청도에 상륙하여 천주교의 교리를 설파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김대건 신부님상 주변에는 150여년 된 동백나무 군락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천연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된 대청도의 동백나무 보다 수령이 오랜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교롭게도 김대건 신부님상 바로 옆에는 허름한 당집 하나 있는데 이곳에서는 마을은 안녕과 어부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임경업 장군을 당집이다.

소청도의 남서단 해안가 구릉 위(83m)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1908년) 소청등대가 있다. 소청등대는 서해의 서북해 일대와 함께 중국 산둥반도, 만주 대련지방을 향해하는 각종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일제를 거쳐 8.15광복 후 오늘까지 술한 우여곡절 속에 해상 휴전선의 등불이 되어 남북한 어

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 온 소청도 등대이다. 소청등대가 일찍이 소청도에 설치된 이유는 인접한 대청도의 선진포구에 설치되어 있었던 일제 강점기 일본 포경선단이 멀리 산둥반도 부근까지 고래잡이하고 돌아오는 항로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현재의 소청등대는 최근에 리모델링하여 설치한 등대로 등대위에는 관람객을 위한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소청등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소청도의 남쪽 해안의 비경과 북동쪽에 위치한 대청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소청도 중앙 남쪽 해안 기슭에 있는 노화동은 한때 소청도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예동 마을에 밀려 두 번째 마을로 되었으나 2016년에 마을 담장에 소청도에 관련된 벽화를 새롭게 단장하여 소청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다. 또한 노화동 마을 앞 해안가에 펼쳐진 몽돌해안과 몽돌해안 주변에 발달된 해식동굴과 시 아치들이 발달되어 있어 아름다운 어촌 마을의 정취를 맛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산출되는 분바위, 예동 마을 뒷산에 설치된 김대건 신부님상, 150여년 된 동백나무 군락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소청등대, 조용한 어촌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노화동에 직접 방문하길 추천한다.



소청도 분바위 원경과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작은 사진)

## 5. 나오기

북방한계선(NNL)에 인접한 소청, 대청, 백령도는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볼 수 10억년 전에 퇴적된 상원누층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클 뿐 아니라, 해안가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천해의 비경들이 즐비하여 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면적당 천연기념물의 지정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국가지정 명승 제8호로 지정된 두무진를 비롯하여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으로 사용했던 사곶해수욕장, 공기놀이하기 좋은 크기로 형형색색이 아름다운 콩돌로 구성된 콩돌해안, 지구내부의 물질을 알려주는 진촌리 감람암 포획현무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선명한 남포리 습곡,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화리 무궁화나무, 백령도 점박이물범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모래의 섬으로 알려져 있는 대청도는 우리나라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불린 정도로 큰 옥죽동 사구가 있는데 이는 농여 해안에 끝없이 발달된 모래갯벌의 모래가 강한 북서풍을 받아 운반되어 검은낭산 기슭에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여년 전에 조성된 방풍림 때문에 모래공급이 예전같이 없어서 사구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청도 농여해안과 미아동 해안에 노출된 10억 년 전에 형성된 규암에는 갯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결무늬 자국과 같은 화석화된 무결무늬 자국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현생의 물결무늬 자국과 10억년 전에 형성된 물결무늬 자국을 동일한 장소에서 관찰 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 아니가 생각한다. 또한 대청도를 대표하는 자연유산 중 하나인 농여해안가 나이테바위는 수평방향으로 쌓여서 형성된 지층이 지각변동을 받아 거의 90도로 세워져 있고 상부의 일부가 침식되어 구멍이 뚫어져 있어 신비로움을 더 하고 있다.

대청도는 대부분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사암이 변성해서 생긴 규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암에 보존되어 있는 퇴적구조(사층리, 곡산층리, 물결무늬자국 등)을 조사해 보면 대청도 중앙부를 제외한 동쪽과 서쪽 부분이 지각변동을 받아 뒤집혀져 있을 정도로 격심한 지각변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청도 매

봉바위 전망대 기슭에는 아열대 상록수로 알려진 동백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위도에 식생하고 있는 동백나무로 천연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청도와 같은 고위도 지방에 아열대 상록수인 동백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해류의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 섬 중에서 가장 작은 소청도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간직한 섬이다. 그 이유는 소청도 남동해안가에 노출되어있는 분바위(여인의 얼굴에 분칠을 한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암석)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0억 년 전의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상에 최초 생명체인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가 분비한 석회성분이 쌓여서 생긴 화석으로 남조류의 탄소동화작용으로 지구상에 최초로 산소가 만들어짐에 따라 지구에 오존층이 형성되어 바다에서만 살았던 생물들이 육상하게 하는 등 생물의 진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금도 호주 서부의 상어만에는 현생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되고 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해안가에 펼쳐진 비경과 암석들이 간직하고 있는 지질학적인 가치는 대단히 크다. 이러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위해 하루빨리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가 국가지정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남한의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와 인접한 북한의 장산곶에 있는 지질자원유산을 체계적이고 조사하고 연구하여,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하기를 희망한다. 이 지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남, 북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공존하는 세계평화지질공원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질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천광역시와 웅진군에서는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가 국가지정 지질공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섬 주민들의 홍보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초석으로 하여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백령·대청 지질공원 지질명소 10선



백령도 두무진



백령도 진촌 감람암 포획현무암



백령도 사곶해빈



백령도 콩돌해안



백령도 남포리습곡



대청도 농여해안 고목바위



대청도 미아동 해안 현생연흔과 화석화된 연흔



대청도 옥죽동 사구



대청도 서풍반이와 기름아가리



소청도 분바위

## 백령도 점박이 물범

### ● ● 박 용 만

백령도는 고구려시대 곡도로 불리었으며 고구려 현종9년 백령진, 조선조세종10년 강련진, 고종33년 이후 황해도 장연군에서 1945년 경기도 용진군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용진군 백령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백령도는 인천에서 200km 거리에 있어 여객선으로 4~5시간이 소요되어 도착할 수 있으며 서해 최북단 방위 전초지역으로 북한과는 17km거리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50.09km<sup>2</sup>이며 인구는 약 6천명에 60%가 농업인으로 주 소득원은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용진군의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명승 1건, 천연기념물 9건으로 백령도 두무진 기암괴석(명승 제8호), 대청도 동백나무 최북단 자생지(천연기념물 제66호), 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천연기념물 제393호), 신도노랑부리 백로 및 꿩이 갈매기 서식지(천연기념물 제 360호),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천연기념물 제 392호),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천연기념물 제507호), 소청도 스토로마이트라이트 및 분바위(천연기념물 제 508호),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천연기념물 제 521호), 백령도 점박이 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이 있다.

오랜 세월동안 해양생활에 적합하도록 진화한 점박이 물범은 걸기가 없고 물갈퀴는 수영하는데 이용하지 않고 방향전환을 할 때 사용하며 물갈퀴는 짧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

수명은 약 35년이고 3~5년이면 성숙하는데 몸길이는 1.5~2미터, 몸무게는 60~150키로가 된다.

수컷의 고환은 물개와 달리 음낭에 싸여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고 배안에 있으며 임신기간은 10개월 정도이며 얼음이 언 해안가에서 분만을 하며 새끼는 태어나면서 흰색의 모피색을 띠다가 이유시기에는 색이 변하며 생 후 한 달이 지나면서 부터 80미터까지 먹이를 찾아 잠수를 한다. 어미들은 300미터까지 잠수를 한다.

이곳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중국 보하이 랴오통만의 빙해 위에서 번식하고 이듬

해 3월에 백령도로 새끼들과 남하하여 11월까지 생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백령도는 번식지이기 보다는 먹이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서식지로 활용 되는 것이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은 1973년에 처음 보고 되었고, 1982년에 천연기념물 제 331호로 지정되었다.

중국학자들의 1991년 조사에 따르면 서해안에 서식하는 물범의 개체 수는 1940년대 8천 마리에 육박했으나 1980년대는 2천3백 마리 정도로 줄었다고 하며 현재로는 약 3~4백 마리의 개체가 봄에서 가을까지 백령도에서 성장을 하고 겨울 철에는 중국 보하이 랴오통만으로 이동하여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백령도 서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쪽에 위치한 하늬바다 앞 물범바위, 서쪽에 위치한 두무진 앞 물범바위 남쪽에 위치한 연봉바위 이 3곳에서 서식을 하는데 그중 많은 점박이 물범이 관찰되는 곳이 하늬 앞바다 앞 물범바위다.

하늬바다 앞 물범바위는 세 개의 작은 바위섬과 한 개의 큰 바위섬이 최대간조를 앞두고 물위로 들어나는데요 물범바위는 30도 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물범이 휴식을 취하기 안성맞춤이다.

따라서 점박이물범은 간조를 앞두고 물범바위가 물 위로 나오기 전에 물속의 물범바위에 몸을 옮겨 대기하고 있다가 바위가 물위로 나오면 햇볕을 쬐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곳은 다시마 밭이 발달하여 점박이 물범의 주요 먹이인 우렁 등 어족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물범바위 위에는 많을 땐 200여 마리가 가까이 몰리는데 좁은 바위를 차지하겠다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봉바위 두무진 앞 물범바위에서도 여러 개체수가 발견되고 있으며 해상관광을 하시는 분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멸종위기동물 2급인 점박이물범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서식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의 백령도는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적 긴장과 생태적 축복이 공존하는 곳으로 점박이 물범이 백령도를 서식지로 이용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박이 물범의 생존에 상당한 위협요소들로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것은 최대 번식지인 중국의 보하이에 각종 공업용 폐수와 생활오수의 대량유입, 과도한 어획과 불법포획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서식지로 활용하는 백

령도에는 관광유람선에 의한 스트레스, 까나리 그물과 홍합 채취 및 해조류인 미역 다시마 채취로 인하여 물범의 휴식공간을 뺏기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번식지의 빙해 감소가 빙해 위에서 태어나 자라는 새끼 점박이물범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처의 고립과 개체군의 감소에 따른 근친교배 또한 위험이 증가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 331호, 멸종위기동물 2급인 점박이물범 서식처의 위협요소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서식처를 보호해야 한다.

최근 중국에서도 점박이물범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포획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 백령도 하늬바다 물범바위, 두무진 앞 물범바위, 연봉바위에서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의 안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한다.

참고 자료

1. 녹색사회연구소. 2008 「백령도 잔점박이물범 보호와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시범사업 및 민간 간담회 결과보고서」 국립수산 고래연구소
2. 녹색사회연구소. 2009 「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해설 양성과정 자료집」 국립수산 고래연구소
3. 녹색사회연구소. 2010 「2009년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생태관광시범 사업 및 주민교육사업 최종 보고서」 국립수산 고래연구소
4. 녹색사회연구소. 2011 「백령도 사람들의 점박이물범 이야기」
5. 녹색사회연구소. 2013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6. 조강희. 2013 「남과 북을 오가는 백령도 물범」 인천시 의회저널





##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박 용 만

영세한 농업구조 하에서 농가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는 동시에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가소득이 감소하면서도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소위 소득문제 해결이 농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 농업이 직면하는 문제는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의 축소과정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경영은 이미 소수의 대규모 경영과 다수의 영세규모 경영으로 분화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의 진행과 함께 도농 간 소득격차와 농업내부의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소득 문제가 또한 심화되고 있다.

소득격차 문제는 성장하는 소수의 상위계층과 추락하는 다수의 하위계층간의 소득 문제이며, 지나친 격차확대는 회피되어야 한다.

상위계층의 성장은 가속화하되, 하위계층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격차 축소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하위계층은 경영면에서 영세규모이거나 고령자, 여성이 중심이고, 지역적으로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입지하는 농가들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농업내부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가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이란 농지면적이나 자본규모를 확대하는 기존의 단순한 농업구조 개선의 노선이 아니라 농업 생산이라는 1차 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 2차 산업으로, 다시 농산물 유통이나 직거래, 도농교류 등 3차 산업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의 고용문제나 소득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다.

이러니 비즈니스를 특정지역을 단위로 하여 농업생산자가 담당함으로써 지역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차 산업화는 농촌지역에서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6차 산업화는 개별 경영주체보다는 지역단위의 조직경영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경영성과가 높고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하나의 형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농업 6차 산업화

농업분야의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6차산업화’가 새 정부의 농정의 핵심과제로 등장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7월 ‘농업 6차산업화 본격 추진’을 발표하면서 ‘농업 6차산업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농업 6차산업화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 가공(2차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하였다.

현재 농업 6차산업화와 유사한 농업관련사업(가공, 판매, 관광 등)의 경영능가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업총조사(2005~2010 :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 관련사업 경영능가수는 ‘10년 151,515호(전체 농가 수의 12.9%)로 ’05년 99,879호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백령도 생태관광의 지리적 여건과 문제점

웅진군은 유·무인도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특히 백령도는 인천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다.

따라서 수시로 다닐 수 없는 곳이고 뱃길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여러 제약을 받으므로 결항횟수가 많고, 일정을 제대로 못 맞추는 관광객이 한 둘이 아니다.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2014. 4. 16.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3개 선사가 운행되던 것이 1개 선사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더더욱 운항횟수가 줄고 이로 인하여 관광객의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다.

웅진군의 관광객 수를 보면 2011년 4,143,338명에서 2012년 4,407,315명으로 263,977명이 증가하였지만 백령도의 관광객 수는 77,847명에서 94,250명으로 전년대비 16,403명의 증가에 거뒀다.

지방자치단체 웅진군에서는 관광객 감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웅진군 섬 나들이 행사로 여객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민박 현대화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숙박시설

의 북쪽으로 관광객의 불편함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현황은 웅진군 645가구(백령도 61가구)이며 농어촌 민박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가구는 127가구가 지원되었다.

## 결론

1984년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시작 된지 30년, 2002년 농촌관광마을 사업이 시작된 이래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농촌관광 시장은 확대 되었으며 농촌관광 공급 주체도 다양해졌다. 도시민 가운데 농촌관광 경험자의 비율이 24%를 넘은 만큼 농촌관광은 우리나라에서 관광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았다.

농촌관광 시장이 성숙하게 되기까지는 여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주5일제 근무 등 사회 경제적인 변화도 작동하지만, 정부의 농촌관광 마을 조성사업이 크게 작용 하였다. 정부가 1,000여개의 관광마을을 지원한 것이 농촌관광을 홍보하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도농교류 촉진법”에서 체험마을 사업의 숙박 및 음식물 판매를 허용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특례이다.

결과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한국 농촌관광 시장에서는 공공부분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편이다. 공공부분의 주도 아래 농촌관광 시장이 성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관광 마을의 수가 증가하고, 농어촌 민박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농촌관광 시장의 경쟁조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에 의한 농촌관광 경영체의 경영유지는 한계에 달할 것이다.

보다 더 잘사는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인 정책과 지역의 리더와 전 주민이 동참하여 잘사는 농어촌 백령도를 기대해 본다.

### 참고 자료

1. 김윤성, 김응규, 김강현. 2014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농협경제연구소
2. 김태곤, 허주녕. 2011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박시현, 김용철, 권인혜, 류경선. 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송미령, 성주인, 박경철. 2006 「잘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이종순. 2012 「농업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농민신문사
6. 웅진군수. 2013 「2013 군정백서」 웅진군



북도면 인어상



대청도 모래사막



연평면 평화공원



연평면 평화공원



덕적면 능동자갈마당



덕적면 소야교



자월면 풀등



대청면 농여해변 나이테 바위



백령 간척지



영흥면 십리포해변

출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



## Ⅱ 농촌·어촌 성공담



1. 덕적도 단호박 연구회
2. 다시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미래 산업의 다이아몬드
3. 20년 제자리 농업소득,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하나?

## 덕적도 단호박 연구회

●● 이 현 주

덕적면에 위치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호박회관’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2017 웅진군 소규모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곳이다. 세련된 카페처럼 인테리어를 한 호박회관은 해풍을 맞은 단호박을 재료로 다양한 디저트와 먹거리를 판매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기도 한다.



단호박회관 전경

웅진군 최초의 6차산업 가공판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박회관’은 단호박 농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단호박연구회에서 운영 중이다. 덕적도는 인근 섬과 달리 농산물을 육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2시간씩 나가야 하는데다 단호박은 저장성이 떨어져 판매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연구회 회원들은 판매기간을 늘리고 부가가치도 높이는 방안으로 가공상품 개발에 나섰다. 지난 겨울 단호박을 찌서 얼려놓고, 가루로 만들어 단호박을 원료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류를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자체 교육과 연구를 통해 호박양갱, 호박찐빵, 호박머핀, 단호박 마들렌, 단호박 식혜, 단호박 막걸리 등 단호박을 원료로 한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를 가공하고 제품화해 보였다.



공동작업



관내학생 방과후 수업

앞으로 단호박연구회는 현재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호박회관’을 설립하여 호박회관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물론 택배, 마트 등으로도 판매할 계획이다.

이 곳은 호박회관이라고 해서 호박제품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카페 뒤편에는 다양한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나물, 약초, 짬, 발효 액기스 등 각종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한 가공품은 자체 브랜드인 ‘북적북적 덕적 바다역시장’ 스티커와 지역 주민들의 연락처를 붙여 판매되고 있다.

호박회관 운영을 맡고 있는 이현주 덕적도 나그네 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박회관은 덕적도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홍보의 장이기도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랑방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육지에도 덕적도 농산물을 알릴 수 있게 호박회관 개점으로 덕적도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단호박회관 대표

## 다시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등 미래산업의 다이아몬드

● ● 장 태 현



웅진문화원 개원에 즈음한 웅진문화지 창간호 발행에 성공 수범사례 원고 청탁을 받고 내가 해온 일들이 성공사례로 내세울 만 한 건지에 대해 한동안 망설이다가 펜을 들어 본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다시마라는 생물에 대한 호기심과 믿음에 대하여 인생을 온통 걸게 되는데는 깊은 사연이 있기에 지루 하겠지만 먼저 그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이 순서일 듯 하다.

시간을 거슬러 37년 이전으로 가본다.

지역 노래자랑에서 언제나 1위를 차지하던 나는 1978년 KBS노래자랑(가수선발)에서 주말대회 입상하며, 가수의 꿈에 도전하여 음악하는 동료들과 보컬그룹을 결성하여 리드싱어를 맡고 자그마한 클럽에서 음악생활을 시작 나이트클럽까지 활동하며 동료 작곡가이자 밴드마스터 김진일(경북안동출신) 현재 백령도 연꽃마을 촌장인 친구의 창작곡으로 음반을 내기위하여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실현치 못하고 급기야 열애중이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다.

평소 나의 음악생활이 밤무대와 술과 늘 함께해야 하는 직업인 점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내는 앞으로 현재의 음악생활을 끝내기를 간곡히 요구하여 나는 아쉽지만 음악생활을 접었다.(결혼식 날 피로연에서 나의 음악활동 중단에 대한 친구 김진일의 실망감 표현의 행동 에피소드는 지금도 가끔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이야기한다)

서울 사람인 아내와 백령도에서 신혼살림을 꾸린 나는 노래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잠수 특기를 살려 해남활동으로 전북 해삼 등을 잡아 생활을 했다.

첫아이 아들이 축복 속에 태어났고 생활을 평온한 듯 했으나 나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끼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평상적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1982.5.16.) 나에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추락사고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된 것이다.

천주교신자이지만 주일도 잘 안 지키고 냉담을 해오던 나는 그제서야 다급하고 간절함으로 나의 하느님을 부르며 구원을 청했다.

“하느님 저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지금도 이 기도는 나의 인생과 함께하기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 하는 이유라고 생각함)

기도가 하느님께 도달 했는지 기적 같게도 일주일이 지나며 하반신에 통증을 느끼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몇 개월의 병상 생활을 마치고 차츰 몸이 회복되며 우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며, 나의 하느님과 약속한 봉사하는 삶의 방법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던 중 “새어민”이라는 월간 수산전문 잡지에 게재 된 기사에서 어민후계자 선발을 국가가 제도화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을 보고 “어민후계자”라는 단어에 딱 꽂혀, 마음 깊숙이 파고 들었다.(후에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2대, 4대 수석부회장 역임) 노래말고 잘할 수 있는 게 바다였던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여기구나 라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고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어민후계자에 선정(1984년)되어 각종 수산교육은 물론 새로운 수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기술을 습득하고 백령도의 바다 수온 분포에 대해서도 수온계를 가지고 계속 체크해서 기록하다보니 몇 년이 지나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어 바다 생물의 생태계에 따른 특성을 분석 및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 도움이 되었다.

어촌혁신을 부르짖던 젊은 나는 어촌계 또래의 동료들과 규합하여 혁신 추진위를 구성 내가 소속한 진촌 어촌계의 혁신 작업에 착수하여 계원들의 절대적인 지지하에 어촌계 “마을어장”(당시 공동어장)에서의 공동조업, 공동출하, 공동분배, 타지역 잠수부 고용배제 등의 규정을 확정시키고 객주들이 점유하고 선수금들을 제공하고 생산 수산물을 싼값에 후려치기 하던 것에 제동을 걸고 2년간 휴어기를 두어 자원 조성에 돌입 했다.

2년 후 어촌계원들의 지지로 어촌계장에 취임한 나는 여러 건의 양식장면허를 받아 자원 조성에 앞섰고 2년간 조성된 수산자원을 채취 출하 시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이전가격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생산물을 출하해서 공동분배를 통해 어촌계원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가 공적이 되었는지 1988년 “한국농어촌청소년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남북 접경지역으로 제한된 어장구역에서 제한된 어로작업으로 인해 수산소득원이 단순한 우리지역에 새로운 수산소득원의 개척에 지속적으로 고민해오던 나는 그동안 계속 계속 기록해온 백령도해역의 수온자료를 분석해 보고 “다시마”양식이 가능 하겠다는 판단 아래 1989년 당시 진촌어촌계장직에 있던 나는 “국립수산진흥원 인천지원”(현재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에 요청하여 다시마 시험양식을 시도하게 되었다.



슈퍼 다시마 탄생

시험양식은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 백령도 바다의 수온 영양염 등 수질이 슈퍼급 다시마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때부터 다시마에 더욱 매료된 나는 다시마에 대한 기술 자료 등을 모으기 시작했고 다시마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일본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시마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공부하기 시작 했으며, 다시마 관련한 일본 방문만도 10여회에 이른다.

소규모지만 계속적으로 양식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 다시마 서식지로써 최상의 생태계를 지닌 백령도 나의 양식장에서 적절한 밀도와 조도 관리를 받은 다시마는 드디어 우량 씨앗(유주자)을 잉태 했으며, 9월에 방류된 씨앗은 해류를 타고 차츰차츰 백령도 전해안의 서식처로 분산되어 자연산다시마로써의 자리를 잡고 번식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좋은 바다 생태계에서 다시마가 왕성하게 자라다보니 주민들께서 다시마 때문에 토종 돌미역이 다 없어진다고 죽일 놈 소리까지 원망을 들었다.(다시마 때문에 미역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다시마로 인한 소득이 높아지니 일부 주민들께서는 공덕비를 세워줘야 한다는 말씀들도 하셔서 마음 한구석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다시마의 소득이 높아지자 무리한 채취 작업 도중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채취 시에 필요한 안적교육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다시마”라는 생물이 우리에게 좋은 소득원인 것은 맞지만 욕심이 앞서 미성숙 되었거나 성장상태가 불량한 품질의 다시마를 채취하여 무작위로 판매하는 것은 백령도 “2년산 다시마”의 명성을 위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자 단체등의 조직을 통해 품질등급을 분류하여 소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품화를 이루고 제값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일본다시마협회”(日本昆布協會)가 결성되어 1억2천여 인구가 절대적으로 즐겨먹는 건강식품으로 거대한 산업으로 이룩해 놓았으며, 일본에서 마른다시마 최고품질의 상품이 인터넷 소비자가로 1kg에 25만원이상 하는 것이 있을 정도이고 10여종 가량의 등급을 이룬다.

백령도산 다시마의 최고등급은 1kg에 최소 50,000원 이상 가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생산자들이 신뢰를 지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생산자도 매년 때가 돌아오면 자연이 준 선물인 것처럼 무작정 채취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마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품질의 다시마를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야 미래에 더욱 발전된 좋은 결과를 만들고 높은 소득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다시마자원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규합된 조직의 결성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다시마산업이 백령도 다수의 주민들에게 안정된 소득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시련은 또 있었다. 지역바다에 적응하기 좋은 우수한 종묘를 공급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경희대학을 나와 결혼 후 서울에 살던 막내 동생을 설득해 1991년부터 시작했던 전북종묘 배양장을 경영하면서 기술, 경영자금 모두 부족 했던 우리 형제는 몸과 정신력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며 전

북종묘배양장을 꾸려 나가던 중, 1996년 가을 해안 해수취수구를 점검하러 잠수작업을 하던 동생이 잠수복을 입지 않고 맨몸잠수로 들어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며, 나는 한없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다.

모든 걸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무력감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나타난 동생이 나를 달래주고 포기 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었다. 지금도 꿈속의 동생모습이 너무나 선명해 시련이 닥쳐와 좌절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에너지가 되어준다.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을 절절히 실감했다)

자랑스런 웅진군민상, 인천시민상(산업발전분야)등의 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수산소득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시련은 또다시 여러 번 겪게 된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아 채취를 바로 앞둔 다시마양식 시설이 전폐되어버린 것이다.

2000년도부터 시작한 다시마종묘 생산은 지금은 전국에서 조기산다시마종묘로 인기를 끌며 타 지역 생산 종묘보다 2배 이상의 가격에 사전주문에 의해 생산과 출하를 하고 있지만 출하를 앞두고 하루아침에 풍파로 3억여원이 넘는 종묘가 전폐된 적도 있다. 생을 마감해야 하나 하는 심정에 까지 도달 한 적도 있다.

그 사업이 되기는 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리는 이웃들도 있었다.

내가 지향하는 곳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웃을 탓 할일은 아니니 내가 늘 마음에 담아둔 “사필귀정(事必歸正)” “대기만성(大器晚成)” 두 사자성어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이제 다시마에 미쳐서 만 39년이 되었다.

가끔 세미나 등에 강연도 한다.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는 미래 우리지역은 물론 나아가 한반도의 다시마산업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좋은 결과를 만들고 이웃으로부터 진정한 칭찬을 듣고 싶다.

이젠 태풍 등 풍파에도 견디낼 시설 비법을 터득하고 개발했다. 포기하지 않은 노력이 일구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실패를 거듭 하는 모습을 참고 인내하며 지켜 준 아내와 가족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외국의 명언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패과정을 겪어 내는 것은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른 사례로 경험하신 독자들께서도 공감되리라 생각한다.

두서없는 글을 채택해주신 편집팀과 읽어주신 독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시마”라는 생물이 가진 식품, 의약품, 화장품등 미래 우리 인간의 건강을 다스리는 필수영양소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무궁한 잠재력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필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다시마관련 사진자료 몇 컷을 올려보며, 지금 가칭“한반도 다시마협회”설립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필자도 준비위원으로 다시마산업의 미래를 위해 활동 중임을 말씀드린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변화로 다양한 온대성 생물들의 서식대가 북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냉수성생물인 다시마의 서식지 또한 북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미래 다가올 산업적 가치를 마음에 새겨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볼 때라 생각한다.



## 20년 제자리 농업소득,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하나?

● ● 서 완 수

### 1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은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등을 생산하면 1차 산업, 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과 천연 자원을 가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조업(건축포함)을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 생산한 재화의 이동, 소비, 저장과 관련된 분야가 있지요. 유통, 도소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3차 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영역은 생산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이발, 목욕, 숙박, 관광, 금융업과 부동산업, 행정 서비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오락, 예술 등 실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사이 4, 5, 6차 산업이란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4차 산업이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과 정보 분야를 따로 떼어내어 일컫는 말이지요. 4차 산업은 '연구와 개발 산업' 또는 '지식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5차 산업은 레저, 취미, 패션 산업을 묶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업으로 만화가, 프로 게이머, 패션 모델, 디자이너 등이 있지요.

그러면 6차 산업은 무엇인가요?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합니다. 농촌 관광을 예를 들면,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의 가공생산(2차 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하여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농가가 찹쌀을 생산하여 집에서 맛있는 떡을 만들고 이를 농촌에 놀러 온 관광객에게 팔았다면 6차 산업을 수행한 농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나 사과재배 과수농가가 생산물을 이용해 즙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생산, 가공 그리고 판매를 아우르는 농업부문의 복합 생산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떡을 만들기 위

해서는 도정, 떡을 만드는 공정과 기술이 필요하고 상품의 포장과 상표의 부착도 필요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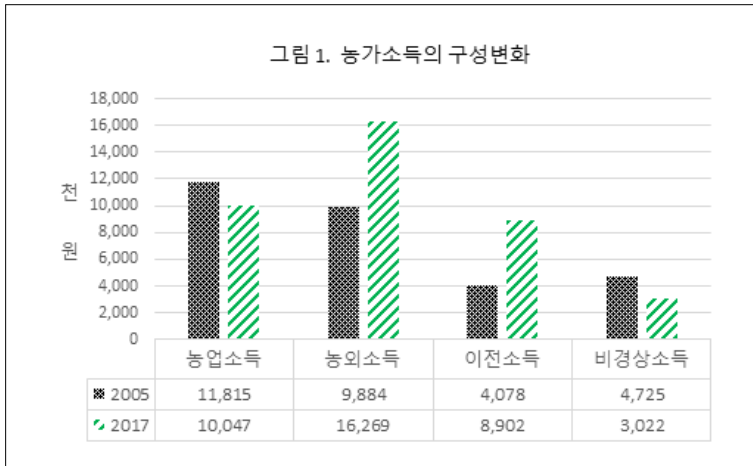
사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문은 가공·제조와 판매유통 쪽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소득발생이 많은 부문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원료를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상인들은 유통분야를 담당해 왔습니다. 농민은 농산물(원료)만 생산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농산물이 아닌 이상, 농산물 가격은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여름(2018) 한때 오랜 기간 무덥고 가물었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밭에 수도 없이 물을 날라주고, 세심한 관리를 많이 해 주어도 내 농산물만 값을 더 받지 못합니다. 다른 공급자가 비슷한 농산물을 얼마든지 공급하기 때문이지요.

콜린 클라크(Colin G. Clark)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인구가 제1차 산업 중심에서 제2차 산업으로, 다시 제2차 산업 중심에서 제3차 산업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농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또한 제조업보다는 상업에서 이윤이 훨씬 많다는 내용은 페티(Sir William Petty)가 설파하였지요. 이는 일반적인 경향에 불과하며 각국이 갖는 자연적 조건 또는 역사적 특수성에 의해 차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제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2

통계청은 2017년 우리나라 농가의 연간 평균소득은 38,239천원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 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 네 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중 농업소득은 10,047천원에 불과하여 전체소득의 26% 정도입니다. 농외소득이 43%, 이전소득 23%, 비경상 소득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외 소득은 겸업과 사업외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사업외 소득이 약 73%(11,863천원)로 대부분 노임수입이지요.

2005년 농가소득 3천만 원을 넘어선지 12년이 넘었어도 4천만 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 부분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2년이 지났음에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림 1에서처럼 2005년에도 농업소득은 11,815천원에서 100,47천원으로 1,000만원을 겨우 넘었습니다. 농업



자료 :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8

소득이 이처럼 낮은 것은 농가 규모가 영세하여 상품생산을 하지 못하고 자급자족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치거나 잉여가 있을 때만 시장에 팔기 때문입니다. 주 소득원인 쌀값이 낮은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54.5%에서 2016년 25.3%로 줄었습니다.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최근에서야 쌀값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7년 상반기만 해도 쌀값은 20년 전 수준이었습니다. 농업 이외의 소득 기반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취약합니다. 선진국들의 농외소득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데 반해 우리 농촌의 농외소득 비중은 일본의 약 60% 수준으로서 큰 격차를 나타냅니다.

도시근로자 소득과 농가소득은 어떤가? 그림 2는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에서 연도별로 농가와 도시근로자 소득을 비교한 것입니다. 1995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95.7%로 도·농간의 소득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2000년 80.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고, 2012년에는 57.6%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도시근로자 소득 60,030천원에 비하면 이는 63.7%정도여서 70%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곤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료 : 가계 동향조사, 통계청

정부는 쌀 직불금을 시행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9개의 농업직불금 예산으로 17조 6,27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14조 5,566억원으로 82.6%에 달했습니다. 농업직불제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매년 농림부가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하면 농지의 형상 및 이행사항 기준 등을 점검하여 충족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직불금이 80%이상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의 대농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직불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2017년 현재 스위스의 식량자급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입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식량안보와 직결된 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900스위스 프랑(약 100만원)을 받지요. 또한 최소한의 밀도(1ha당 한 마리 기준)로 젖소를 사육해 우유나 육류를 생산하거나 친환경 과수를 재배할 경우에도 1ha당 900스위스 프랑을 받습니다.

3

농업은 사양(斜陽)산업입니다. 농업발전이 안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하여 소득창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이지요. 농업성장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비농업부분의 성장률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 중 농림수산 분야의 비율이 1970년의

24.9%에서 1990년에는 7.2%로, 2010년 2.0, 2017년에는 1.7%로 내려앉았습니다.

농가인구비율도 1970년의 44.7%에서 1990년에 15.5%로, 2010년 6.2%, 2017년엔 4.7%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 농림수산업분야의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에 50.4%에서 2017년 4.8%로 크게 떨어져 매우 낮은 수준에 있지요. 우리나라 만 이런 것이냐 하면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는 모두 농업부문에 있어 똑같은 과정을 밟았고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이지요. 세계의 농산물 수출대국의 미국 농업인구는 2.2%이며 농림업 비중은 GDP의 1.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의한 국민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환기적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에 의하여 농산물도 국제적인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어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식량소비량은 계속 감소되어 왔음에도 전체 곡물자급도(사료용 포함)는 1965년의 93.9%에서 계속 떨어져 1990년에 43.1%, 2016년에는 23.8%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밀 0.9%, 옥수수 0.8%, 두류 7.0%로 자급률이 매우 낮고 식량자급도(사료용 제외)도 50.9%에 지나지 않아 2017년에는 1,536만 8,400톤의 양곡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중 옥수수가 가장 많아 9,370천 톤, 밀 4,243천 톤, 콩 1,304천 톤 그리고 쌀 452천 톤을 수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식량자급률의 저하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초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외국의 농업 사정이나 공급자의 사정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지요. 2017년 농산물 수입은 18,593.5백만 달러 수출은 6,046.6백만 달러에 불과하여 늘 적자행진입니다. 농산물의 수출입자유화는 가격을 하락시켜 도시 소비자 입장에서 폭넓은 선택과 가격에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제한적이란 점이지요. 우리 농산물 가격이 높아 국제경쟁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하여 훨씬 낮으므로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에는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와 노동력이 감소되는 한편 노임이 상승하여 생산비도 높습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합니다. 농촌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 이후 농경지면적은 매년 1만 8천ha씩, 농경지 이용률은 1990년 111.3%에서 2017년 103.9%로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호당 경지면적은 1990년

1.2ha에서 약 1.6ha로 개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 및 투입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소득은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986-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한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 국가들이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을 주장하면서 농산물의 국제시장화의 반대외사를 내고 전면 개방을 거부하여 오랜 기간 협상이 지연된 일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은 국내농업을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2, 3차 산업의 수출입과 맞물려 결국 협상이 진행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중의 무역전쟁을 보면서 ‘자유무역정책’이란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국제관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국민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친화적이며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과 전통을 유지 포용하는 넓은 의미에서 교육적이고 철학이 담긴 산업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기술로 식량을 합성하여 만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공산품과 서비스산업에서와 같이 생산량의 조절이 탄력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단 하루라도 식량이 떨어지고 공급이 염려스럽다면 누구도 긴장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요.

공익적기능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 수자원 함양, 아름다운 경관 제공, 대기 정화, 생태계 유지, 토양유실 및 홍수방지, 야생동물의 서식처, 교육의 장으로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봄이 되면 토지가 있는 농민은 무엇을 심어 시장에 낼까 결정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해마다 같은 작물을 심어 수입을 올리는 것은 쉽습니다. 버려두기 보다는 소일거리로 작은 면적에 우리가족이 먹을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소득과는 무관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웃과 협동하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공동생산을 하여 상품생산을 한다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헌법에 담아 농업의 직접 지불제와도 연계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가 대표적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고, 경지도 부존자원도 별로이지만 시계, 금융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제정치에 중요한 무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842만(2017)명이지만 이웃의 프랑스와 독일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강소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0,000달러가 넘는 세계 최상위 부자나라이지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헌법 104조’를 탄생시키고자 1996년에 치렀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지지율 약 80%를 얻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존중받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 큰 역할을 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우리의 역대정부나 정치인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는 늘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7년 농협을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요. 오늘의 우리 세대가 살아오는 동안 전쟁과 혁명,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경제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100%의 전기보급, 도로포장, 상수도보급, 주택개량을 비롯하여 농촌의 힘든 농작업은 대부분 기계화되었습니다. 빈곤의 밑바닥에서 풍요까지 경험하며 이제 선진국 문턱을 넘어가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아직 의료복지, 교육, 복지인프라 등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생활하기 불편한 곳’인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웅진군은 서해안 경기만의 여러 도시를 아우르는 특별한 환경의 행정구역입니다. 백령도, 덕적도, 영흥도 등 7개면으로 구성된 172.48km<sup>2</sup>의 면적에 21,500여명이 거주하고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지만 어업분야에서 일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군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까나리 액젓과 해삼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웅진군의 고유한 산물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쪽에서는 특정된 품목이 보이지 않아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산이나 가공부문에서 새롭게 도입하거나 웅진군에 가야만 맛 볼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품질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많은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등록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품은 홍보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거나 등록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단합을 유도하고 유사품의 시장유통을 막을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선정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경기만 일대의 섬들을 배경으로 수산물의 양식, 관광자원의 개발, 해상교통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웅진군이 청정의 부자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Ⅲ 풍랑속이었던 서해5도



---

서해교전

---

천안함 침몰사건

---

연평도 포격사건

---



## 제1차 서해교전(1차 연평해전)

제1차 서해교전(1차 연평해전)의 발생 당시의 남북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이고 원만한 상황이었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화해와 협력정책에 기초한 「대북3원칙」을 선언하고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1999년 3월에는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에 비료 5만톤을 전달하고, 5월에는 20만톤의 비료제공에 합의했다. 또한 민간단체 및 적십자사의 식량지원과 비료지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일행의 방북, 금강산사업 추진 등 민간차원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협력적 분위기였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의 핵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11월부터 북미협상을 진행했고, 금창리 지하시설 현장사찰을 조건으로 6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 1999년 5월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미사일 개발 중단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논의를 통해 북한은 핵의혹 해결과 미사일발사 유보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약속받을 정도로 북미관계는 비교적 원만한 편이었다.

### 대치단계(6.6 ~ 6.14)

1999년 6월 6일 새벽 6시경 북한어선 20여척과 경비정 3척이 NLL을 넘어 2~3km까지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측 고속정 3척이 출동하여 차단기동하며 북상할 것을 중용하였으나,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면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측 고속정을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해군에서는 연평해역에 고속정을 증파하고 비상소집을 발령하여 경계태세를 유지하였다. 6월 7일 오전 10시경에는 연평도 서북쪽 10km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어선 15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NLL남방 3.5km까지 남하해 우리 해군의 시위기동과 퇴거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오후 6시경에는 북한 경비정 2척이 추가 침범해 인천항에 대기 중이던 해군함정이 긴급출동했는데, 북한 경비정

2척은 북상했지만 1척은 NLL 남방 2,5km 지점에서 우리 해군의 고속정 편대와 대치하였다. 6월 8일에도 오전 5시 50분경부터 북한 경비정 4척이 어선 10척과 함께 NLL 남방 9km까지 침범하여 우리 해군 고속정 8척이 출동, 교전수칙에 의거하여 퇴각을 요구하였고 오후 8시 20분 이후 북한 경비정 4척은 철수하였다. 1) 국방부, 「국방백서」, 1999, 197쪽

북한의 NLL침범은 6월 9일에도 계속되어 사곶항을 출항한 경비정 6척이 NLL 북방 2km 지점에서 꽃게잡이 어선 보호를 명분으로 머물다가 오전 6시 20분경부터 NLL남방 3~7km 지점까지 우리 영해를 침범하였다. 이에 대항해 우리 해군은 고속정 12척을 동원하여 시위기동과 경고방송을 통해 퇴각을 요구했지만, 북한 해군은 오히려 우리 고속정에 충돌공격을 감행해 왔다. 오전 6시 35분경 연평도 인근 NLL 남측 3km 해상에서 북한의 250톤급 경비정과 우리 해군의 150톤급 고속정이 충돌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충돌로 우리 고속정은 통신실이 파손되었고 북한 경비정도 현측이 파손되었다. 월선한 북한경비정 가운데 2척은 오후 2시 이후 각각 돌아갔으나, 나머지 4척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우리 고속정들과 계속 대치하며 남쪽 5~7km까지 진출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공동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북측에 제안한 장성급 회담을 위한 비서장 회의를 북측이 거부하자 대북성명을 발표하였다. 2) 「조선일보」, 1999. 6. 10.

6월 10일에도 새벽 4시경부터 북한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쪽 10km 해상에서 NLL을 침범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6척의 북한 경비정이 NLL 남방 7~8km 부근까지 침범해 와 우리 측 고속정 10척과 대치하다 오후 5시 50분경부터 되돌아갔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NLL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연평해역에 해군함정을 증파하기로 하고, 북한 측에 모든 함정을 NLL 북방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3) 「조선일보」, 1999. 6. 11.

우리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 경비정 6척이 6월 11일 오전 3시경부터 또다시 NLL을 넘어 남하함에 따라 우리 고속정 10여척이 즉각 시위기동에 나서고 초계함이 후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우리 고속정에 대해 충돌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우리 고속정도 북한 경비정의 함미를 겨냥한 충돌공격으로 전환하여 양측의 혼전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북한 경비정 4척이 선체 함미 구조물에 큰 파손을 입고 오후 11시 40분경 NLL 이북으로 퇴각하였다.

6월 12일에도 북한 경비정 4척이 10시 15분경부터 NLL을 최대 7.5km까지 침범하며 우리 고속정에 충돌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우리 고속정 편대는 기동력을 발휘하여 차단과 선회기동 등으로 북한경비정을 NLL 이북으로 퇴각시켰고, 6월 13일과 14일에도 비슷한 양상의 대치가 계속되었다. 4) 「국방일보」, 1999. 6. 15.

### 교전단계(6. 15)

6월 15일 오전 6시 10분경부터 북한어선 15척과 경비정 2척이 합류하여 또다시 NLL을 침범하였다. 8시 45분경에는 북한 경비정 2척이 추가로 NLL을 침범하였고 NLL 남쪽 2~5km 지점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과 고속정에 충돌공격을 가해와 양측 함정 간에 혼전상황이 지속되었다. 오전 9시 4분경에는 북한 어뢰정 3척이 어뢰발사관을 개방한 채 고속으로 월선하여 우리 함정에 접근하였다. 이에 우리 고속정 4척이 북한 경비정 3척을 충돌저지 하였고, 오전 9시 25분경 우리 고속정 3척이 북한 경비정 2척과 어뢰정 1척에 재차 충돌작전을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전 9시 28분경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에 소총과 25mm 기관포로 선제공격을 가하였고, 추가로 증파된 3척의 경비정을 포함한 총 10척에서 우리 고속정을 공격하였다. 이에 우리 고속정에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규칙에 따라 20mm 발칸포와 40mm 기관포로 즉각 응사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는 초계함에서도 76mm 자동속사포로 응사해 오전 9시 42분까지 교전이 계속되었다. 5) 「국방일보」, 1999. 6. 17.

14분간의 교전 결과, 북한 해군은 어뢰정 1척이 침몰되고 많은 인명 손상을 입은 채 오전 9시 48분경 북쪽으로 퇴각하였다. 우리 해군은 초계함과 고속정에 가벼운 손상을 입은 것과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정도로 그 피해가 미미했다. 오전 10시 이후 북한 경비정들이 NLL북방 2km 지점으로 퇴각하고 북한측의 지대함 유도탄 발사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측 함정도 완충구역 남단으로 이동하였다. 6) 국방부, 「국방백서」, 1999, 198쪽 교전 직후인 오전 10시 판문점에서는 유엔사령부와 북한군 간에 교전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회담이 열렸다. 유엔사 측은 이 회담에서 서해에서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이 모두 NLL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해군력을 철수시키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북측이 기존의 영해주장을 되풀이하며 남측 함정의 철수를 고집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한편, 우리군은 교전 직후 서해 5도 인근에 대해 데프콘(DEFCON)-Ⅲdp 준하는 방어준비태세령을 발령

하고, 한미연합사는 대북정보 감시태세를 워치콘(WATCHCON)- II fh 격상하여 위협에 대비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날 오후 2시 국가안보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과 무력도발로 인해 야기된 교전사태에 대해 북측에 엄중히 항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전 이후 북측 함정은 모두 NLL 이북으로 퇴각하였지만, 북측은 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복의사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고, 정보는 교전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6월 16일에는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서해사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지지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 정치권도 안보위기에 긴밀히 협조하는 모습을 과시하였다. 북한 측도 특별한 이상동향을 보이지 않은 채 여러 매체를 통해 ‘인민군의 인내와 자제로 확대를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기상황의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따라서 함참은 6월 19일 13시를 기해 전투조치태세 강화조치를 해제하고 경계태세 강화로 전환하였다.

#### 연평해전 남북한 피해상황

우리 측 피해(함참 발표)	북한 측 피해(함참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계함 1척 기관실 파손</li> <li>· 고속정 2척 기관실 파손</li> <li>· 고속정 1척 조타실 피격</li> <li>· 고속정 1척 함수 균열</li> <li>· 인명피해 : 경상 9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뢰정 1척 침몰</li> <li>· 구잠함 1척 선체 파손, 기동력 저하</li> <li>· 고힘 경비정 2척 기관실 파손</li> <li>· 인명피해 : 20명 이상 사망, 수십명 부상</li> </ul>

7) 국방부, 「국방소식」, 1999. 7. 14~15쪽

## 제2차 서해교전(2차 연평해전)

제1차 서해교전의 교훈과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해역의 NLL에서 또다시 남북 함정간의 교전이 재발하였다. 제2차 서해교전(2차 연평해전) 발생 당시의 분위기도 북한이 기습공격을 가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경제난 타

개를 위해 생존차원의 '북한식 변화'에 해당하는 개혁과 개방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아 식량난을 견디지 못한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남한은 월드컵 공동개최와 4강 진출로 인해 전국이 축제분 위기에 젖어 있었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2001년 1월 미국에 부시행정부가 출범하고 9·11테러 이후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함에 따라 다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9시 54분경 북한 경비정 2척이 연평도 서쪽 NLL을 침범함에 따라, 우리 해군의 고속정 4척이 북한 경비정에 접근해 퇴거를 요구하며 대응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이를 무시하고 NLL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갔으며, 10시 1분경 또 다른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넘어 남하해 왔다. 이에 따라 인근에서 경계 중이던 우리 고속정 2척이 경고방송과 사이렌을 통해 퇴거를 요구하며 북한 경비정에 접근했다. 10시 25분경 우리 고속정과 북한 경비정의 거리가 450m까지 근접된 순간, 갑자기 북한 경비정에서 우리 고속정(참수리 357호정)을 향해 85mm 주포와 35mm포 등 함포사격과 함께 휴대용 로켓탄 공격을 가했다. 참수리 357호정은 정장 운영하 소령이 전사하고 통신실 등 중요한 지휘체계에 손상을 입었지만 공격을 받은 함정을 비롯한 우리 고속정 2척의 승조원이 40mm포와 300mm포 등으로 즉각 대응사격을 개시하였다.

교전이 발생하자 10시 35분경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측 고속정 2척과 초계함 2척, 다른 북한 경비정을 차단 기동하던 고속정 2척까지 가세하여 북한 경비정을 향해 대응사격을 시작하였다. 교전은 20여 분간 계속되었는데, 교전과 동시에 피격 고속정의 승조원에 대한 구조작전도 병행되었다. 아울러 공군은 북한공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면서 전투기를 덕적도 상공까지 전진 배치하여 초계비행을 실시하였다. 오전 10시 43분경 우리 측 함정의 함포사격에 명중된 북한 경비정 1척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채 화염에 휩싸여 서서히 NLL 북쪽으로 퇴각하자 우리 측 함정들도 10시 56분경 사격을 중지하고 교전상황을 종료했다. 교전 결과, 북한 함정의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받은 우리 고속정 승조원 27명 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격된 고속정도 큰 피해를 입어 예인되던 중 11시 59분경 침몰되고 말았다. 북한 경비정도 30여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선체에 큰 피해를 입어 침몰 직전 다른 경비정에 예인되어 부상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 1·2차 서해교전의 비교

항 목	제1차 서해교전(1999)	제2차 서해교전(2002)
우리측 피해	초계함 1척, 고속정 4척 일부 파손, 7명 부상	고속정 1척 침몰, 사망 6명, 부상 19명
북한측 피해	어뢰정 1척 침몰, 경비정 5척 대파, 20여명 사상	경비정 1척 완파, 30여명 사상
교전상황	9일간 대치. 상호 준비된 공격	북한의 기습공격
교전시간	14분	25분
교전전 북측 대응	우리 측 귀환요구에 강력 반발	11차례 NLL침범, 해군 대응에 즉각 귀환

8) 김현기, 「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 『軍史』 47, 국방군사연구소, 2002, 75쪽

이렇게 제2차 서해교전은 기습공격을 당한 우리 측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1999년의 제1차 서해교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제1차 서해교전 때는 남북한 함정이 NLL을 두고 9일째 대치를 계속하며 서로 준비된 상태에서 북측의 기습으로 14분간 교전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서해교전은 북측의 기습사격에 우리 고속정 1척의 조타실이 집중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교전도 25분간 지속되었다. 제2차 교전에 앞서 북한 경비정들은 11차례 NLL을 침범했으나 우리 고속정이 출동하면 바로 귀환하는 등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았었다. 때문에 제2차 서해교전에서 북한 측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우리 고속정에 기습공격을 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9) 김강녕 「서해교전과 우리의 안보적 대응」, 『통일전략』 2-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20~24쪽

##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남북 해군 함정은 2009년 11월 10일 오전 10시27분경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당시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용’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기왕의 각종 대화와 협력관계가 재조정되고, 북미관계도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제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북미대화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인근 NLL해상에는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 수십 척이 뒤섞여 조업하고 있었는데, 북한 경비정은 ‘어선단속’을 명분으로 NLL을 넘은 어선의 뒤를 따라 남하하면서 남북 양측 함정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10) 『연합뉴스』, 2009. 11. 10. 북측 경비정은 NLL을 넘기 전 두 차례 경고통신을 무시했으며, NLL을 넘어 남하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의 경고통신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북한 경비정은 의도적으로 NLL을 월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군은 이날 오전 11시 27분경 대청도 동쪽 6.3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의 경고통신을 무시한 채 0.7마일 정도까지 침범하자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이 우리 측 고속정을 향해 ‘직접사격’을 가했고, 우리 고속정은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사격(격파사격)’을 가해 북측 경비정을 퇴각시켰다. 10분간 지속된 교전 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측 함정(등산곶 383호)은 반파되고 4명의 사상자를 낸 채 북한으로 되돌아 갔다.

이렇게 제3차 서해교전에서 우리군이 별다른 피해 없이 북측 경비정을 신속하게 퇴각시킬 수 있었던 것은 2차 교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후 2004년 개정된 해군 교전수칙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전에는 ‘무력시위 → 경고방송 → 경고사격 → 격파사격’으로 돼 있던 교전규칙을 개정해 ‘무력시위 → 경고사격 → 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제3차 서해교전 이후 북한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며 12월21일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쪽이 정한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선포했다. 이어 북한은 2010년 1월 27일 오전과 오후, 저녁에 걸쳐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의 북한쪽 해상으로 최대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도 한차례 경고사격을 가하면서 한때 서해 NLL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도 하였다. 11) 『연합뉴스』, 2010. 1. 28 ; 『한겨레』 2010. 1. 28. 이렇게 여러 차례의 무력충돌 이후에도 여전히 NLL 주변 수역에는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응진군, 「응진군지 상 역사와 민속」 2012. 3. 10. p385~391



## 천안함 침몰사건

### 천안함 침몰

1천 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 2.5km에서 북서 방향으로 6.3노트(시속 11.7km)의 속도로 기동하던 중 함미에서 ‘뿡!’하는 소리가 1~2초간 났고 정전과 더불어 일부 격실에 기름, 해수가 유입되면서 갑자기 선체가 오른쪽으로 90도 기울어졌다. 천안함 승조원 104명 가운데 29명은 오후 8시부터 야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원은 사고 당시 침실, 식당 등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함장인 최원일 중령은 이날 오후 9시 5분께 함내 순찰을 마친 뒤 함장실에서 컴퓨터로 메일 및 게시판을 검색하고 전술지휘체계(KNTDS)화면을 확인하다가 사고를 인지했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충격으로 한때 함장실에 갇혀 있다가 통신장 등 승조원 4~5명이 내려준 소화호스를 허리에 묶고 좌현 갑판으로 탈출했으며 그곳에는 다른 승조원 20여명이 모여 있었다. 그때 이미 함미 연돌 뒤쪽 부분은 침몰해 보이지 않았고, 갑판에서는 기름 냄새가 약하게 나고 있었다.

함장인 최중령은 갑판으로 올라온 직후 함정 내부에 갇힌 승조원을 구출할 것을 지시하고 작전관에게 인원 파악과 함께 구조함 접근 시 승조원이 내릴 수 있는 곳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오후 10시 28분 천안함 포술장은 배가 우측으로 넘어갔고 구조가 필요하다며 2함대사령부 상황장교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오후 10시 30분 2함대사령부에서는 대청도 고속정 편대의 긴급 출항을 지시했으며 천안함 전투정보관은 2함대사령부에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에서 좌초돼 함정이 침몰되고 있으니 지원병력을 신속히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9시 31분 2함대사령부는 속초함에 사건현장으로 전속력으로 항해할 것을 지시하고 오후 9시 32분 해경 및 관공선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오후 9시 34분 2함대사령부는 긴급조치반을 소집하였고 오후 9시 40분에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여 전 작전요소 전투배치 서풍 1호를 발령하면서 9시 47분에 덕적도 대잠헬기 링스를

백령도 사고현장으로 급파하여 수색하도록 하였다.

해군 고속정 편대 3척이 사고현장에 9시 56분에 도착해 천안함 전자광학추적장치(EOTS)에 줄을 결속한 뒤 구조작업에 나섰다. 고속정 이용 시 함정이 흔들림과 실족의 위험성을 고려해 해경RIB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해군의 구조요청을 받은 해경 501함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38분이었다. 501함은 RIB 2척을 이용해 천안함에 접근하여 30분간 먼저 19명을 구조한데 이어 오후 11시 8분부터 5분간 나머지 36명을 추가로 구조하면서 58명에 대한 구조는 오후 11시 13분에 마무리 되었다. 이와 함께 응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7호'도 천안함에서 환자 2명을 구조한 뒤 백령도로 후송했다.

천안함 상황발생으로 2함대사는 해상경계태세를 A급으로 격상 발령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남쪽 49km 떨어진 해역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다른 초계함 1척(속초함)을 NLL(북방한계선)남단까지 전진 배치해 NLL경계를 강화하였다.

연합뉴스, 2010년 4월 7일. 미디어다음, 2010년 4월 9일.

### 실종자 수색작업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3월 27일 전·평시 해난구조작전과 항만·수로상의 장애물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해난구조대(SSU)를 투입하고 초계함과 고속정, 해군함정, 고무보트 등 가용전력을 동원하여 실종자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높은 파도와 거센 조류로 수색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3월 28일, 구조작업을 지원하던 민간어선 3척 가운데 1척(남포3리 어촌계 해덕호 선장 장세광)이 침몰 해상을 탐색하던 중에 어선의 어군 탐지기에 이상 물체가 탐지되어 이를 해군에 연락하였다. 이에 기뢰제거함인 응진함이 출동하여 음파탐지기로 이를 식별해 사고지점에서 북쪽으로 180m수역에서 함미부분이 최종 확인되었다.

구조작업 중 3월 30일 함수 쪽에서 작업도중 해군수중폭파대(UDT)잠수요원 한 주호 준위가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일단 수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한 주호 준위는 작업 후 호흡곤란증세로 쓰러져 미국함정 살보함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순직하였다. 연합뉴스, 2010년 3월 27일, 2010년 4월 4일. 『아시아경제』, 2010년, 3월 27일. 『조선일보』, 2010년, 3월 30일.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은 4월 3일 군에 인명 구조 및 수색작업 중단을 요청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고강도 수색작업으로 인한 잇단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군은 생존 장병과 해군은 함미 쪽에 실종자 44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탐색작업을 계속했지만 8명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으며 이들은 절단면 근처에 있다가 폭발과 함께 산화했거나 조류에 휩싸였을 가능성, 함수에 갇혀 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영현낭에 안치하고 태극기를 덮은 뒤 헬기를 이용해 평택 2함대사령부로 옮겨 안치했다. 가장 먼저 수습된 서 하사를 시작으로 수습된 시신들이 2함대에 속속 도착하자 사망한 장병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영현낭을 부여잡고 통곡했으며 곳곳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한국일보』, 2010년 4월 15일. SBS뉴스, 2010년 4월 15일. 연합뉴스, 2010년 4월 15일. 『조선일보』, 2010년 4월 15일.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16일. 연합뉴스, 2010년 4월 17일.

###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 및 안장식

그들을 보내기 싫어 며칠 동안 하늘도 비바람을 뿌려댔나보다. 천안함 46용사를 떠나보내는 날엔 환한 햇살이 가는 길을 비쳐주었다.

영결식은 이 대통령과 3부요인과 국무위원, 전군 주요 지휘관 및 유가족 등 2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9일 오전 10시 해군2함대사령부 내 안보 공원에서 해군장으로 엄수되었다.

식은 희생 장병들에 대한 경례 및 묵념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의 영정 앞에 일일이 화랑무공훈장 및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무공훈장은 전투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다섯 종류가 있다.

평택2함대를 떠난 46인의 용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했다.

안장식은 고인에 대한 경례와 종교의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헌화 및 분향, 조총 및 묵념에 이어 헌화 등 1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안장식은 보통 현충관 안에 제단을 설치하고 의식을 진행해 왔으나 숨진 장병이 많고 해군장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현충문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매일경제』, 2010년 4월 29일. 『한국일보』, 2010년 4월 29일.

천안함 침몰 현장인 백령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 많은 군장병과 관계자들이 인양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문품 및 자원 봉사자들의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백령·대청 주민들은 생업을 접어둔 채 해안가 유실물 수색지원을 하고 있고 어촌계에서는 어선을 동원해 함미수색활동 및 실종자 해상수색 방제작업을 지원하였다.

3월 28일 백령도 남3리 어촌계 소속 해덕호(선장 장세광)가 어군탐지기로 천안함 함미부분 위치를 처음 발견하여 해군에 알렸으며, 웅진군청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고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간부를 소집하였고 대책회의를 거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였다. 군청 간부 및 직원들은 현지지원대책반에 나가 현지수색참여군경 및 민간구조대·취재기자·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행정지원하고 웅진군 소속 어업지도선 3척, 행정지도선 2척으로 실종자 해상수색 및 방제작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어업지도선 227호(선장 김정석)는 침몰구조현장에서 2명을 구조하여 용기포에 대기 중인 해병 6여단 의무중대에 인계하여 치료하도록 하였다. 백령·대청면 공무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수색, 인양, 해안가 유실물수색작업에 노고가 많은 군장병, 해경, 민간잠수사, 119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지원센터 3개소를 설치하여 현장지원에 나섰다. 특히 군인, 해경,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들의 휴식장소가 없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백령면 예산으로 바람막이 시설물을 사고대책본부에 설치하여 휴식장소로 제공하였고, 이동식화장실 3동을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자들의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용트림바위 및 용기포 선착장에 컨테이너 2동을 민간인으로부터 무상 임대 받아 설치했으며 사고현장본부에 몽골 텐트 1동과 화장실 2동을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지역부녀회를 비롯한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마을별 윤번제로 간식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천안함 실종자 수색 및 방재를 지원하는 군경 및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보답하고 있다.

2010년 4월은 너무도 잔인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훗날 우리들의 가슴속에 멋진 역사로 다시 승화되기를 웅진군 전체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4월 29일, 「웅진군 해당화소식」, 2010년 4월호.

## 위문품 지원 및 봉사내역

백령면, 백령면 부녀회, 대청면 부녀회, 백령중앙교회, 장촌교회, 인천광역시, 인천항운노조, 미래해운, 명진해운, 백령석산, 창성건설, 웅진군, 웅진군통합방위협회의, 웅진수협, (사)영흥사회복지법인, 서해건설, 우리의원, 현림건설, 한국종합환경,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인천시 바르게 살기, 인천시 새마을회, 인천사랑운동협의회, 웅진군여성단체협의회농가주부모임회, 웅진군 생활개선회, 대청초중고 학부모 봉사단, 대청중고교학생회, 대청중고교 학부모 봉사단, 한국전력 사회봉사단, 영흥면체육회, 백령농협, 한성주식회사, 인하대의대학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청주민, 진월각, 디코포레이션, 여성지원예비군소대,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우유, 백령천주교회, 한사랑교회, 백령초교 19명, 북포초교 30명, 백령종합고교, 인천국제공항공사, 영흥면통합방위협의회, 덕적이장협의회, 덕적주민자치협의회, 자월1,2,3 이작1리부녀회, 덕적면부녀회, 연평면부녀회, 백령우체국, 다담유통, 원천상사, 영흥관광레저협회, 영흥컴퓨터, 영흥 내2리 주민, 서울 강동구 중식업연합회, 백령 여전도연합회, 대청 안강망선주협회, 대청 옥죽포선주협회, 대청 참사랑봉사회, 사곶교회, KT인천마케팅단

## 관공선 및 어선, 주민 지원내역

관공선 24회, 어선 6회, 주민 4회

## 결론

서해의 푸른 바다를 가슴에 품고 잠든 천안함 46용사들이여, 용기와 신념으로 가득 찬 그대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바다 서해 백령도 근해는 늘 평온하였으며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단잠을 잘 수 있었다. 3월 26일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로 그 바다에서 파도치는 그 밤바다에서 당신들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당신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모든 국민이 자자손손 이어누릴 자유와 번영의 씨앗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천안함의 영웅들이여, 서해바다의 영령들이시여! 조국은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龜津郡誌 하)현재와 미래 p.534 ~ p.556

## 연평도 포격 사건

### 포격사건의 발발

2010년 11월 23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8개월 만에 북한은 다시 연평도를 포격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민간인 지역을 포격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포격은 명백한 무력도발이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분쟁수역화 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정상적인 사격 훈련을 북 영해에 대한 군사도발로 호도하면서 무차별 포격을 정당화하는 것은 서해5도와 인근 해역을 분쟁수역화하려는 의도”라며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안보 불안감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34분경, 훈련 종료 후 한 시간 즈음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130mm 대구경 포 등을 이용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개머리 해안 부근 해안포기지로부터 포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군은 첫 타격 13분 후 K-9 자주포를 무도 포진지에 50발, 개머리 포진지에 30발 총 80여 발을 발사하였다. 북의 공격은 오후 3시 41분까지 계속되었으며 170여 발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80여 발이 연평도에, 90여 발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 오후 2시 34분부터 2시 46분까지 150여 발이 발사됐고 이 중 60여 발이 연평도에 떨어졌다. 3시 12분부터 3시 29분까지 실시된 2차 사격에선 20여 발이 모두 연평도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 결과

2010년 11월 23일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포격으로 8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대연평도 남쪽 주민 밀집지역의 가옥과 건물들이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특히, 면사무소, 우체국과 파출소 등 공공시설 8곳이 포격을 당한 점을 고려해보면, 북한이 공격 대상을 사전에 선별하고 정조준하여 1차 사격을 한 결과 150여 발 발사 중 60여 발

이 연평도에 떨어졌으며, 탄착점 수정을 한 뒤, 2차 포격을 15시 12분부터 15시 29분까지 실시하여, 20여 발 모두 연평도에 정확하게 명중시켰다.

피해현황을 종합해보면, 먼저 인명피해는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이 2명이 사망하였으며,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민간이 4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밖에도 주택 12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의 가옥이 불탔으며,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 여러 채가 파괴되었다. 연평도의 가옥들 19채가 파손되고 불에 탔으며, 산불도 발생했다. 아울러 연평도 전체 건물 924동 가운데 절반 가까운 421동이 피해를 입고 정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포격 당일 암흑 속에서 떨며 밤을 지내야 했다. 포탄과 화재로 연평도 섬에 빠져 있던 5개의 통신기지국 가운데 3개의 기지국이 부서져 통신이 두절됐다. 인터넷과 전화선도 끊겨 대부분 지역에서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했다.

북한의 공격 당시 연평도 주민은 약 1,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추가공격의 가능성으로 인해 겁에 질린 주민의 96% 이상이 섬을 떠났고, 오직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 등 약 30여 명과 공공기관 직원들만 잔류하고 있었다. 인천으로 피신한 섬 주민들은 대부분 찜질방에서 거주하다가 12월 1일 20여 명의 주민이 복귀했지만, 연평도는 한동안 군 통제구역으로 선포되어 주민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피란 나온 연평도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143명 가운데 거주지를 정한 121명을 인천과 경기 지역의 각 학교에 배치했다. 피란 온 연평도 주민들은 임시적으로 인천 중구 신흥동 인스파월드 찜질방에서 거주하였다.

### 피란주민 현황

포격 이후 3일 동안 연평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연평면의 주민등록인구(2010.10.31. 기준)는 총 934가구 1,756명(대연평 1,614, 소연평 142)으로, 이 중 신지 거주민은 1,361명(학생 140명)이다. 11월 25일 파악(23:34 보고)된 연평도 잔류인원은 총 106명이다. 주민 47명(대연평 주민 34명, 소연평 주민 13명)과 기타 유관기관 직원 59명(면사무소 21, 우체국 3, 발전소 12, 파출소 5, 통제소 3 문관 14, 농협 1)이 연평도에 남았다.

포격 직후 인천으로 피란한 연평 주민들은 임시주거지 인스파월드, 모텔, 인천 등지의 자가 및 친인척 집에 숙소를 정했다. 피란주민들은 임시주거지 인스파월드 및 인근 모텔에 12월 18일까지 머물렀다. 11월 28일 현재 연평주민 1,263명이 인천 등지로 피란하여 연평도 잔류인원은 98명(주민 31명, 유관기관 67명)으로 보고되었다. 1차 임시주거지 인스파월드에서 철수한 12월 18일 인천 피란주민은 1,194명(연평 잔류인원 925명)이다. 양곡아파트로 이주하기 전까지 피란주민 대다수는 인천 등지의 자가 및 친인척 집에서 생활하였다.

12월 19일 2차 임시거주지인 양곡아파트로 연평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피란주민들 다수는 양곡아파트에서 지냈다. 12월 19일 피란주민 총 1,190명 중 859명이 양곡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연평주민 수는 2011년 2월 중순 연평 이주(입도)가 시작되면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 피란주민 수도 줄어들어 2월 16일 현재 피란주민은 782명(연평 잔류주민 579명)으로 나타났다.

### 구호물품 지원

포격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은 인천으로 피란한 주민들이 연평도로 입도할 때까지 집중되었다. 포격 당일과 그 다음 날인 2010년 11월 23일과 24일에만 연평도 현장에는 총 35,331점의 구호물품이 지원되었다. 인천으로 피란한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이 있었다. 인스파월드에 피란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구호물품 26,956점이 배부되었고, 양곡아파트로 임시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8,502점이 지원되었다. 학생들에게도 1,355점의 물품 지원이 있었다. 피란주민들이 연평도로 입도한 이후 연평도 현지에서 65,232점의 구호물품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 국민성금 모금

연평면 주민돕기 성금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에 따르면, 2011년 2월 8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1억4,000만원, 전국재해구호협회 36억4,800만원, 대



한적십자사 8억5,700만원 등 총 86억4,6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다.

이 가운데, 의류, 생필품 등 이미 주민들에게 지원된 물품과 임시조립주택 건축, 민간이 사망자 위로금 등으로 지출된 성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64억여원은 연평도 주민들과 옹진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모금기관별 성금배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 학교, 학생, 군부대에 지원되었다.

2011년 3월 31일 현재 모금기관별 모금 내역(2010.11.23.~2011.3.31.)은 총 88억3,960만원이다. 이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2억1,863만원, 전국재해구호협회 37억3,654만원, 대한적십자사 8억8,467만원을 모금하였다. 성금 모금액은 모금기관별로 집행되었다.

#### 국민성금 모금 및 사용액

모금액	사용액
8,839,850,000	8,839,850,000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경,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북한은 또 다시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개시했다. 포격사건은 유엔헌장 제2조, 정전협정 제12조, 남북불가침 기본합의서 제2조와 부속합의서 등을 정면 위배한 불법적 공격행위였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비록 1987년 KAL 폭파사건도 있었으나, 테러가 아닌 정규군의 공격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은 한국전쟁 이후에 발생된 초유의 사건이었다.

북한의 갑작스런 포격도발로 연평도에서 복무하던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민간인 4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밖에도 주택 12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의 가옥이 불탔으며, 연평도 전체 건물 924동 가운데 절반 가까운 421동이 피해를 입었다. 휴전 후 57년 만에 연평도 주민들은 어처구니없는 실전을 체험해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가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무력도발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생겨날 수 있음을 피로로 느낄 수 있었다.

북한이 해안포 공격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하고, ‘경계태세1급’(진돗개 하나)을 발령하는 동시에 오후 4시를 기해 서해 최점경지역인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에 대해서 주민대피 명령을 내렸다. 또

한 정보는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전격 방문하여 “아직도 북한이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볼 때 추가돌발이 예상되므로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상대에게는 이를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정부는 냉정하게 사태추이를 관찰하고, 북한이 더 이상 무모한 도발을 시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사태가 안정 단계로 진입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해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을 다짐하며,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에 대한 특별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2월 8일 서해5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은 총리 소속의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심의 확정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2011년 2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민들의 성금 모금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들 기관을 통해 포격당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총 88억3,960만원이 모금되었고, 모금액은 모금기관별로 피해주민의 위로 및 재할을 위해 집행되었다. 또한 현지 피해복구를 위한 국민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쇄도하였다. 포격 다음날인 11월 24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총 75건의 피해복구 지원활동 신청이 있었다. 이들 단체와 개인은 시설복구, 노력봉사, 의료봉사, 물품지원, 미용봉사, 배식봉사 등의 부문에 지원되었다.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연평도를 떠났던 주민들도 하나 둘 섬으로 돌아와 충격을 딛고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했다. 포격도발로 부서졌던 집들도 복구공사를 통해 새 주택으로 탈바꿈 되었으며, 유사 사태에 대비한 대피소들도 크게 확충되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안정을 되찾기 하였으나, 불안과 불면 증세를 보이는 주민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재정비했다. 그 결과 2011년 6월에는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 대응에 관한 법률인 「민방위기본법」 및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비에 관한 법률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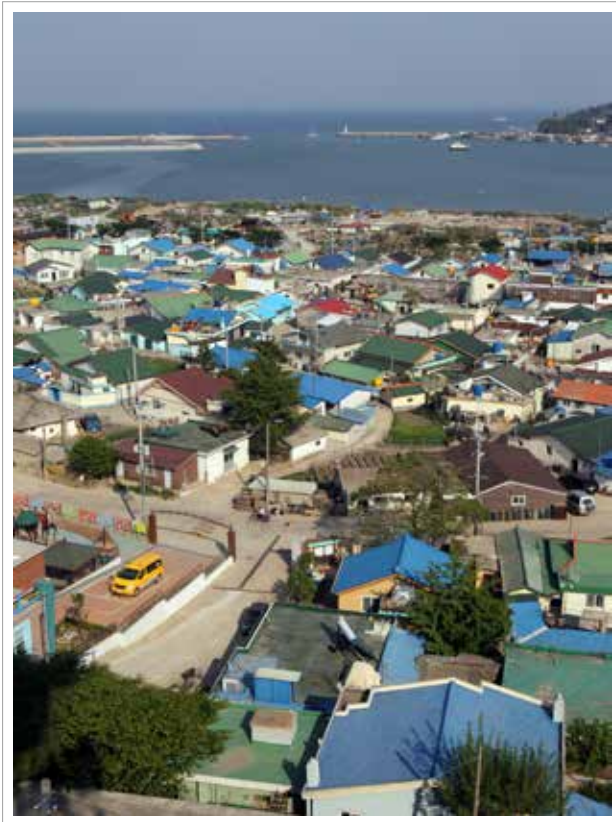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우리 군의 대응태세도 바뀌었다. 서북도서에 대한 작전지침이 달라지고 작전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해병대 사령부를 모체로 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서방사)를 창설하였으며, 백령도와 연평도에 화력을 증가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한미합동훈련 및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서해 해상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옹진군, 「연평도 포격사건 백서」 2012. 7. 9.



연평도 포격현장



평화로운 연평도

출처 : 인천광역시용진군

# IV

## 문화유적 탐방



---

백령도 문화유적 탐방을 마치고

---

백령도 문화탐방 기행문

---



## 백령도 문화유적 탐방을 마치고

● ● 광 인 화



9월 12일, 맑고 청명한 날씨가다. 우리 웅진문화원 회원 47명이 1박2일 일정으로 문화유적탐방을 떠나는 날이다. 이날 오전 7시 50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기 위해 우리 일행은 한 시간 전부터 터미널 대합실에 도착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우리가 타야할 하모니플라워호에 승선했다. 그 배는 정원이 544명이 탈 수 있는 큰 배인데도 주중 평일에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승객이 많았다. 이는 웅진군에서 여객운임 중 그 일부를 지원해주기에 관광객이 많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백령도는 남한(南韓)의 섬들 가운데 경도 상 위치가 가장 서쪽에 있는 섬으로 인천에서 직선거리로 약 180km나 된다. 북한의 황해도 장산곶에서는 불과 17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국토방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과 휴전선과 인접한 군사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백령도의 인구는 5,500여명이고 면적은 51.18km<sup>2</sup>이다. 단일 면적에 비

해 비경을 간직한 명승 외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많아 섬 전체가 귀중한 유산 물로 이루어져 있어 그야말로 하나의 무공해 관광의 보물섬이라 할 수 있다.

백령도 지명의 유래가 담긴 전설 역시 흥미롭다. 옛날 황해도 어느 마을에 글공부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한 선비가 살았다. 그는 그 고을 사또의 어여쁜 딸을 사랑했고 선비도 사또의 딸을 사모하고 있었다. 어느덧 장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된 두 사람은 사또에게 혼인 시켜 줄 것을 간구했지만 선비를 못마땅하게 여겨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계속 만나기에 사또는 자기 딸을 외딴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선비가 사또의 딸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찾을 길이 없어 고민 중인데 어느 날 백학이 꿈속에 나타나 흰 쪽지를 보여주며 그곳으로 가라고 했다 한다. 그 주소대로 장산곶에서 배를 타고 온 선비는 그녀와 감격스런 재회를 했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그곳이기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훗날 사람들은 이 섬을 ‘백학이 알려 주었다.’ 하여 <백학도>라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흰백(白)과 날개 령(翎)을 써서 백령도(白翎島)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첫째 날 정오경에 목적지인 용기포항에 도착했다. 해외여행 시 공항에 도착하면 여행사에서 손님을 마중 나오는 것처럼 이곳도 많은 사람이 피켓을 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인기 있는 여행지임을 느낄 수 있었다. 중식 후 진촌리 사곶해변(천연기념물 제391호)에 갔다. 전형적인 가을의 파란 하늘이 우리를 맞아준다. 사곶해변은 주로 석영으로 구성된 모래가 단단하게 다져진 고운 백사장으로 길이 2.8km의 천연해변이다. 우리가 타고 간 대형버스가 그 백사장을 달려도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듯 모래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1950년 6·25 전쟁 때에는 천연비행장으로 또는 유엔군 작전 전초기지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모래로 다져진 비행장은 이탈리아 나폴리와 더불어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의 경사가 없기에 여름에는 가족들과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일 것이다.

그 다음 해병 제6여단 관측소(807 OP)를 방문했다. 백령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라서 그런지 북녘의 산하를 조망하기 좋은 위치였다. 백령도 주변 지리가 표시된 커다란 안내판을 보며 이곳이 북방한계선(NLL)이 지나는 최남단 북측지역이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지역임을 실감했다. 해병대 당직 장교가 절도 있는 모습으로 브리핑을 해주는 모습을 보니 이곳에서 수고 하고 있는 군인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이 군인들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히 지내고 있지 않은가. 눈앞에는 ‘몽금포

타령'의 무대인 북한 장산곶이 훤히 보였다. 이북과 백령도 사이에 위치한 월래도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한다. 군부대 내에서의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었지만 지정된 장소에서는 단체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다음에 도착한 곳은 진촌리에 위치한 심청각이었다. 심청각은 심청전의 배경무대인 백령도를 알리기 위해, 심청이 몸을 던진 인당수와 연봉바위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였다. 심청각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심청이의 전설에 관한 판소리, 영화, 고서 등이 전시되어 있고 2층 전시실에는 백령도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2층 지도 모형이 있는 곳에서 백령도 문화관광해설사인 박찬교 선생의 해설을 들었다. 이번 문화유적탐방팀에는 웅진군 문화관광해설사 8명이 동행했다.

야외에 세워진 심청동상 앞에서도 많은 사람이 머물렀다. 심청이의 효심을 전 국민에게 선양하기 위한 것이리라. 이곳에서도 북한이 잘 보여 고향을 떠나 망향의 아픔을 가진 실향민의 향수를 달래주는 장소이기도 할 것이다. 나의 어머니의 고향인 황해도 연백군 호남면 읍동리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1년에 한번 씩 고향사람들의 모임에 나가신다.

천안함 추모공원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46용사 위령탑이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역에서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천안함이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되었다. 천안함은 1989년 건조된 1,200톤급 초계함으로 피격 당일, 서해 북방한계선 근해에서 정상적인 해상경비와 어로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우리는 김경협 웅진문화원사무국장의 인도에 따라 준비해 간 꽃바구니로 헌화를 하고 묵념도 했다. 추모탑은 주탑, 보조탑,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탑은 해양수호 정신을, 보조탑은 전사자의 부조를, 주탑 하단부 중앙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 마련되어 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리라. 피격사건이 일어났던 그 바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첫날 마지막으로 두무진 유람선을 타기 위해 포구로 향했다. 두무진(명승 8호)은 백령도 비경의 백미로 선대암, 코끼리바위, 장군봉 등의 기암절벽이 질푸른 바다 위에 독특한 모양으로 도열해 있어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대기는 《백령도지》에서 “이 세상의 것이라 할 수 없는 두무진의 경치는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극찬한 바 있다. 두무진은 원래 뽕죽한 바위들이 마치 머리털같이 생겼다고 하



여 두모진으로 불리다가 후에 장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두무진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백령도 북서쪽 약 4km의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높이 50~100m의 거대한 절벽들이 정말 위풍당당한 장군들 같다. 바위 위에는 갈매기는 물론 물 가마우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물범바위 주변에서도 천연기념물 331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점박이물범 여러 마리가 헤엄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점박이 물범은 2014년 인천아시아계 임의 마스코트였다. 선장은 돌아오는 길에 5분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우리는 두무진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었다. 배에서 내려 두무진 경관을 더 다양하게 보기 위해 관람로로 향했다. 전망대에 오르니 눈앞에 웅장한 선대바위가 나타났다. 아래로 내려가면 해안산책로로 형제바위 가까이 갈 수도 있다.

첫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식사 시간에는 각 면에서 온 회원들이 앞으로 나와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영흥도 회원들의 기타와 플루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흥겨운 친교의 시간도 있었다.

이튿날 오전, 중화동교회에 갔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19세기의 바깥으로 밀려든 선교의 물결과 더불어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로 1896년 복음이 백령도에 전달되었고 조선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옆에는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백령 기독교 역사관이 있다. 백령 기독교 역사관은 3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초창기 중화동 교회 모습, 최초 백령도 복음 전파 장면, 서양 선교사 성경 전달 재현, 토마스 선교사 방문 모습, 언더우드 선교사의 세례 집례 등을 전시하여 100년이 넘는 한국기독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선교현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교회 앞에 위치한 연화리 무궁화(천연기념물 521호)는 높이가 6.3m로 현재 알려진 무궁화나무 중 가장 크며 꽃이 순수 재래종의 원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잘 관리하여 아름다운 멋을 발산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동 중에 차창 밖으로 이 지역 특산물인 다시마를 펼쳐 말리는 모습, 까나리액젓을 담근 큰 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에는 용트림 바위에 도착했다. 용이 하늘로 승천 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바위 스스로 하늘을 향해 나선처럼 꼬며 오르는 형상이 매우 인상적이다. 용트림바위는 가마우지와 갈매기의 서식지이기도 해서 운이 좋으면 이곳에서 물범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계단으로 조금 올라간 전망대에서는 대청도가 잘 보였다.

대청도 전체의 모습은 물론 전에 가본 ‘옥죽동 사구’도 잘 보여서 신기했다.

용트림 바위를 떠나 오군포의 콩돌 해변(천연기념물 제392호)에 왔다. 우리나라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자갈들이 해안을 덮고 있는데, 남쪽으로 1km 정도에 형성된 독특한 해안으로 어제 갔던 사곶해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콩 알 만한 오색빛깔의 크고 작은 돌맹이가 형형색색을 이루어 해안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다. 마치 큰 콩을 넣어놓은 듯한 이곳에서 우리는 맨발로 바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발 지압마사지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모처럼 여유가 있어서 잠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일정에는 썩어있지 않았으나 사곶해변 우수조망명소에도 갔다. 한국관광공사 지정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라는 안내판을 뒤로하고 불과 5분쯤 걸었을 뿐인데 사곶 해변을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전망대가 나타났다.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앞 다투어 사진을 찍고 있을 무렵이다. 때맞춰 영흥도 회원 한분이 하모니카를 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곧 돌아가야 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아침 이슬’노래를 함께 부르는 동안 마음이 하나가 됐다.

나는 2012년도에 백령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지만 웅진문화원 회원과 함께한 이번 탐방은 무척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마지막 일정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비’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12시 50분에 출항하는 인천행 배를 탔다. 내년에도 문화유적탐방의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함께 하고 싶다.

## 백령도 문화탐방 기행문

● ● 이 순 자

한달전 백령도로 문화탐방을 간다고 들뜬 마음으로 연안부두에 도착하니 안개주의보로 아쉽게 무산되고..... 마침내 9월 12일 백령도로 출발하였다.

인천에서 배로 228km를 달려 도착하니 날씨도 우리를 반기듯 화창한 가을 날씨 같이 상쾌했다.

분단의 역사를 증명하듯 배에도 귀대하는 군인들이 역시 많았다.

첫 코스는 우리를 태운 버스가 사곶 천연 비행장 해변을 마구 달리는 것이 아닌가! 신기하게도 해변은 바퀴 자국만 생길 뿐 빠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내려서 사진도 찍고 손가락으로 눌러보기도 하고 사곶 천연 비행장은 세계에서 두 곳 이탈리아 나폴리와 백령도라고 하는데 천연기념물 제 391호로 지정되어 있다.

1960년대까지 비행장 이착륙이 가능했다고 한다.

다음 코스는 심청각으로 향했다. 심봉사의 딸로 눈 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자 인당수에 몸을 던져 연꽃으로 환생하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는 효녀 심청 전설이 효를 중요시 하는데 귀감이 되는 곳이다.

다음 코스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우리 문화원에서 준비해 간 국화바구니를 헌화하고 묵념하며 젊음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잠시나마 고개 숙여 명복을 빈다.



서울-인천보다 더 가까운 이북이 선 하나로 분단된 현실이 가슴 아프다.

다음 코스는 명승 제8호 두무진으로 향했다. 우리는 조그만 배를 타고 외곽에서 바라보는 바위는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바다에서 물범 가족이 우리에게 인사 하듯 연신 자맥질을 한다.

바위 꼭대기 난간에 검은 가마우지를 보니 일본 여행 때 본 가마우지 낚시가 떠올랐다. 목에 줄을 매어 물속에 넣으면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고 나오면 어부는 가마

우지 목에서 물고기를 빼고는 또 바다에 던지기를 반복한다. 바다에 던지는 모습에는 웃음이 낫지만 반복하는 모습에는 마음이 아팠다.

용트림 바위는 마치 두 마리의 용이 몸을 비틀며 서로 승천하려는 듯 몸부림치는 듯 했다. 바위가 어떻게 저런 모습일까? 코끼리 바위처럼 생긴 코끼리 바위 비경을 배경 삼아 사진 찍기 바쁘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귀한 시간을 만끽하며 저녁 회가 기다리는 식당에 도착하였다.

식당에 도착하니 회원 두 분이 기타와 플루트로 일행을 맞이하였다. 저녁식사가 시작되고 각 면 대표 소개와 노래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어느 유명 콘서트에 지지 않는 금상첨화였다.

다음날 역사 깊은 1900년 일찍이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화동 교회에서 일곱 신자에게 세례를 주면서 기독교 전파가 시작된 곳이다.

이어 천연기념물 제 392호 콩돌 해안에 도착하니 샹각샹각 파도치는 바다 속을 맨발로 뛰어 들어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너무도 시원했고 발가락 사이로 작은 콩돌이 간지럼을 태우며 같이 놀자고 반긴다.

어느새 마음은 동심으로 돌아가 소리도 쳐보고 싶었지만 마음뿐.....

작은콩, 녹두콩, 쥐눈이콩, 팥, 노란콩, 누비, 사과이어, 흑진주 등 갖가지 보석을 해변에 온통 뿌려 놓은 것 같았다.

아! 아름다운 콩돌해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백령도에 와서 모밀냉면은 필수!

물냉, 비냉, 반냉은 선택!

제일 좋아하는 냉면은 새 이름표를 단 반냉을 시켰다.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배를 타고 아쉽지만 출발하기 위해 용기포항으로 출발

다시보자 백령도!

가깝고도 먼 그 곳 날씨마저 환영해 준 백령도 문화유적탐방을 마치며 돌아왔다.

이번 문화탐방을 위해 애써 주신 태동철 문화원장님, 김경협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1회



대상 변동욱 - 관광유람선에서 바라본 두무진의 저녁노을



금상 박춘규 - 굴업도 은하수



은상 임순자 - 두무진의 구름



은상 현종훈 - 백령도 물범



동상 류신우 - 소사나무 군락지



동상 신승희 - 풀등에서 갖는 행복



동상 노희완 - 굴업도 오솔길

2회



대상 이상범 - 모도





최우수상 김인호 - 일출



우수상 강경희 - 영흥도의 새벽출조



우수상 기현호 - 대청도 능여 해변



우수상 박춘규 -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



대상 임순자 - 두무진 저녁놀이



금상 배동수 - 소청도 분바위



은상 김주영 - 여신



은상 정효원 - 두무진 전경



동상 임영록 - 굴업도 백패킹



동상 김범용 - 무공해 갯벌



동상 최혜순 - 연도교

V

# 용진섬마을 학교자랑



---

우리학교를 소개합니다

---

꼬마예술가의 그림

---

우리학교의 자랑거리

---



## 아름다운 작은 학교 신도분교를 소개합니다.

● ● 광 수 정(공항초 신도분교 교사)



“어머, 선생님 정말 좋은 곳 오셨네요.” 처음 신도를 발령받고 여러 번 들은 소리이다. 좋은 곳?? 이곳이?? 약간은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새학기 준비로 이것저것 분주히 지나가느라 잊었던 말이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학교에서의 생활을 지나보니 이곳에서 정년까지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다시금 처음 들었던 좋은 곳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왜 이곳이 좋은지 자랑 좀 해 볼까 한다.

먼저, 신도분교는 아이들이 밝고 순수하며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일반 도심지 학교 아이들의 한 반도 안 되는 인원이 전교생으로 있는 이곳은 1학년부터 아니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한 가족같이 지낸다. 학교폭력으로 언론이 시끄러운 요즘 이곳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나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진다. 동생들은 언니들을 따르며 언니들은 동생들을 친동생처럼 도와주고 놀아준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교사인 나도 반성하게 되며 서로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둘째, ‘공항에서 배워서 세계로’라는 본교(공항초)의 목표처럼 우리 신도분교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력이나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인정받은 우수한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아이들에게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시간에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공항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기타, 우쿨렐레 수업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는 자랑스런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웅진군에서 지원해주는 영어수업은 외국인을 만나도 떨지 않는 당당함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 교육에 흥미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에 충분하다. 그



리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수업은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눈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셋째,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신도분교도 빼 놓을 수 없는 자랑이다.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한 학기에 1번씩 노인정 공연으로 통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가족같이 지내는 것을 이웃으로 넓혀 지역 어른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 또한, 함께하는 체육대회는 신나서 매년이 기다려질 만큼 행복한 행사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자신의 1년간의 성과를 펼치는 방과 후 페스티발은 TV방송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모습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교사의 열정이 끊이지 않는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 신도분교에서 행복한 아이들의 꿈이 자라기를 소망한다.

## 자주 달빛 환상의 섬 자월도의 사랑하며 꿈꾸는 작은 배움터 자월분교

### ● ● 인천용현남초 자월분교장



인천항에서 쾌속선으로 50분 떨어진 작은 섬마을 자월도에는 유치원 3명, 초등학교 8명이 꿈을 키워가는 자월분교가 있다. 자월분교는 면사무소, 보건소, 소방서, 농협, 마을회관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자월 1리에 있다. 현재 1학년 2명, 2학년

1명, 3학년 2명, 5학년 1명, 6학년 2명으로 5개 학년 총 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전교생 11명 중 5명이 한 집의 남매지간이다. 자월분교 교육가족은 유치원 선생님과 유치원 방과 후 선생님, 3명의 초등학교 선생님, 영어 방과 후 선생님 그리고 이 지역의 토박이로 마을과 학교를 사랑하시는 시설 주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 섬마을 학교는 도시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느끼지 못할 아름다움과 좋은 점이 참 많다. 자월분교의 가장 큰 장점은 도시의 학교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명이라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황을 살펴보면 개별화 교육을 통하여 완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곳 자월도에서는 학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직 학교(공교육)와 마을의 힘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 그리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성을 키우고 있다.

자월분교 선생님들은 책무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컴퓨터 코딩교육, 드론 교육, 창의

체험활동, 뉴스포츠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자연 환경과 삶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자월분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곳 자월분교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펼치고 있기에 학생들은 배움이 곧 즐거움이다.



자월분교는 학교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지원이 우수하다. 섬마을의 작은 학교지만 컴퓨터실, 도서실, 다목적실(과학실), 넓은 운동장은 물론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바닷가와 넓은 서해 바다를 둘러볼 수 있는 국사봉 등 자연 환경이 자월분교 학생들의 배움터가 된다. 또한 웅진군 및 자월면사무소와 지역 사회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모든 교육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10월 초에 실시했던 현장체험학습에서는 경북궁견학, 키자니아 직업체험, 한옥마을 숙박체험, 고풍스러운 한식 뷔페의 식사, 즐거운 워터파크에서의 수상안전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자월분교 아이들은 모두가 친구이며 형제이다.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월도를 가득 채운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조차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가득하다. 고학년 아이들은 저학년 동생들을 돌보고 함께

놀아주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저학년 아이들은 고학년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존중에 대한 마음을 가꾼다.

자월도의 삶이 곧 교육이다. 자월도의 시계는 도시의 시계보다는 느다. 말 그대로 슬로우 시티이다. 하지만 자연의 변화를 삶 속에서 느끼고 삶 속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있다. 텃밭 가꾸기, 갯벌 탐험하기, 해수욕 즐기기, 모래썰매타기, 대추 따기, 잣 따기 등 삶과 놀이와 교육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멋진 곳 이다.

자월분교 아이들은 오늘 하루도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마을 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바른 인성으로 창의성과 지성을 겸비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 우리는 자월분교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꿈꾸며 소중한 인연을 간직하고 있다.

두 번 다시 느끼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에...



## 승봉분교

● ● 박 준 원(인천주안남초 승봉분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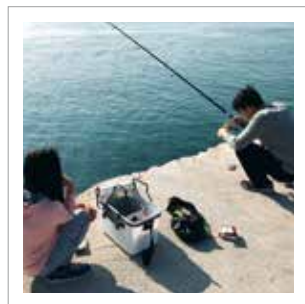


사방이 논으로 되어있는 한 가운데 세워진 우리학교는 진짜 자연과 함께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텃밭에서 과학시간에 사용하고 남은 참외씨앗을 심어 자라는 과정을 보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의 창의체험활동을 통해

갯벌에 가서 조개도 캐보고 낚시도 하는 등 도시에서는 쉽게 체험하기 힘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전교생이 다 타도 남는 그네와 시소! 전교생이 뛰어 놀기에 과하게 넓은 운동장등 학교 시설에 대한 여건이 너무도 좋습니다. 토요일엔 피아노와 주산 그리고 요리까지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도시의 방과 후 활동이 부럽지 않습니다.

비록 학교의 학생 수가 두 명뿐인 작은 학교이지만 여러 가지 활동과 재미있는 선생님 덕분에 적막함이 전혀 없는 웃음이 넘치는 학교입니다.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우리 학교의 좋은 점을 많이 알려주어 다른 친구들이 많이 전학와서 더욱 즐겁고 떠들썩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봉도와 고양이

● ● 최 명 진(인천삼목초 장봉분교 교사)

2년 전부터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에 개만 키우던 나는 처음에는 고양이 키우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와는 다른 고양이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집사’가 되었다.

호기심. 정말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다. 그렇게 나도 호기심을 잔뜩 가진 채 6개월 전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로 발령을 받았다. 그동안 선배들을 통해 섬에서의 학교생활은 대략 어떠한지 알고만 있었다. 그러나 정작 발령을 받고나니 새로운 궁금증이 가득 생겼다. 다시 15년전 햇병아리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 중 나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한 것은 전원생활 아니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다. 장봉도의 장봉은 긴장(長)에 봉우리봉(峰)이다. 뜻 그대로 섬이 길고 봉우리들이 솟아 있다. 섬 북쪽지역에 옛날 봉수대도 복원되어 있다. 섬 전체모습은 “ㄴ”자 형태이며 긴 산줄기가 섬 전체에 이어져 있다. 그래서 트래킹 코스가 잘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백패킹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아침 또는 퇴근 후 학교 주변 코스를 갔다 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식생들, 자연풍광은 그동안 도시생활만 했던 나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밀물썰물의 차이, 그에 따른 소라잡이도 소소한 재미를 가져다주었다. 평소 재배에 관심이 없었지만 학교 텃밭에 나오는 각종 작물을 식사 때 먹는 것도 도시 생활 때와는 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이러한 호기심을 갖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6개월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는 네 마리의 새끼 고양이에게 끼니때 마다 사료를 주고 있다.

두려움. 새끼 고양이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지난 몇 년 나도 사람들이 두려웠다.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같이 지내는 선생님들도 언젠가부터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 행동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지냈다. 예전에는 교사와 학생이 같이 배우는 교학상장의 관계라고 생각하며 학교생활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학원 수강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그와 더불어 교사로서의 사명감, 자존감 등은 점점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섬에 왔다. 3명의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책

상을 맞대면서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사람들과의 거리감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학교 밖 생활도 물어보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도 다 들어보면서 즐겁게 가르친다. 분교에는 총 7명의 교직원이 있다. 전에 한 학년에 12명의 선생님들과 같이 한적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 하나 짬이야, 내가 안하면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하나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묻고 배우며 장봉분교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내고자 한다. 새끼 고양이가 나타난 지 3개월 드디어 머리를 긁어줘도 도망가지 않는다. 고양이도 나도 점점 이 섬과 가까워지는 것 같다.

새끼고양이 네 마리는 이제 겨울이라는 시련을 앞두고 있다. 나도 이제 겨울을 보내면 40대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호기심도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두려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섬이 새로운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두려움을 가라앉혀 줄 거라 생각한다. 내년 봄이 되면 새끼들이 학교 밖을 벗어나 자신의 영역을 만들 것이다. 나도 과거의 불안함을 잊고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것이다.

## 섬마을 선생님 이야기(대청 눈꽃 아이를 찾아서)

● ● 천 경 범(대청중 교사)

2016년 2월 28일은 07시 50분 하모니플라워에 몸을 신고 선배 선생님의 안내로 대청도 선착장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이다. 푸른 바다와 소나무가 울창한 아름다운 대청도를 처음 본 날 설레임에 심장이 두근 반 세근 반 했던 순간이 생생한 데,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같이 발령을 받은 동료교사들은 1년 혹은 2년이 지나 저마다의 사정으로 섬을 떠났다.

대청도 생활 반년이 되어갈 때 즈음, 초등학교 6학년 막내아들의 의사를 묻고 대청 초등학교로 2016년 5월 19일 전학을 시켰다. 온통 여자친구만 있고 남자친구가 없던 같은 반 인성이는 아들 선우의 전학을 너무나 반가워했다. 6학년 학급에도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다. 선우는 주말에 성당도 인성이와 함께 가고 인성이 집에서 놀다가 해질녘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처음 선착장에 도착해서 오징어 미끼를 끼고 삼발이에 앉아 낚시를 했던 추억은 잊을 수 없다. 그 후로 아들은 삼발이 밑이 무서워서 더 이상 낚시는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주말이면 골뱅이, 맛 조개 캐기, 고사리 꺾기, 하수오 캐기, 산딸기 따기, 고로쇠 채취를 함께 하며 자연과 더불어 지냈다. 집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늘어났다. 인천에 있으면 대화가 별로 없던 부자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다. 아침에 인간극장을 함께 보고 같이 등교하며 이별의 짧은 미소를 보내고 묵묵히 걸어가는 선우는 내가 올려다볼 정도로 키가 훌쩍 커 버렸다. 아들과 1년 반 이상 살면서 공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가끔 “아들, 무엇을 하고 싶니?, 아빠하고 테니스 하지 않을래.”가 전부였다. 중1때는 도서관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고 밤8시 30분에 와서 11시에 잠이 들었다. 중1을 마치고 중2로 올라갈 때쯤 아들의 의사를 물었다. “선우야, 중2 마치고 아빠와 함께 인천에 나갈래, 아니면 인천에 나가서 생활할래?”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빠 중2부터는 인천에 나가서 생활할래요. 이제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아들이 내게 준 행복은 잊을 수 없다. 아들에게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기 위해 일찍 일어나 우럭을 잡아서 회를 떠주고, 농어를 잡아 매운탕도 끓여주고, 고등어를 잡아 냉동시켜 아침마다 3개씩 구워서 먹이고, 닭장을 지어 닭을 길러 매일 신선한



계란으로 아침을 차렸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아들이 떠난 뒤에 깨달았다. 아직 사춘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는데 아들은 관사에서 같이 살 때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한 적이 없고, 지금도 내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야 한다. 서운하기도 하지만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고 있으니 대견스럽다.

우리 대청도 아이들은 주말마다 인천에 나가려고 애를 쓴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목마름은 CU가기, 맛있는 거 먹기, 게임하기, 영화보기와 같은 일반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화적인 혜택에 대한 목마름이다. 주말에 아름다운 대청도를 품에 안기 위해 활동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거의 명절이나 큰 일이 아니면 이곳에 오지 않는다. 졸업생을 배출한 지 꽤 오랜 역사를 지닌 대청중고등학교가 졸업생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잠자고 있는 의식을 깨우는 것이다. 능력을 있되 노력하지 않는 아이들, 자신의 꿈을 찾아 고민하지 않는 아이들, 소심한 것에 크게 화를 내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눈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열정을 갖고 호기심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아 주고 싶다. 학교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다가서지 않는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 슬프다. 모든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눈 속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 둘 씩 깨워 삼각산 정상에 핀 눈꽃처럼 새로운 생명과 의지를 심어주고 이곳을 떠나고 싶다.

## 하나의 씨앗이 꽃을 피우기까지

- 부제: 미래를 이끌어내는 연평의 힘

● ● 이 효 원(연평중고 교사)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 연평 바다에 어허얼싸 돈바람 분다”

누구나 추석 즈음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민요의 가사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연평 바다’이다. 연평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기어장으로, 돈 바람이 불 정도로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섬마을이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첫 발령지로 ‘연평중고등학교’를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연평도? 위험하지 않아?”

“요새는 그래도 북한하고 관계가 원만하니까 별 탈 없을 거야!”

그렇다. 현재 우리의 인식 속 연평도는 2010년에 머물러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해병대 기지와 민간에는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영문을 몰랐던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대피하여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 역시도 텔레비전으로 보도되는 연평도의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난다. 이 포격으로 인해 우리 해병대는 두 명의 전아를 잃었고, 민간인도 두 명이나 사망하였다.

8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연평도는 여전히 당시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다. 안보교육관을 세워 포격을 맞은 집을 전시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생생히 알려주는 영상과 홀로그램을 재생하고 있다. 하지만 연평도는 과거에 고여 있지만은 않았다. 연평도는 당시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연평중고등학교, 화합의 씨앗을 뿌리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연평도 포격 당시 유·초등학생이었다. 한 학생은 당시를 회상하며, 너무 어렸던 때라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분주하게 뛰었던 기억이 난다고 이야기하였다. 현재 중고등학생이 된 당시 유·초등학생들은 포격 사건을 겪으면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나 적대감을 갖지 않았고, 역설적으로 북한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왜 우리에게 포격을 해야만 했을까?’에서 시작하여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라는 막연한 질문,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라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까지.

학생들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북한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와 한민족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북한을 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화합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다. 학생들은 화합을 통해 제 2의 포격 사건이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이러한 학생들의 바람은 점점 커져 ‘통일 10리’라는 동아리 조직으로 작은 싹을 틔웠다. 그리고 통일의 꽃을 피우기 위한 우리 학생들의 정성이 시작되었다.

## 북한의 음식을 맛보다.



더위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5월 말이었다. 더위를 식히기에 더없이 좋은 것은 시원한 냉면 국물 한 그릇이다. 연평중고등학교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냉면 시식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냉면은 남한에서 대중화된 함흥냉면이다. 평양냉면은 비교적 삼삼한 맛을 내는 냉면으로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종종 맛이 없다고 평한다고 한다. 하지만 맛을 알게 된 사람은 평양냉면만 찾는다는 말도 있다. 소문만 무성한 이 평양냉면을 모든 학생

들이 맛볼 수 있게끔 하여 북한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고, 북한과의 식생활 장벽을 낮추고 싶었다는 것이 이 행사를 개최한 학생들의 말이다.

이 행사에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참여하였고, 성공리에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시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깔끔한 국물 맛을 칭찬하였고, 직접 평양에서 먹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하며 하루 빨리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어보고 싶다는 시식평을 전하였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남한의 작은 섬에서 일어난, 남북 간 음식 교류의 시작이었다.

### 통일 인식을 나누다.

비장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는 연평 중고등학생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였다. 모든 찬반양론의 토의참여자들은 통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말하였고, 청중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토론의 열기는 6월의 더위보다도 뜨거웠다. 통일동아리가 학부모 동아리와 함께 개최한 ‘통일 토론 행사’는 학생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중학교 학생들은 ‘통일은 필요하다.’라는 논제로, 고등학교 학생들은 ‘통일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였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이어갔고 참신한 방안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토론과 토의를 지켜보던 한 학생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통일에도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 토론에 찬성 측 토론자로 참여한 학생은 앞으로 자신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찾아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토론의 우승팀은 단 한 팀이었다. 하지만 참여한 모든 학생이 통일을 이끌 주역이라는 점에서 모든 학생은 미래의 선도자였다.



### 북한이탈주민과 마주하다.

학생들의 적극적 동아리 활동에 발맞추어,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도 이어졌다. 통일 계기교육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듣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

다. 여러 북한 주민들이 힘겹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브라운관 속 북한의 화려한 모습은 대부분 평양 주민의 삶이라는 것 등,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 삶을 알아갔다. 더불어 북한 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는 주로 ‘가난’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없이 목마른 것들이었다.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생생한 체험을 전해 들으며 북한이란 나라가 참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루 빨리 북한과 통일을 이뤄내, 목숨을 건 북한 이탈을 막고 이산가족끼리 다시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들을 하는 모습이었다.

### 남북한 전역이 비무장지대가 되길 소망하며…….



남한의 마지막 역, 북한으로 가는 첫 번째 역, 그리고 언젠가는 한반도의 중앙역이 될 도라산 역을 넘어 통일 동아리 학생들은 통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다. 이미 북한과 가까이에서 북한 섬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연평에 거주하는 친구들이었지만, 망원경

으로 북한 내륙을 바라보며 감탄을 연발했다. 조만간 통일이 이뤄져 한 명은 저 곳에

서 있고, 한 명은 여기서 망원경을 통해 바라보며 꼭 통화를 해 보자고 약속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보다도 한 발 더 앞서 있었다. 외국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에서 갖고 닦은 영어 실력을 총동원하여 관광을 온 외국인들을 인터뷰한 것이다. 직접 분단을 겪어보지 못한 외국인들은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남북 간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현 상황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외국의 시선까지 고려한 학생들의 넓은 사고의 폭에 놀라우면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학생들의 모습이 새삼 대견하였다.

### 통일의 꽃이 피길 기다리며.

누구나 한 번쯤 씨앗을 심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기까지의 시간은 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겁의 시간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 화분을 보살피면 언젠가 꽃은 반드시 핀다는 것이다.

남북 간 갈등과 불화의 상징이었던 연평도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화합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통일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북한의 식생활 이해, 통일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인식 개선, 나아가 타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파악까지 단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자신이 뿌린 씨앗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연평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성과 노력이었다. 이러한 정성과 노력 끝에는 학생들이 바라는 통일의 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분명 포격 사건을 겪은 친구들이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자신만의 시각과 자신만의 방법으로 북한에 손을 내밀며 다가갔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연평 포격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극복하여 먼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이러한 힘과, 이 힘을 기반에 둔 정성과 노력은 통일의 꽃이 필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텔레비전에서 이러한 민요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 연평 바다에 어허얼싸 통일바람 분다”

## 갑자기 섬마을 선생님이 된 교사의 이야기

● ● 최 연 재(백령고 교사)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꿈도 없이 방황하던 나에게 따끔한 꾸중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나를 펄펄 올렸던 선생님이 계셨다. 그날 이후로 꿈이 없던 내게도 꿈이 생겼다. ‘나도 그 선생님처럼 학생들의 마음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마음을 다잡아 공부를 시작했고 사범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줄어드는 교사 티오에 불안해하면서도 ‘학생들의 마음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라는 꿈 하나만 가지고 3년 동안 울고 웃으며 치열하게 노량진에서 공부했다. 3년 후, 정말 거짓말처럼 합격이 찾아왔다. ‘이제 나도 꽃길만 걸으면 되겠구나. 내 첫 발령지는 어디일까..’ 감격스러워하며 인사발령표를 보았다.

‘백령고등학교’

백령도? 나는 백령도라는 섬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인구는 몇 명인지 심지어 그곳에 학교가 있는 줄도 몰랐다. 며칠 동안 펄펄 울었다. 낯선 곳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고 한 번도 가족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나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평생을 도심에서 살았고 도심 속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나에게 섬마을은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심지어 그 곳 학생들은 어떤 모습인지 감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기우였다는 사실을 백령도에 들어 오자마자 깨달았다.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4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곳, 늙은 시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도 불리는 백령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아름다운 절벽이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신규교사를 맞이하러 항구에 나와 있었다. 아이들을 처음 본 날이기 때문에 2월 27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학생들이 신규 선생님들을 맞이하러 학교 가는 날도 아닌데 밖에 나왔다니.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붙임성이 좋고 착한 친구들이라면 함께 잘 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역시 예상대로 10월이 되어 발령 받는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는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권이 있다. 첫째로 학생들과의 아주 깊은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중, 고등학교 합쳐서 170명이 채 안되는 학교다 보니

전교생을 다 안다. 물론 학생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안다는 것은 축복이다.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와 얼굴 표정만 보아도, ‘오늘 ○○이는 기분이 좋은가보네.’, ‘오늘 \*\*이는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 학생들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할 것 없이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온다. 난느 짧은 경험이지만 때로는 누나나 언니처럼, 때로는 세상 다 산 어른인 척하며 상담을 한다. 아주 상담 기술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 털어놓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는 학생들을 보면 뿌듯함이 느껴진다. 큰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소소한 행복이다.

둘째로 학생들과의 특별한 체험이 가능하다. 나는 ‘내일은 백령왕’이라는 동아리의 지도교사를 맡게 되었다. 이 동아리는 백령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백령도를 탐색하며 백령도에 대한 모든 걸 아는 왕이 되고자 하는 동아리이다. 나도 백령왕이 되고 싶어 학생들이 지도교사를 부탁했을 때 흔쾌히 승낙했다. 이 동아리에서는 학생들과 주말마다 백령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탐색하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낚시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장소에 대해서는 신이 나서 나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낚시를 할 때에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항상 내가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다가 학생들이 나한테 가르쳐 줄 때는 느낌이 묘하기도 하였지만 즐거웠던 경험이었다. 또한 학급 단합대회도 한 학기에 2번 정도 열어서 같이 해안가에서 고기를 구워먹기도 했다. 고기를 구울 때는 번개탄을 가져와서 불 때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이다. 본인들이 잘 아는 것을 할 때는 아주 신나하면서 어른스러운 척 리드하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학생들과 별자리 특강이 열리는 날에는 밤늦게 학생들과 별자리를 보며 별자리에 담긴 이야기를 들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별자리에 대해서 배워본 것도 처음이었다. 이 모든 게 백령도여서 가능했던 것 같다.

셋째로 동료교사들과의 가족 같은 분위기이다. 모든 교사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관사에서 생활하다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애뜻한 느낌이 있다. 일과가 끝나도 딱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도 함께 먹으며 친목을 모도하기도 하고 기운을 북돋아준다. 학교 생활 중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달려



가서 서로 도와주겠다고 한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하루는 내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모두가 걱정해주기도 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었던 것이다. 또 다음 날 다 나았는 데도 복도에서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내 안부를 물어주었다. 그 외에도 내가 개인적인 일로 우울해하고 있으면 동료 교사들이 장난스럽게 노래도 불러주고 속 깊은 이야기도 들어주었다.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고들 하는데 백령중고에서 만난 선생님들과는 평생을 가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인연들이다. 이러한 동료교사에 대한 끈끈한 믿음이 힘이 되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 같다.

아직 나의 꿈이었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었다고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미안하게도 내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었다기보다는 백령중고가 내 평생의 기억에 남는 학교가 될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의 가슴 깊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다른 친구들이 나를 보면 항상 ‘섬생님’이라고 한다. ‘섬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나는 섬생님이 좋다. 도시였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한다. 도시였다면 절대 느낄 수 없었던 다채로운 감정들을 느낀다. 그 속에서 나 또한 점점 성장하는 것 같다. 벌써 10월이다.

## 마치 포물선 같은 삶

● ● 임 병 미(영흥초 교사)

포물선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의 삶  
 태어나서 성장하고 다시 늙어가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날들,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반기며  
 희노애락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으로  
 곧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으로 한치 앞을 모르며 가는 삶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다듬어져가는 삶  
 포물선 중간 즈음에 선 지금  
 잠시 돌아본다  
 수많은 지우고 싶은 일들  
 후회가 더 많은 삶  
 이제 앞을 본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닌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단어들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리 하지 못했던 삶을 그려보며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신중히 그러나 확실하며 자신 있게 그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가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겸손의 삶을, 내적으로의 풍성한 삶을 위해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포물선의 끝점을 바라보며 한 발 크게 떼어본다

삶의 속도가 점점 빠르다지만 적절한 멈춤과 함께  
주의도 돌아보며  
하늘도 올려다보며  
조급함 없이 여유로운 삶을 그리며 가보련다  
웃으며 반겨주었던 많은 사람은 아쉬움에, 슬픔에 울고  
세상에 나오며 혼자 울었던 나는 이제 웃으며 안녕하는 그날을 그리며  
후회없이 살았노라  
즐거웠노라  
잘 있어라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웃으며 인사하는 그 날을 그리며  
이제 남은 반쪽의 포물선의 끝점을 향해 서서히 가본다.

## 내고장 자랑 그림그리기

● ● 4학년 김현지(인천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장)



##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 4학년 김소현(인천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장)



## 내고장 자랑 그림그리기

소이작도 손가락 바위 풍경 그리기

● ● 6학년 김현서(인천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장)



## 8개월차 섬마을선생님이 바라 본 북포초등학교

● ● 서 승 현(북포초 교사)

백령도에 들어 온 지 어느덧 8개월 차이다. 짧은 경험으로 백령도나 근무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들어오기 전까지 그동안 몰랐던 이곳의 모습과 반전의 매력을 함께 나누고 싶다.

백령도에 위치한 북포초등학교. 이름만 들으면 섬의 작은 학교쯤으로 생각할 수 있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본인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섬마을 선생님이네.”라며 이전에 있던 도시학교와는 다른 학교생활을 예상하며 시골의 복식학급(2개 이상의 학년이 통합된)의 모습을 떠올리는 듯한 말을 건넸다. 나도 이곳에 오기 전, 어선이 왕래하는 포구가 보이는 섬 학교를 상상했었다.

그러나 백령도라는 섬이 보통 섬이 갖는 특징이 없는 곳이다. 일단, 해산물이 많이 없다. 어업보다 농업과 상업 비중이 높아 수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어촌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섬과 다르게 물자가 넉넉하고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섬 생활의 불편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 곳이다. 이런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이유는 섬의 규모가 크고 군인들과 관광객들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와 관광객들이 몰리는 포구 주변으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잘 갖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섬에서 바다를 보기가 힘들다. 섬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며 섬의 가장자리가 아닌 이상 바다를 볼 수가 없다.

백령도 뿐 아니라 북포초등학교도 반전의 매력이 숨어있다. 현재 재직 중인 북포초등학교는 외관으로만 볼 때 여느 시골학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학교 정문 앞에는 텃밭도 있고 뒤편으로는 나지막한 산도 있고 닭장도 있다. 그러나 전교생 126명의 7개 학급, 담임교사 및 전담교원이 9명으로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섬의 위치한 소규모 학교의 모습은 아니다. 때문에 2개 학년 이상이 합쳐진 복식학급은 없다. 그리고 교실의 학생 수도 평균 18명으로 작은 규모는 아니며 지역적 특성상 인터넷이 느리긴 하지만 컴퓨터실이 잘 갖추어져 있고 SW교육을 할 수 있도록 로봇도 구비되어 있다.

본교에 학생들의 특징은 군 자녀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리적, 군사적 이유로

육해공간이 주둔해 있으며 그 중 해병대가 여단 급으로 가장 크다. 학교 근처 해병대 여단이 있는 이유로 군 자녀가 본교를 많이 다니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온 친구들로 다양한 사투리가 교실에 공존한다. 그리고 이동이 잦은 직업적 특성상 학생 전출입이 많은 편이다.

아이들의 생활모습에 있어 육지의 학교(보통 여기에서는 백령도가 아닌 곳을 육지나 인천으로 표현한다.)와 다른 점은 학년에 따라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하고 5시쯤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이다. 학부모라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을 한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공백 없이, 이동에 불편함이나 위험함 적은 방향으로 아이의 방과 후 일정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의 경우 수익자 부담이다 보니 학생들이 없는 부서는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강사의 잦은 교체로 정규교육이나 학원에 비해 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본교 방과후학교의 높은 수강률과 안정적인 운영은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것 같다.

이러한 섬 학교만의 방과 후 학교 운영상 특징에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수익자 부담이 아닌 무료라는 것이다. 대부분 섬학교는 지원을 받고 있어 방과후학교가 수익자 부담이 아닌 무료로 진행된다. 그리고 적합한 외부강사를 구할 수 없어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방과 후 학교 수업들을 진행한다. 외부 강사와 비교하여, 담임선생님들이 수업한다는 것은 학생 관리나 지도 면에 있어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선생님들도 방학기간 동안에 연수나 개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방과후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현재 본교에서는 SW 코딩 교육, 치어리딩, 오카리나, 회화공예, 창의수학, 독서논술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만 본다면 여느 도시학교 부럽지 않은 강사진과 수업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모습들로 종합해보면 교실 분위기와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수준은 도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본교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학교의 모습에 비해, 지금 바라보는 학교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 이 글을 읽었다면 백령도, 북포초등학교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달라졌을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처럼 한 번 쯤 와서 보고 느낀다면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력에 빠져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

● ● 박 혜 빈(북포초 6학년)

우리 북포초등학교는 ‘사랑’, ‘꿈’, ‘배려’가 가득한 학교입니다.

북포초등학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1935년 11월 19일 가을 고성학원이 인가되었으며, 1944년 3월 31일 백령 국민학교 가을분교장으로, 1996년 3월 1일에 북포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북포초등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지만, 항상 밝고 화목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적지만 그만큼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이가 돈독해 학생 수에 대한 불평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서로를 낯설게 여기지 않고 반겨 받은 생기가 듭니다.

요즘엔 아이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 아침 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꿈에 대해 스피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물론 떨리고 긴장되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한층 더 자신의 꿈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학교는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친구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에 도움을 주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같이 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에 사과하고, 고마운 일이 생기면 또 그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처럼 우리 북포초등학교는 ‘사랑’, ‘꿈’, ‘배려’가 가득한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우리학교의 교목은 해송, 교화는 장미입니다. 물론 이 식물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종 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해송의 꽃말은 불로장수,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미. 그 중 우리 북포초등학교는 빨간 장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 장미의 꽃말은 욕망, 열정, 기쁨, 아름다움, 절정 등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 단어들을 조합해보면 여러 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만 뽑자면 ‘우리 북포초등학교의 열정은 꺼지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조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북포초등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오래 보존되면 좋겠습니다.

##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

● ● 김민규(북포초 6학년)

우리학교는 자랑거리는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 갈대동지 동물원

우리 학교에는 동물원이 존재한다.

칠면조나 닭, 공작처럼 신기한 동물도 많고 어릴 때부터 동물을 보고 자란다는 것은 좋은 것이며 전에는 동물 일기도 썼었다.

둘째 : 놀 시설이 풍부하다.

인천만큼은 아니지만 넓은 강당과 넓은 운동장, 놀이터에서 하지 못했던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배구부터 축구, 티볼, 배드민턴, 핸드볼, 축구 등등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다.

셋째 : 많은 시설들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갈대동지 동물원, 운동장, 강당, 놀이터 외에는 도서관, 급식실, 과학실이 있다.

그리고 섬이다 보니 공짜로 문화예술체험 같은 것을 갈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웅진영어나 뮤지컬, 영어 말하기처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 유능한 선생님들

백령도 북포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재밌으시고 기본 지식이 풍부하시고 친절하시다. 그리고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설명해 주시고 가끔 가다 퀴즈도 하고 그래서 난 선생님이 좋다.

마지막으로 밝고 환한 아이들이 많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밝고 환하며 거부감이 적고 친화감이 높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고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 준다. 여기까지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였습니다.

# VI

## 임원 및 회원명단



---

임원명단

---

회원명단

---



# VII 문화원 주요사업



---

문화원자체역점사업

---

문화예술진흥사업

---

문화예술활성화사업

---



## 2018년 웅진문화원 주요사업

### 1. 문화원자체역점사업

#### ▶ 웅진문화지 발간



- 목적 : 웅진문화원의 연간활동 과 웅진군 역사 기록지, 주민들의 문화작품 등을 알리기 위하여 웅진문화지를 발간.

- 기간 : 9월 ~ 12월

#### - 추진사항

- 8월 문화지 발간 사례 서적 확인, 문화원 자체 구성 초안 회의
- 타 문화원 유사 발간사업 추진 사례 조사
- 9월 문화원 임원 및 회원, 학교, 마을주민 등 자료 및 원고 수집
- 10월 원고 마감 (원고 초안 수정 및 교정, 웅진군 추가 현황 자료 수집)
- 11월 인쇄업체 선정 및 최종 편집 및 인쇄
- 12월 웅진문화지 발송

#### ▶ 문화유적 탐방

- 목적 : 관내·외 지역 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향토사 및 우리 문화의 발굴·보존·전승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킴.

- 기간 : 9월 12일 ~ 9월 13일

#### - 추진사항



- 관내 문화탐방(백령면 1박 2일, 50명) 실시
- 사곶천연비행장, 심청각 등 문화유적지 탐방 및 용트림바위, 콩돌해안 등 백령도 관광자원 관람과 접전지역으로 군부대 OP를 방문하고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하는 등 백령도의 문화역사를 음미함.

## 2. 문화예술진흥사업

### ▶ 군민역량강화를 위한 명사 초청강좌

- 목 적 : 군민들의 문화적 역량강화 및 소통을 위해 명사를 초청하여 강좌를 진행하여 새로운 지식을 함양.
- 기 간 : 9월 ~ 11월
- 추진사항
  - **영흥도 명사초청강좌**  
 일시 : 2018년 9월 5일 14시  
 강사 :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  
 장소 : 영흥 늘푸른센터  
 강의주제 : 뇌를 즐겁게 하라 (창조성과 최신스트레스 관리 기법)



- **덕적도 명사초청강좌**

- 일시 : 2018년 11월 1일 13시
- 강사 : 탤런트 전원주
- 장소 : 덕적면사무소 2층 회의실
- 강의주제 : 영원한 2등 인생은 없다 (긍정, 행복, 열정, 건강 등과 관련한 삶의 이야기)



▶ 찾아가는 문화 활동

- 목 적 :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한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기 간 : 7월 ~ 10월

- 추진사항

• 대청도 '웅진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시 : 2018년 7월 25일

장소 : 대청대피소

공연내용 : '마술사 모세의 판타지쇼', 국악한마당(한국무용, 웅진소리, 타령, 풍물놀이 등)



• 소청도 '웅진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시 : 2018년 7월 26일

장소 : 소청대피소

공연내용 : '판타지쇼', 국악한마당(한국무용, 웅진소리, 타령, 풍물놀이 등)



● 연평도 '웅진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시 : 2018년 9월 19일

장소 : 연평대피소

공연내용 : '어릿광대쇼', '테크니컬 매직쇼', '국악한마당'₩



● 북도면 '웅진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시 : 2018년 10월 29일

장소 : 북도면 시도리종합운동장

공연내용 : '퓨전국악공연', '미술사 모세의 판타지쇼', '초대가수 공연(가수 김혜연)'



▶ 찾아가는 문화 활동

- 목 적 : 예절교실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의 도덕·존중·배려·공동체의식 함양 및 전통문화를 체험하여 올바른 정신함양.
- 기 간 : 6월 ~ 10월
- 추진사항



- 6월 26일 영흥초등학교 강의 실시

장소 : 영흥초등학교 강당

강의주제 : '공경을 담은 복주머니'

참석학생 : 전교생



- 7월 11일 백령중·고등학교 강의 실시

장소 : 백령중·고등학교 강당

강의주제 : '성공으로 가는 이미지'

참석학생 : 고3을 제외한 전교생



- 7월 18일 덕적초·중·고등학교 강의 실시

장소 : 덕적초·중·고등학교 강당

강의주제 : 초 '희망을 심고 비석치기'중·고 '다식만들기'

참석학생 : 초 (초1을 제외한 전교생) 중·고 (강의취소)



● 9월 18일 북도면 신도·장봉분교장 강의 실시

장소 : 신도분교장 다목적실

강의주제 : '신나게 딱딱딱'

참석학생 : 전교생



● 9월 19일 북포초등학교 강의 실시

장소 : 북포초등학교 강당

강의주제 : '희망을 싣고 비석치기'

참석학생 : 전교생



- 9월 20일 백령초등학교 강의 실시

장소 : 백령초등학교 강당

강의주제 : '희망을 싣고 비석치기'

참석학생 : 전교생



- 10월 12일 자월면 자월·이작·승봉분교장 강의 실시

일시 : 자월면사무소 회의실

강의주제 : '색동옷, 우리옷'

참석학생 : 전교생



- 10월 22일 연평초등학교

장소 : 연평초등학교 강당

강의주제 : '신나게 딱딱딱'

참석학생 : 전교생



### 3.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 ▶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 - 목 적

- ▶ 용진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현대 사회에 잊혀져가는“효”사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되돌아 보며, 심청전 배경의 주요지역인 용진군의 위상을 높여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자 함.

##### - 기 간 : 4월 ~ 6월

##### - 참가대상 : 용진군 관내 초·중·고 학생

##### - 추진사항

- 4월 제 19회 심청효행학생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추진 준비 및 각 면 학교 협조 요청
- 5월 2일 ~ 5월 25일 글짓기·그림그리기 작품 응모 기간
- 5월 28일 ~ 5월 31일 응모 작품 학교별 분류 파악 및 접수  
글짓기 부문 - 초등 : 21명, 중등 : 2명, 고등 : 8명  
그림그리기 부문 - 초등 : 24명, 중등 : 8명, 고등 : 6명
- 6월 5일 대회 심사 진행 (용진문화원 소회의실)  
심사위원 : 영중중학교 조래경 교사, 화도진중학교 김신일 교사
- 입상자 확정 - 22명 (그림그리기 부문 12명, 글짓기 부문 10명)  
상패 및 상품권 시상(최우수 10만원, 우수 5만원, 장려 3만원)
- 6월 25일 ~ 29일 대회 작품 전시 (용진군청 1층)



#### ▶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한 여가문화 활성화

- 목 적 : 생활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취미생활 및 체험 등, 강좌 수업을 통해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함.

##### - 기 간 : 5월 ~ 12월

－ 추진사항

- 5월 ~ 7월 1차 북도면, 자월면 생활문화센터 (토탈공예, 캘리그래피) 강의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매주 수 15시 ~ 17시  
자월면 생활문화센터 매주 목 16시 ~ 18시
- 9월 ~ 11월 2차 생활문화센터 (토탈공예, 캘리그래피) 강의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매주 수 15시 ~ 17시  
자월면 생활문화센터 매주 목 16시 ~ 18시
- 11월 추가 강의 진행 장봉도, 이작도 2회 강의



▶ 문화 활동가 양성사업

－ 목 적 : 문화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주민들을 문화 활동가로 양성, 지도자로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기 간 : 8월 ~ 11월

－ 추진사항

- 8월 16 ~ 11월 문화활동가 양성 다도·다례 교육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  
매주 목 16시 ~ 18시
- 11월 평가회 및 수료식  
교육에 대한 실습 평가 및 우수교육생 시상  
수료생에 대한 다도 활동 지원 및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예정



VIII

심청효행 글짓기·  
그림그리기  
입상작품



글짓기

그림그리기



##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 ● 김 서 윤(덕적초 5학년)

흔한 이야기 효녀 심청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그림이 없어도 따뜻함이 느껴진다. 아무래도 그림이 없으면 감정표현이 잘 안되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난 그림이 없는 심청이를 읽어보면 그림이 있는 것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건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의 힘때문이 아닐까? 우리 부모님도 누군가의 자식이겠지만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님으로 가족으로 만든다. 가족은 살면서 나의 진정한 편이다. 그런 가정을 만드신 부모님께 해드리는 행동 그 행동을 “효도”라고 한다.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해드리는 거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행동이다. 편해서인걸까? 가장 사랑하고, 고마운 사람께 너무 소홀한 거 같다. 마음속으론 “나도 심청이처럼 효녀가 되어지!”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하지 못한다. 가끔 생각에 빠지곤 한다. “나는 부모님한테 뭘 해줬을까?” 내가 오히려 사랑을 받는거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일까? 아무래도 그런거 같다. 며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는데 내옆에 가까이 있을 땐 잘해주지 못하는거 같다. 가끔 책을 읽다 보면 영웅들이 많이 나온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는 이런 영웅들을 보고 “나도 커서 영웅이 될꺼야.” 이렇게 다짐하지..... 그렇지만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을 위해 보답을 안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같다. 욕심이랄까? 항상 내가 빛나려고만 한다. 그걸 또 믿어주시고 밀어주시는 부모님. 나를 위해 한 평생 일하신 부모님. 부모님의 주름, 흰머리를 볼 때면 너무 미안해진다. 그럴때마다 조금씩, 더 조금씩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 깊어진다. 물론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안 되었기에 부모님의 마음은 모른다. 하지만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많이 느낀다. 어쩔 때 한번씩 가족사진을 본다. 영원히 그 시절을 유지하는 물건, 사진. 나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절이 담긴 사진. 그것만 봐도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사람들이 어찌다 그러잖아요. 깨끗한 새집보다 오래된 집이 좋은 건 늙었기 때문이라고. 처음엔 이해가 안됐지만 조금씩 이해가 된다. 나이가 되면 가족의 사랑이 묻은 오래된 집이 좋다는거, 근데 나는 새로운 집도 좋다. 어려서 그런게 아니라, 나는 새집을 우리 가족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고 싶어. 오래된 집도 처음엔

새집이었으니까. 사랑이 가득한 집, 그런 집은 노력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살아야지 만들어지는거라고. 그래서 사랑은 노력해서 얻은 사랑보다 평범한 사랑이 좋은 걸까? 난 그렇게 느낀다. 사랑을 얻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 대가로 사랑을 얻는 것보다 평소에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사랑, 애정이 더 뜻깊은 거라고. 난 심청이보다 좋은 환경이지만 심청이의 마음은 따라잡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심청이의 마음씨는 본받을 꺼지만 나는 우리가족이 심청이 가족이랑 다른 가족이고 싶다. 심청이 가족처럼 행복할꺼지만 우리 가족의 더 개성있고 싶다고, 나는 심청이의 마음씨보다 더 착해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지만 심청이 가족보다 사랑의 힘은 더 컸으면 좋겠다. 노력할꺼지만 즐기면서 노력할꺼야!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부모님,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거 거의 다 해주고 싶다.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되돌려줄 차례다.

비록 모든 이들의 영웅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한테는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부모님의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해도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줄거야!! 부모님이 나 때문에 한숨을 아예 안 쉬게 해준다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노력은 할거다. 나중에 훌륭한 직업을 가져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에게 투자한 돈을 갚아주고 싶다. 사랑을 돈으로 메길 순 없지만,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거 다 해주고 싶다. 영원히 부모님과 나의 사랑이 끊기지 않고 더 끈끈해지고 싶다. 한번뿐인 가족, 부모님 아프지 말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힘내서 더 강한 끈이 사이에 생겼으면 좋겠다. 가족사이에 필요한 것은 효도만 있는게 아니지만 자식들이 부모님께 가장 고마움을, 먼저 다가가기 쉬운 일 효도. 내가 효도를 잘 하진 못해요. 그래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항상 힘내세요!!



## 효도



●● 이주원(영흥초 6학년)

효도란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를 말한다. 효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요즘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심지어 부모님을 버리는 사람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 물론 자신이 힘들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거나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효도는 꼭 돈이나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자신이 바쁘더라도 부모님을 보고 온다던가 아니면 전화로 사랑한다고 한번씩이라도 말해주는 것도 효도이다.

효도는 자신이 만족해서 부모님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닌 자신이 만족해도 부모님이 만족하시거나 행복해하셔야 이것을 효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힘들거나 혼자 먹고 살 때도 힘들다면 부모님도 힘드신데 어떻게 나를 키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간혹 가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부모님께 아주 큰 불효를 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힘들게 낳으시고 힘들게 키우셨는데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는 건 아주 큰 불효이다. 부모님도 힘드시고 힘든데도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혼자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는 건 부모님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큰 슬픔이고 큰 불효이다. 효도를 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다. 부모님도 우리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 자신에게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효도를 해드려야 한다. 항상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부모님과 싸우고 효도를 안하고 항상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반성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소한 효도라도 많이 해드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게 자신에게도 좋은 추억이고 부모님께서는 효도이니까 열심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드리고 돌아가셔도 후회 없게 하는 게 제일 좋은 효도인 것 같다. 어른이 되기 전까진 아직 어리고 할 수 있었던 것들도 없었지만 어른이 돼서

는 어리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으니 어렸을 때는 잘 못 하더라도 어른이 되어서는 그나마 어릴 때보다는 효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효도라는 것은 꼭 돈으로 드리는 것이나 물건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닌 마음, 정성, 사랑을 드리는 것도 효도이다.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 사랑의 뜻을 모르고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고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효도를 하고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인 것 같다.

효도를 한다면 부모님은 더 행복해 지실 것이고, 더 감동 받을 것이고 행복해 하실 것이다. 남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것은 효도 만한 게 없을 것 같다. 물론 다른 것들로도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남들에게만 좋은 사람이고 나와 부모님에게는 좋지 못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성실하고 부모님께 마음을 보여드리고 효도를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만큼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달이지 않을까 싶다.

부모님께 효도라는 것은 아주 큰 행복이고 큰 기쁨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효도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부모님께 더 다가가는 달이 됐으면 좋겠다.

## 반중 조홍 감이~



● ● 이 미 리(연평중 3학년)

저는 시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시는 효에 관련된 시이며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시였습니다. 박인로의 작품인 시조 '반중 조홍감~'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소반 위에 빨강계 익은 감이 곱게도 보이는 구나. 비록 귀한 유자 아니라도 품어갈 마음이 있지마는 품어가도 반겨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것을 서러워하는구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난 뒤 부모님의 소중함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이 시에서는 비록 귀한 유자 아니라도 품어가겠지만 품어가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저한테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말썽꾸러기처럼 굴다가 옆에 안 계시니까 후회하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이 저의 옆에 멀쩡하게 계시니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할수록 '그게 잘못된 생각이구나.'하면서 조금씩이나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신 나는 행복한 거구나.'라고 다시 생각하게끔 이 시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걸 겪어보지 못했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은 다른 사람들이 다들 부모님께 잘 하라고 말 할 때 그 의미에 공감하지 못하고 쉽게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를 지금이나마 읽어서인지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랑 비슷한 경험이며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소중함과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내용과 이 시를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애정 표현을 하고 부모님과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전부 해보라고 충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고 후회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다시 말해봅니다.

제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 시를 읽고 나면 정말 큰 슬픈 아픔이란걸 느껴지게 됩니다. 부모님은 저희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건 생명줄이 끊어지듯 아픈 것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만약 생명줄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픔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는 뜻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도 효도를 할 수 있고 부모님이 계시면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으며 있는 한 최대한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효도를 정성 깊게 해야지 뜻 깊다는 사실을 알고 효도를 정성 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말로 효에 대해 전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부모님은 저희의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저희의 생명줄이고 사랑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여기라는 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 주신 덕에 제가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는 저희가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준 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세요. 그만큼 행복을 얻고 부모님도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고 부모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시는 부모님을 잃어 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슬픈 감정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솔직해지고 부모님에게 뭐라도 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중 조흥감~’시에 대한 저의 감상문이었습니다.

## ‘엄마, 오늘도 사랑해’를 읽고



● ● 김 휘 준(영흥중 2학년)

나는 이 책을 읽고 크게 느낀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로 엄마와 자식의 사랑, 두 번째로 장애인의 힘든 삶이다. 글쓴이는 청각장애가 있었고 그 글쓴이를 위해 글쓴이의 엄마가 희생하며 글쓴이를 키우는 내용이다. 이 글을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울컥하였다. 특히 글쓴이를 낳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말을 하지 않는 글쓴이를 보며 걱정하는 마음과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에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을 것이다. 겪어보지 않고는 그 감정을 그 누구도 진심으로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 나 또한 그렇다. 나는 글을 읽으며 울컥했다. 물론 장애를 가졌다는 점에서도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셨을 부모님들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일 것이다. 물론 나도 실제로 더 울컥했던 것은 겪어보지 못한 장애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이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주시는데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나는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보다 미래의 나와 나의 부인, 자식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우리의 지금 사회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것도 좋지만 현재를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할 필요가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면 더더욱 말이다. 물론 도움을 받기 위해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현재의 소중한 사람들을 항상 곁에 두기 위해 좀 더 사랑하고 잘 해주자.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 사람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가? 나 또한 떠난 사람들이 많아 이 글을 읽으며 그때의 기억을 돌아보았다. 한 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어떤 이유에서든 떠나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님이 한순간 갑자기 떠난다고 생각하면 매우 슬프다. 우리는 아니 지금 당신은 무얼 위해 사는가? 당신이 누군가의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살 것이다. 하지만 나와 같은 어떤 한 부모의 자식일 뿐이라면 미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미래만 보고 살아간다면 정작 우리가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하기를 바란다는 게 자신의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랑하자.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자. 떠나가려는 이를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슬플 것이다. 떠나려는 이를 진정 잡고 싶다면 잡아라. 대신 그를 평생 내 곁에 두고 사랑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 전에 떠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이가 있다면, 잡고 싶지만, 정말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이가 있다면 나와 함께 할 때보다 떠나고 더 행복할 수 있게 해주자. 그것이 떠나는 이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곳에 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그 사람들을 곁에 두기 위해 노력하고 꼭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떠났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자. 또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자.

## 행복한 인생을 위한 처방전을 읽고



● ● 조 정 환(영흥고 2학년)

지금까지 나는 나의 가족들과 같이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를 받기만 했지 내가 내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준 적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자 선택했던 이 책 ‘행복한 인생을 위한 처방전’을 읽게 되었으며 또한, 나에게 아직 부족한 ‘효’라는 것에 대해 느끼고자 이 책을 선택하기도 했다. 작게는 내 가족, 넓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과연 ‘효’라는 녀석이 있는 것일까? 나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가끔씩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닫고자 한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시내에서도 볼 수 있는 약국의 어느 한 약사의 삶을 그린 내용이다. ‘손온누리약국’이라는 이름의 약국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약국을 지은 약사 ‘박덕순 여사’에 대한 내용이다. 그녀는 육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자랐다. 그 시절의 그녀는 아직 천진난만할 나이로 그런지 몰라도 웃으면서 그 비극을 이겨내고 자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었고 그녀는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느 날 그녀는 다락방에서 어머니의 일기를 본 뒤 자신의 어머니와 약속을 했고 그 뒤로 학업에 열심히 임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교회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약사를 위한 길을 향했으며 결국 약사가 되어 ‘손온누리약국’이라는 이름의 약국을 지었다. 그 후 그녀의 약국을 찾는 손님들에게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대해 주었다. 그냥 약사라는 위치를 넘어 약학석사를 얻었으며 그 뒤로도 다양한 도전을 했고 여전히 여러 사람들에게 ‘효’를 베풀었다. 이제는 한 명의 어머니로써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기분 등을 알게 되었고 자녀에 대한 성찰 등을 함으로써 한 명의 딸, 한 명의 어머니로써 그녀는 더욱 발전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형식으로 끝이 났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학업이니, 휴식 등을 변명으로 내 가족들에게 소홀히 대해왔던 내 모습에 대해 깊게 반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대하는 내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반성과 함께 깊이 느끼고 또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박덕순 약사의 일생 속에서 내 지금까지의 일생 중 일부 비슷한 점이

많아 좀 더 가까이, 그녀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 공감하면서 다가갈 수 있었다. 나와 그녀 둘 다 한 명의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어버렸다는 점 등 이런 점들에서 둘 다 슬픈 눈물을 흘렸으며 그 감정 또한 비슷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한 구체적인 나이가 다를 뿐 그녀의 어린 시절 아픔이 마치 내가 14살이라는 나이에 느꼈던 아픔과도 같아 더욱 공감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배울 점이 많았다. 자신의 어머니를 넘어 전혀 모르는 타인들까지 ‘효’를 통해 행복을 전해 주었다는 점, 누구보다도 가족을 소중히 하며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소중히 하며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그녀가 느꼈을 고난과 감정 등을 알아주는 효심 등 나는 그런 점들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박덕순 약사가 나에게 “너는 지금 이렇게 해선 안 돼. 너의 가족들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 너도 생각해 봐. 그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조언으로써 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그녀처럼 내 가족에게, 어머니께 ‘효’라는 녀석을 통해 “지금 바쁘니 방해하지 마라.” 이런 말과 같은 말들을 잠시 잊고 가족들에게 내 조그만 시간을 투자해 길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짜증’이 아닌 ‘웃음’으로, ‘분노’가 아닌 ‘행복’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효’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더욱 ‘효’를 실천하며 더 나아가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효’라는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뒤 내가 느낀 ‘효’라는 것의 의미는 ‘가족과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받아왔던 것들에 대한 보답 즉, 행복과 웃음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 ‘허삼관 매혈기’를 읽고



● ● 김 사랑(영흥고 3학년)

아버지의 부정은 어떻게 생기고 남자의 가족에는 또 어떻게 생겨날까? 중학생 때, 선생님의 추천으로 읽게 된 ‘허삼관 매혈기’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두어 번은 읽어 보고 이미 독후감도 한번은 써봤을 정도로 익숙하지만, ‘허삼관 매혈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독후감을 쓸 때마다 달라진다. 처음에는 아비의 무정함과 아내를 향한 비정함에 대해, 두 번째에는 철없는 아들들에 대해 썼었고, 그리고 오늘은 저번에 내가 쓴 개인적인 독후감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철없던 아버지, 가족의 가장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독후감을 써 보고 싶다.

책 ‘허삼관 매혈기’의 첫 부분은 주인공 허삼관이 ‘피를 팔아보지 않으면 여자를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에 피를 팔러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이후 허삼관은 여인, 허옥란을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지만, 첫째의 얼굴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차별한다. 이런 모습에서 나는 허삼관이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언제나,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아들 일락을 아버가 다룰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충분히 완벽한 아버지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하물며 우리 아빠도 아직 실수하고 20대 청년 같을 때가 있는데.....나의 편견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에 대비되어 허삼관이 첫째 일락을 포함한 세 아들을 위해 피를 파는 희생을 벌이는 장면이나, 아내만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는 장면은 인물 ‘허삼관’의 아버지와 남편,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듯하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도 희생하여 사랑하는 모습은 궁핍한 생활 탓의 고통에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삼관이 대견해 지도록 한다. 이 장면에서도 나는 우리 가족을 떠올렸는데, 아빠는 게임을 좋아하고 가끔은 청년 같은 마음으로 실수 같은 결정을 하곤 하지만,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생을 위해 게임칩과 치킨을 사주고 현관문을 여는 모습이 성장한 허삼관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내가 꼽은 마지막 인상 깊은 장면은 철이 덜 든 세 아들을 허옥란이 질타하고 허삼관과 함께 돼지 간 볶음과 황주를 먹으러 가는 장면이었는데, 나는 그 장면을 읽

으며 철없는 세 아들을 책 ‘허삼관 매혈기’ 초반의 허삼관의 모습에 대입하고, 또 현재의 나와도 같다고 생각했다. 책 초반의 허삼관처럼 세 아들들은 아직 철이 없지만, 허삼관이 삶에서 겪은 일련의 과정들과 같은 일을 겪고 난다면 세 아들들 또한 언젠가는 가족의 든든한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아들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철없는 딸인 내가 언젠가는 어느 가정의 기둥으로 아직은 이해하기 힘든 가족애와 부성, 모성을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책 ‘허삼관 매혈기’ 속 아들과 같다. 아직은 모성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허삼관의 희생이 알게 모르게 두렵기도 하다. 나는 아직 철이 덜 들었으며 아직까지 엄마, 아빠의 속을 썩이는 딸이지만 내가 자라고 나면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엄마, 아빠의 마음도, 모성과 가족애도 깨닫고 엄마, 아빠에게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건네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상상 못 할 희생으로 날 키워주고 사랑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초등  
최우수

● ● 함 재 희(백령초 5학년)



초등  
우수

● ● 손 수 민(백령초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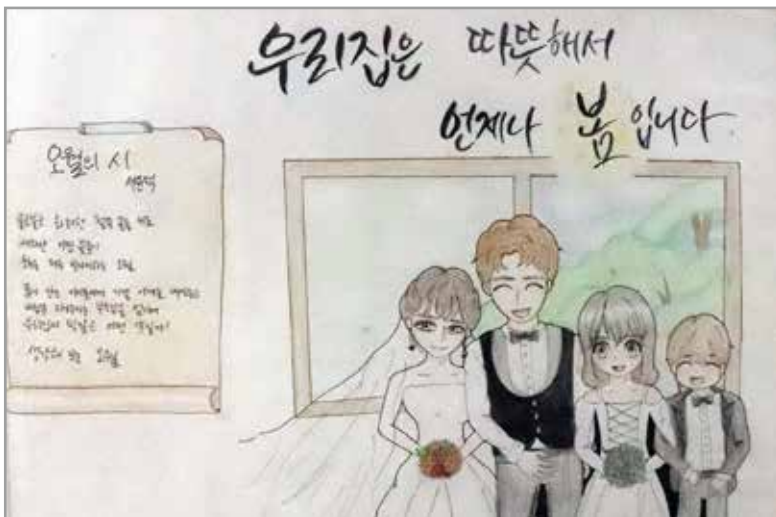




● ● 김 예 진(영흥중 3학년)



● ● 정 승 희(영흥중 3학년)



VIII

심청효행 글짓기 · 그림그리기 입상작품



● ● 윤 중 보(연평고 2학년)



● ● 김 기 환(연평고 2학년)

